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 또 한 권의 시시한 책

(Another Nasty book . 번역논문)

제주대학교 통역대학원

한영과

김 수 정

2011년 2월

# 또 한 권의 시시한 책

(Another Nasty book . 번역논문)

지도교수 김 재 원

김 수 정

이 논문을 통역번역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8월

김수정의 통역번역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제주대학교 통역대학원

2012년 8월

Another Nasty book  
The Curse of the Tweeties

Soo-Jeong Kim  
(Supervised by Professor Jae-won Kim)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August 2012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Department of Korean-English  
GRADUATE SCHOOL OF INTERPRET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 하나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다.

저 먼 프레젠티 호숫가에 어느 기나긴 여름날의 오후가 끝나갈 무렵이다.

땅거미가 지고 반딧불이가 모습을 드러내 반짝거리므로, 이른 저녁식사를 위해 야외로 나온 가족이 둘러앉아 웃음을 짓기에는 안성맞춤이다.

물론 무서움과 공포감, 등골을 오싹하게 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닥치기에도 적격이다.

너무 앞서 나갔나요?

나들이 나온 가족의 롤로라는 한 아이가 나무 뒤에 몸을 웅크리고 숨어서 저녁식사 전에 '너티너츠' 초코바를 ("잇을 수 없는 달콤함의 향연") 아무도 몰래 한 입 먹으면서, 가장 좋아하는 일본 액션 만화를 다시 읽고 있다. 그때 엄마가 롤로를 찾는다.

"롤로!", "너 거기 숨어 있지? 초코바 먹으면서 말이야. 입맛 떨어지고 몸에 좋지 않아! 그리고 식사준비는 저절로 되는 줄 아나 보구나, 롤로?" 하고 엄마가 롤로를 꾸짖는다.

그래서 롤로는 서둘러서 입 주변을 닦고 너티너츠바를 숨긴다. 할 수없이 조심스럽게 만화책을 덮는다. 그리고 저녁식사를 위해 가지런히 정리되기를 기다리는 접시와 포크, 나이프와 냅킨 등이 겹겹이 쌓인 피크닉 식탁으로 터덜터덜 걸어간다.

물론 이러한 박탈감과 달갑지 않은 일이 앞서 말한 무서움과 공포, 그리고 비극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우~, " 롤로의 누나, 노린이 비웃는다. "밥 먹기 전에 혼자 잘도 먹었지? '사무라이 수지' 인지 뭔지 하는 유치한 만화책에 그 돼지코를 쳐 박은채로 말이야."

"수이치야." 롤로는 일부러 자신을 약 올리는 누나의 말에 소리를 지른다.

"수이치는 그저 그런 사무라이가 아니야, 수이치는—"

"됐다, 그만해라." 바베큐를 준비하던 아빠가 야단친다. "너희들 때문에 내

머리가 다 아프다.” 아빠가 고기에서 올라오는 자욱한 연기를 손으로 가로저으며 기침을 한다.

“‘검객소년 사무라이 수이치’ 라고!” 롤로가 평소 싫어하는 누나의 ‘수지’라는 표현 때문에 씩씩거린다. 노린가 ‘수이치’라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곧 세 사람은 자가용 밴에서 들려오는 엄마의 비명소리 쪽으로 급히 돌아본다. 그들은 엄마가 어둠속에서, 열려있는 차 뒷문에 숨은 무엇인가를 걷어차고 있는 모습을 목격한다.

“무슨 일이야?” 아빠가 소리친다.

엄마는 ‘가족들이 너무 좋아하는’ 바나나 크림 파이를 들고 피크닉 식탁 쪽으로 의기양양하게 걸어온다. “어떤 징그러운 작은 녀석이, 못생긴 노인처럼 생겼는데, 글썄 파이 한 조각을 뺏으려 들잖아요.” 엄마가 소리친다. 그리고 빈정거리며 말한다. “그런데 내가 평생 잊지 못하게 그 녀석을 걷어차 버렸어요! 스컹크처럼 냄새도 났어요.”

“스컹크요?” 롤로는 관심 생기면서도 역겨운 듯이 엄마를 쳐다보며 묻는다.

“아마 스컹크는 아닐걸. 그런 얼굴모양의 주머니쥐겠지.” 노린이 확신에 차며 말한다. “우웬, 주머니쥐는 광견병을 옮기는데...”

“광견병? 누난 늘 광견병 타령이구나!” 롤로가 비꼰다.

“너희 둘, 계속 티격태격할 거야!” 엄마가 단호하게 말한다.

“으그... 머리아.” 아빠가 기침을 한다.

“자, 이제 저녁준비 다 됐다.” 엄마가 말한다. “랜턴에 불 켜야지, 롤로.”

부모님이 잔소리하고 오누이가 티격태격하는 전형적인 가족 분위기로 해질 녘, 아름다운 프레젠티 호숫가에서 롤로 가족의 저녁식사가 시작된다.

아마도 앞서 말한 무서움, 공포 그리고 비극이 지금 시작 되려나 봐요. 그것은 새까맣게 타버린 아빠의 바비큐 요리나 칠면조 소시지 모양일까요? 롤로와 노린이 언더리가 나서 슬그머니 접시 한편에 골라내 버리는 끈적끈적한 당근 자투리와 물경물경하고 구역질나는 벌레크기의 건포도로 만든 엄마의 괴상 망 축감자 샐러드 모양일까요?

물론 엄마가 무서운 눈으로 쳐다보면서 “너희 둘, 건포도에 뭘 하는지 다 알고 있어.”하고 잔소리 할 때를, 혹은 오늘처럼 즐거운 가족행사가 있는 날에

엄마의 일품 요리 바나나 크림파이를 자르려 할 때를 바로 그 무서움, 공포, 그리고 비극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 일 년에 네 다섯 번, 그 크림 파이에겐 희한하게 생긴 혹 덩어리가 있어요. “애야, 내가 어쨌든 그 못생긴 녀석을 걷어 찼다는 거 아니겠니.” 엄마는 고개를 저으며 또다시 낄낄 웃는다.

“그런데, 광견병을 옮길 수도—“

“누나, 밥 먹는 중이잖아!” 역겨운 소리에 롤로가 항의한다.

“그만 하라고 했지!” 입안 한가득 음식을 넣은 채로 아빠가 투덜거린다.

“애야, 저것 좀 보렴.” 엄마가 부드럽게 속삭인다. 피크닉 식탁의 랜턴 불이 꺼져 너머 짙어가는 어둠 속에서 감탄이 절로 나올 정도로 반짝이는 수많은 반딧불이를 보면서 엄마가 미소를 짓는다. 가족모두가 함께 쳐다본다...

프레젠티 호숫가 그곳에서... 반딧불이의 반짝임만 남은 채 고요함이 감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뿐.

엄마가 코를 킁킁거린다.

“어머나...” 엄마가 천천히 말한다.

가족 모두 고개를 돌린다. “세상에, 정말 작다.” 노린이 자기도 모르게 중얼거린다.

느닷없이 세찬 바람이 불어와 피크닉 식탁을 흔든다. 곧 또 한 차례의 거센 바람이 불더니 후식용 종이접시를 날려 버리고 랜턴을 뒤집어 놓는다. 가족들은 소리친다. 반딧불이가 한 번에 사라져버린 듯 어두워진다. 그 순간 우르릉 짱! 천둥이 울린다. 바람은 화가 난 듯 피크닉 식탁을 거세게 흔든다.

어둠속에서 키가 작고 다리가 두 개 달린 한 무리의 생명체들이 화가 나서 당장 싸울 기세로 달려들자 엄마와 노린은 비명을 지른다. 그것들은 작고 괴상하게 생긴 노인의 모습을 하고 있다. 귀는 길고 쭈글쭈글하며 눈과 눈 사이는 넓고 불은 주름지고 넓적하며 코는 뽕족했다. 게다가 꽃잎과 나뭇잎으로 만든 덤불 옷을 입고 있다.

“감히 네가 우리 고블린 친구를 괴롭혔단 말이지?” 그들은 고음의 특이하고 낡은 쉿소리로 뻑뻑거린다. 작은 손들이 우글우글거리며 피크닉 의자에 앉은 채 별별 떨고 있는 엄마를 붙잡고 끌고 가기 시작한다.

“도와줘, 도와줘!” 엄마가 울먹거리다.

“야, 거기서!” 아빠는 의자 뒤에서 발만 동동 구르며 소리치더니 곧 기절한다.

“엄마!” 노린이 울부짖는다. “엄마아....!”

“너희 엄마가 페어리랜드에서 얼마나 멋진 시간을 보내게 될지 두고 봐라.” 납치범들은 거센 바람이 몰아치는 칠혹 같은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그들 중 한 놈이 작지만 사악한 목소리로 키득거리며 말한다.

이것이 바로 무서움과 공포감, 등골을 오싹하게 하는 비극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요, 바로 이거예요. 이젠 이해가 되나요?

롤로는 눈을 깜박거리며 세차게 부는 바람을 바라보고 있다. 롤로의 얼굴에는 갑자기 놀라움의 미소가 번진다.

“우와...” 롤로는 자신도 모르게 말한다. “굉장한데!”

이미 눈치 채겠지만 롤로는 전형적인 액션-어드벤처 만화광이에요.

아빠는 그제야 일어나면서 바람을 냅을 잃고 바라본다. 단, 미소는 없다. “서둘러라!” 아빠가 혈떡인다. 돌아서서 옆으로 넘어진 바비큐 석쇠가 있는 곳으로 달려간다. 그리고 그것을 뱅이 있는 쪽으로 힘들게 끌기 시작한다. “우리도 잡혀가기 전에 어서 여기서 나가자!” 아빠가 소리친다.

롤로는 노린이 잔디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접시와 나이프, 포크들을 줍기 위해 돌아다니는 것을 우두커니 바라보고 있다.

“랜턴도 챙겨라!” 아빠가 뒤돌아 소리친다.

“그럼, 엄마는요?” 롤로는 당황해서 항의한다. 롤로는 엄마를 마지막으로 보았던 곳으로 몸을 틀며 말한다. “엄마를 저대로 둘 거예요?”

## 둘

그 후로 두 시간이 흘렀다.

“엄마를 저대로 둘 거예요?”

롤로는 네 번째 같은 질문을 하면서 아빠가 바베큐 석쇠를 차에서 내리는 것을 도와드리기 위해 벤 뒤쪽으로 터벅터벅 걸어간다. 그들은 집 앞에 있다. “어떻게 엄마를 저대로 내버릴 수가 있어요?”

“롤로, 네 번째 같은 질문이구나.” 아빠가 귀찮아하며 대답한다. “몇 번을 말해야 알겠니? 엄마는 무사할 거야, 그럼 무사 하고 말고. 엄마가 어떤 분인지는 너도 잘 알지? 엄마를 쫓아가는 건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야.”

“네가 늘 그렇듯이 말이야.”라고 노린이 접시들이 담겨있는 피크닉 바구니를 들고 부엌문 쪽으로 뒷걸음질로 가면서 비꼬듯 덧붙인다.

“그럼, 하다못해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말도 벌써 세 번째였기 때문에 롤로는 그전 보다는 다소 힘없이 말한다.

“애야, 네 번째야, 그만 좀 해!” 아빠가 횃수를 과장하며 화를 낸다.

“신고하면? 그 사람들이 페어리랜드에 대해서 알기나 할 것 같니?” 노린이 비웃는다.

“내 아내가 요정들에게 납치되었다는 사실을 고객들이 알기라도 하면 내가 부동산 일을 얼마나 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고블린이에요.” 롤로가 중얼거린다. “그치만...”

“아빠?” 노린은 말한다. “엄마가 돌아오실 때 까지 얼마 전에 새로 산 저 오렌지색 블라우스를 입어도 되요?”

“그래.” 아빠는 상관없다는 듯 어깨를 으쓱한다. “좋을 대로 해라.”

롤로는 아빠와 노린을 노려본다. 안중에도 없는 듯, 두 사람은 롤로의 시선을 외면한다.

\*\*\*

“그건 엄마 모자야!” 한 시간쯤 지나서, 롤로는 다시 누나를 노려보며 소리 친다.

잠자리에 들기 직전 롤로는 노린의 방문 앞, ‘여자만세!!’라고 쓰인 풋말 아래 서 있다. 노린은 작년 루어링 레인보우 놀이동산으로 가족나들이 갔을 때 엄마가 경품으로 얻은 분홍색 야구 모자를 쓰고 있다.

“이건 내가 더 잘 어울리는 거 같아.” 노라가 만족스러운 듯 말한다. “네가 무슨 상관이야! 어쨌든 아빠는 상관 안하시잖아.”

“그래도, 그러면 안 되잖아.” 롤로가 얼굴을 찌푸린다. 소중한 엄마를 빼앗겼지만 눈 깜짝하는 사람 하나 없다. “고블린들이 말이야, 엄마를 고문하거나 하면 어찌지?”

“아, 그래. 그들이 어마어마한 몸값을 요구할지도 몰라. 우리는 집을 팔아야 할 텐데, 그러면 가난하게 살게 될 거고 떠돌아다니게 될 거야. 하지만 그들이 엄마를 제대로 알게 되면, 아마도 얼른 데려가라고 돈을 줄지도 몰라.”

“애들아, 조용히 해!” 아빠가 일층 안방에서 졸린 목소리로 외친다.

“어쨌든,” 이번엔 노린이 작은 목소리로 말한다. 그리고는 따지듯이, “언제부터 네가 그렇게 엄마 생각을 했어? 지난주에 엄마가 너보고 방청소 하라고 하셨을 때, 네가 그랬지? 엄마는 화성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잖아. 이제 너 걱정할 일이 전혀 없어.” 노린은 비웃는다. “그럼 이제, 조용히 네 돼지우리로 돌아가서 네가 좋아하는 초코바나 먹어치우지 그래?”

물론 롤로는 똥똥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린의 말에 매우 기분이 나빴다. 롤로는 그저 다른 어떤 음식들 보다 초코바를 더 좋아할 뿐이었다.

그러고 나서 노린은 방문을 쾅하고 닫아버린다.

“조용하라니깐.”

롤로는 늘 지저분한 자신의 방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아 너티너츠바를 우적우적 씹으며 생각에 잠긴다. 롤로는 구역질나는 작고 주름진 얼굴과 냄새가 지독한 고블린 손을 잡았던 것을 떠올렸다. 그리고 ‘검객소녀 사무라이 수이치’에서 처럼 엄마가 아주 끔찍한 학대를 받고 있을 거라고 상상 했다. “겁쟁이들!” 롤로는 아빠와 누나의 모습을 생각하며 혼잣말로 말한다. “비열한 겁쟁이들!” 일본 만화책에서 나오는 일종의 ‘그들만의 표현’으로 중얼거린다.

롤로는 내일이면 아빠와 누나가 용기를 찾을 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걸어본다.

\*\*\*

하지만 이튿날 아침 역시 평소처럼 아빠는 신문을 읽으면서 투덜거린다. 그

리고 “다녀올게.” 라고 중얼거리고는 출근한다.

그냥 그럴 뿐이다.

노린은 마치 세일기간 백화점에 온 것처럼 오전 내내 엄마의 옷장을 뒤적거린다. 롤로는 뒤뜰에서 창문으로 노린이 하는 것을 지켜본다. 시들어가는 소나무에 플라스틱으로 된 길거리 하키스틱으로 사무라이 목검술인 자르기와 내려치기를 연습하다가 쉴때마다 지켜본다. 사무라이 검복 대신에 프로 하키팀 젤리피쉬의 특대형 유니폼 셔츠를 입고 있다. 롤로는 가끔 친구들과 길거리 하키를 즐긴다. 현재는 해체된 프로팀 젤리피쉬는 바보 같은 팀이어서 친구들은 그 티셔츠에 대해 놀린다. 하지만 지금 친구들은 모두 여름휴가를 갔다.

오후에 몸값을 요구하는 소식은 없었다. 그 괴상하고 낡은 쇠소리 같은 목소리로부터 걸려온 전화 한 통 없었다. 물론 엄마도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한 가지 생각이 롤로의 머릿속에 떠오르기 시작했고 그것은 아마도 과도한 당분섭취와 기상천외한 독서 습관의 영향일 것이다. 그 말도 안 되는 생각 속으로 소나무를 향해 검을 휘두를 때 마다 점점 더 빠져들었다. 말도 안 돼! 그치만 분명 재미있을 거야...

마트에서 사온 치킨을 데워 저녁밥으로 먹고 있을 때 롤로의 아빠는 맥주 한잔을 꿀꺽꿀꺽 들이켜더니 목청을 가다듬고 말한다. “내가 생각해봤는데 말이야. 만약 엄마가 하루 이틀 안에 돌아오지 않으면 길 건너 사는 쉬노클러 아줌마를 저녁식사에 초대할 생각이다. 그냥 이야기상대로 말이야.”

“그 아줌마 얼마 전에 이혼하셨잖아요?” 노라가 말했다.

“그게 정말이야? 처음 듣는 얘인데.” 아빠가 속이 뻘히 보이는 거짓말로 대답한다. 아빠는 얼굴이 붉어지더니 맥주 한잔을 쭉 들이킨다.

“아빠, 여기 있는 엄마 귀걸이 할게요. 이것도 빌려가요”

입 안 가득 닭다리를 넣은 채 롤로는 보석더미를 들고 있는 욕심쟁이 누나를 쳐다본다. 그 순간 기발한 생각이 뇌리를 스친다. 그는 영웅은 아니지만, 입안의 음식을 꿀꺽 삼키면서, 영웅적 사명감을 갖는다.

\*\*\*

“검객소년 사무라이 수이치처럼 말야!” 잠자리에 들기 전 노린의 방문 앞에

서 롤로는 들릴 듯 말 듯 한 목소리로 노린에게 단호하게 말한다. “원숭이 공주 제이드가 악어로봇에게 납치됐을 때처럼 말야.”

“뭐라고?” 번쩍번쩍 보석들로 치장한 귀가 축 늘어진 채로 노린이 말한다.

“무슨 말인지 몰라?” 롤로는 몹시 화가 나서 따진다. “난 원정을 떠날 거야. 엄마를 페어리랜드에서 구출할 거라구. 누나랑 아빠는 비열한 겁쟁이야.”

“오호라, 밑도 끝도 없이 우리는 용감하지도 승결하지도 않단 말이지?” 노라는 기분이 상해서 씩씩거린다. “페어리랜드에 찾아 갈 수나 있겠어? 생판 길치인 주제에.”

“프레전트 호숫가 어딘가에 있을 거야.”

“프레전트 호숫가는 아닐 걸 예전에 그것에 대해들은 적이 있거든.”

“찾아내고 말거야.” 하고 롤로가 장담한다. “안내자가 날 도와줄지도 몰라. 검객소년 사무라이 수이치를 도와줬던 늙은 눈먼 드레곤 스카우트 같은 안내자가 말이야.”

“한심한 녀석,” 노린이 말한다. “아빠한테 일러야지.”

“어째서? 내가 없으면 누나도 그 이상한 아줌마와 함께 놀 수 있고 좋잖아.”

“조용해라...” 아빠의 졸린 목소리가 아래층에서 들려온다.

“그건 그러네. 아줌마한테 남자 꼬드기는 법을 배울 수도 있고.”

“아빠한테도 그 말 해보시지,” 롤로가 경멸하는 눈빛으로 속삭인다. “다 말해 버릴 거야. 지난 4월 양주보관함 사건이랑 소나무 뒤에서 본 담배꽂초에 대해서 말이야.”

“한심한 것!” 노린이 이를 악 물고 대답한다.

“애들아, 조용하자...” 또다시 졸음 섞인 아빠 목소리가 들려온다.

“넌 모든 것을 엉망으로 만들 거야. 늘 그렇듯이 말이야! 고블린들이 널 갈기갈기 찢어놨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러고 나서 노린은 팡 소리를 내며 방문을 닫아버린다.

“조용해!!!”

만약 위험에 처한 소중한 엄마를 구출하고 (물론 엄마에 따라 소중한 정도는 다르겠지만) 불안에 떠는 가족을 안심시키고 누구나 꿈꾸는 사랑이 넘치는 가

정으로 되돌려놓기 위해 위험천만한 원정을 떠나려 할 때 여러분의 곁에서 힘이 되어주고 용기를 북돋는 배웅을 해주는 누나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동이 트리기를 기다리며 침대에서 뒤척일 때 롤로 역시 같은 생각을 한다. 하지만 무슨 상관이야! 불끄기 전에 너무 흥분해서 너티너츠바를 두 개나 먹어서 인지 잠을 이룰 수 없다. 앞으로 펼쳐질 자신의 뛰어난 영웅담을 떠올리며 마음이 불타오른다. 페어리랜드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 '암살자 악령'들의 비밀의 요새처럼 저 구름을 지나야 있을까? 원숭이 공주 제이드가 잡혀갔을 때처럼 악어 로봇들이 숨어있던 그 음침하고 끝없이 깊은 지하 동굴 아래에 있을까?

롤로는 자신의 이야기가 만화책으로 나오는 거 아닐까? 하고 생각한다. 이런 생각들로 콩닥콩닥 마음이 설레자 롤로는 마른 침을 삼킨다. 혹시 영화로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 물론 롤로는 자만심이 가득한 아이는 아니다.

그나저나, 페어리랜드는 정확히 어디에 있는 걸까? 어디에...

갑자기 롤로가 눈을 뜬다. 블라인드 틈 사이로 희미한 빛이 스며든다. 벌써 날이 밝았나?

롤로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하품을 한다. 비틀거리며 모두가 잠들어 있는 방을 지나 롤로는 아래층으로 살금살금 내려온다. 그는 적과 싸울 때 실제로 사용할 비상식량 초코바와 '검객소년 사무라이 수이치', 그리고 실제 괴물과의 싸움에서 착용할 프로하키 팀 젤리피쉬의 유니폼 셔츠를 챙겨 넣은 배낭을 들러 메고 있다. 손에는 길거리 하키스틱을 사무라이 목검인 양 비장하게 쥐고 있다.

초코바를 잔뜩 챙기고 무기라고는 플라스틱 운동기구 하나 달랑 들고 자기 착각에 빠진 한 어린 아이에게, 굳이 페어리랜드가 아닐지라도 어딘가에 납치돼 있을 가족 중 누군가를 구출할 기회는 과연 오기나 할까요?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는 건 당연할거예요. 하지만 만화 광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을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들은 그저 현실 속에서도 만화를 계속 생각하고 있기 때문 인거죠.

밖으로 나와서 롤로는 모두가 잠들어 있는 거리를 조용히 걸어간다. 그렇게 그는 고블린들에게 납치된 엄마를 구하러 길을 떠나고 있다.

우리의 영웅, 목검소년 사무라이 롤로!!

## 셋

그럼, 페어리랜드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어리지만 용감한 롤로에게는 계획이 있어요. 망상에 빠진 무모한 아이, 롤로를 두고 하는 말일지도 모르죠. 그렇다고 롤로가 바보는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버스 정류장으로 가서 프레젠티 호수로 가는 버스 시간과 노선을 찾더라도 그곳에서 헤맬 바에야 롤로는 그곳에 대해 잘 알지도 모를 누군가의 도움을 구할 작정이다.

어젯밤 롤로는 아빠가 부동산 거래에 데리고 갔을 때 봤던 아주 이상한 마술가게를 기억해냈다. 아빠는 '일이 바뻐고 놀아줄 수 없었기' 때문에 일을 멈추지 않았다. 롤로는 줄곧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다.

시내로 가는... 어딘가 였는데...

두 시간 쯤 롤로는 기운 없이 지저분한 시내의 보도를 터벅터벅 걷고 있다. 따분하게 계속되는 구불구불한 골목길을 따라 걷다 보니 드디어 보일 듯 말 듯, 그 가게임이 틀림없어 보이는 것을 발견한다. 롤로는 아마도 그것이 맞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 가게는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다. 롤로는 도로 건너편에 서서 그 가게를 훑어져라 쳐다보며 아침대용 너티너츠바의 마지막 한입을 우적우적 씹는다.

### 새로운 왕국... 그 이상의 경험

라고 가게의 반투명한 창문에 쓰여 있다. 그 앞으로는 흔들거리는 작고 화려한 일본어 현수막 하나가 매달려 있다. 이 모든 것들은 야릇한 문양이 있는 나무지붕의 길게 튀어나온 처마 밑 그늘에 가려져 있다.

이것은 마치 '검객소년 사무라이 수이치'에 나오는 암살자 악령들의 가짜 절 비밀요새 같다.

“세상에,” 롤로는 깜짝 놀라고 온몸에 전율이 흐른다. 숨을 죽인다. 쿵쿵 심장이 요동치자 롤로는 하키스틱을 단단히 쥘다. 그리고 나서 롤로는 가게 정문 쪽에 있는 현수막 뒤로 살짝 몸을 숙인다. 롤로는 조잡스럽게 새겨진 문손잡이를 잡아 돌리고 또다시 마른 침을 삼키면서 가게 안으로 들어간다.

“이럴 수가!” 또다시 외친다. (여러분은 뭐라고 했을까요? 이진 롤로의 말투예요.) “멋진데!” 롤로는 높은 창문으로 한줄기 햇살이 스며드는 커다랗고 어두컴컴한 방을 냇을 놓고 쳐다본다. 가게 안에는 들성들성 거미줄 친, 안이 깊은 선반이 컴컴한 방 저 안쪽까지 좌우로 뻗어있고 투박한 나무 탁자들과 긴 나무 의자들만 놓여있다.

어쩌면 암살자 악령들의 작전본부와 이리도 똑같은 수가 있지!

“누-구-요?” 느리지만 작고 울림 있는 음성이 들린다.

롤로는 가게 안쪽 높은 계산대 뒤에 앉아있는 한 남자를 찬찬히 훑어본다. 그는 길게 늘어뜨린 흰머리와 끝이 두 갈래로 갈라진 흰 턱수염이 있는 통통한 사람이다. 그가 입고 있는 검은색 실크의 사무라이 검복이 희미하게 반짝거린다.

“무슨 일이냐?” 그의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험클어진 새하얀 눈썹 밑에서 남자의 눈이 반짝거린다.

롤로는 하키스틱을 양손으로 잡는다. 희한하게도 입은 기억은 없지만 자신이 지금 젤리피쉬 셔츠를 입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내 이름은... 로...롤로다,” 롤로가 입을 연다. 떨리고 여린 목소리는 점차 단호하고 용감해져 하키스틱을 자랑스러운 듯 잡은 채로 한 발짝 앞으로 다가선다. “목검소년 사무라이 롤로다!” 하고 롤로는 외친다. “나에 관해서 들어본 적이 있다! 페어리랜드로 고블린이 데려기 위해 송고한 원정을 나섰다. 우리 누나와 아빠는 너무 비겁해.” 하고 롤로는 늠름하게 외친다. “그곳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나...요? 페어리랜드로 가는 길을.”

통통한 남자는 청록 빛의 눈을 껌벅 거린다. 그리고 살찐 허연 얼굴을 뒤로 천천히 젖히더니 꺾꺾 꺾 웃는다. 그러자 두 갈래의 턱수염은 뱀이 춤을 추듯 움직인다. 남자는 거무튀튀한 뽀족한 이를 씨익하고 드러내면서 몸을 앞으로 숙이며 말한다.

“성가시고 용감한 목검소년 사무라이 롤로! 페어리랜드? 넌 그곳에 절대 갈

수 없어. 그전에 우리가 널 갈기갈기 잘라놓을 거니깐.”

남자는 또다시 큰 소리로 웃더니 하얀 살찐 손으로 손뼉을 친다.

한 무리의 암살자들이 탁자 뒤에서 숨어 있다가 튀어나온다. 롤로는 숨이 막힌다. 그들은 모두 매우 작고 주름이 많으며 두 갈래의 길고 새하얀 턱수염이 있다는 것과 검은색 사무라이 검복을 입고 있는 것을 빼고는 프레전트 호수에서 봤던 고블린과 매우 흡사하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무라이 검이 반짝거린다.

젤리피쉬 유니폼 안으로 심장은 두방망이질 치고 수적으로 불리하지만 롤로는 괴물들과 맞설 만반의 준비를 한다. 그 순간 가장 가까이 있던 암살자 어쌔신이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검을 번쩍 들고 공격한다. 롤로는 놀라서 소리를 지르지만 침착하게 사무라이 목검을 있는 힘껏 휘두른다. ‘퍽!’ 내려치기를 연습할 때 소나무에서 나는 소리 같다. 괴물의 조그마한 머리가 날아가서 어느 긴 의자 다리 가까이로 데굴데굴 굴러간다. 롤로는 깜짝 놀란다. 모두 깜짝 놀란다. 지독한 냄새가 올라온다.

“우웁,” 롤로가 코를 킁킁 거린다.

그때 모두가 한꺼번에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공격한다. 롤로는 막무가내로 하키스틱을 앞쪽으로 찌르자 한 ‘어쌔신’의 가슴에 맞는다. 몸부림치는 상대를 공중으로 높이 들어 올리고 망치의 머리 부분처럼 빙빙 돌리자 어쌔신들이 사방으로 흩어진다.

“이거 끝내주는데!” 롤로가 함성을 지른다. 그리고 나서 롤로가 하키스틱을 새총처럼 잡아당겼다가 놓는 순간, 스틱에 매달려있던 어쌔신은 마치 살아있는 불링공처럼 공중으로 날아가 남아있던 괴물의 무리 속으로 추락해서 통통볼처럼 세 마리의 어쌔신을 차례로 맞추며 튕겨 나갔고 그 작은 어쌔신들은 산산조각난 탁자 뒤로, 뒤집힌 의자 아래로, 그리고 무너진 선반 위로 기절하며 쓰러진다.

롤로는 ‘전투’의 잔해 속에서 숨을 헐떡거리며 서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에 대해 환한 미소가 번진다. “으윽,” 롤로는 얼굴을 찡그린다. “지독한 냄새네.”

“음, 제법이군,” 계산대 뒤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린다. “제법이야. 그래도 넌 절대 페어리랜드에 갈수 없다. 아직 나와야 대결이 남았다!”

놀라운 속도로 남자는 계산대 위로 뛰어 오르더니 칼날이 번쩍거리는 악의

검을 개구리권법으로 치켜든다. 거무튀튀한 이를 드러내며 큰 소리로 웃는다. 잠시 후 한 쪽 팔을 위로 뻗더니 머리를 지나 반대편 귀를 잡고 천천히... 이럴 수가! 머리통을 쪽 잡아 뽑는다! 그러자 두 번째 머리가 드러난다. 그것은 원래 머리보다 조금 작았을 뿐 생김새는 똑같다.

“무섭지, 아가야. 으흐흐흐...” 그가 놀리듯 웃는다.

그는 원래 머리통을 롤로에게 던지고 계산대에서 뛰어 내려와 공격한다. 여전히 움직이는 그 수염 난 머리통은 롤로를 향해 통통 튀며 다가온다. 발 앞까지 왔을 때 롤로는 길거리 하키를 할 때처럼 하키스틱을 휘두른다. 롤로는 하키 경기때 마다 자신을 공격하는 엘빈 올슨이 봤다면 깜짝 놀랐을 정도의 세기로 힘껏 쳐서 그에게로 다시 날려 보낸다. 공중 회전돌기로 날아가던 머리통은 돌진하는 큰 괴물의 검복을 입은 가슴에 맞고 떨어진다. 괴물이 멀리 계산대로 봉하고 밀려 날아간 순간, 몸에 붙은 머리통은 굉장히 놀라서 원래 머리통을 녀을 잃고 내려다본다. 괴물은 수많은 검복 파편들로 떨어지며 깨진다.

“와...” 놀라운 광경에 롤로는 숨이 막힐 지경이다.

이곳 사무라이 장소에서 정말 굉장한 시간이었다. 원정위해 생겨났을지 모를 엄청난 힘이였다. 진정 롤로는 검객소년 사무라이 수이치에 버금갈 정도로 잘 해냈다.

(어쩌면 그보다 더 나올지도...)

“롤로니? 그래, 롤로구나.”

귀에 익은 한 목소리가 들린다. “세상에 롤로, 네가 이렇게 용감할 수가. 그동안 내가 널 오해하고 있었구나!”

“엄마예요?” 두리번거리며 롤로가 소리친다. “거기... 엄마 맞죠?” 롤로는 빗자루를 들고 뒤편에 서서 악취가 나는 엉망진창인 가게를 치우려하는 엄마를 알아본다.

“그래, 엄마야,” 엄마도 큰소리로 외친다. “어우, 냄새!”

“엄마, 페어리랜드로 납치됐었잖아요?” 혼란스러운 롤로가 외친다.

“늘 뭐가 그리도 궁금한 게 많은 거니?”엄마가 날카롭게 말하더니 곧, “그래도 난 네가 참 대견스럽단다. 목검소년 사무라이야. 그래서 말인데 두 달 동안 방청소를 면제 시켜줄께. 어떻게 생각해? 하나 더 네가 좋아하는 너티너츠를 모

두 먹어도 좋아.”

“고맙습니다, 엄마?” 롤로는 환한 웃음을 지으며 얇전하게 대답한다. 그리고 숨털처럼 가볍게 엄마를 향해 뛰어 오른다. 산산조각 난 긴 의자들과 탁자를 넘어서 완벽히 패배한 냄새나는 괴물들 위로... 기쁨에 찬 걸음을 한 발짝 한 발짝 내 디딜 때마다 사방에서는 박수소리와 환호가 점점 더 크게 울려 퍼진다. 이러한 기쁨은 누군가 굉장히 귀에 거슬리고 귀청이 터질 듯하게 ‘팡!팡!팡!’ 커다란 문을 천천히 두드리는 상황으로 바뀌자 끝이 난다.

“도대체 누구야!” 화가 난 롤로가 항의한다.

그 순간... 롤로는 눈을 뜬다.

노린이 롤로의 방문 앞에 서서 그를 내려다보며 비웃고 있다. 햇살이 가득한 오후에...

“11시가 다 됐어.” 노린이 시간을 알린다.

“엄마 구하러 안 가니? 너 굉장히 열정적이다 애. 늘 그렇지만.”

## 넷

그래요, 롤로의 용맹스러운 모든 행동은 그저 꿈일 뿐이었네요. 유감스럽지만 그런 것 같네요. 위험할 건 없지만 자기 전 늘 초코바 두 세 개 썬 먹는데 무엇을 기대하는 걸까요? 농담이 아니라, 훈련 받은 사무라이나 검객소년 사무라이가 그 시간에 너티너츠를 후다닥 먹어 치울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식의 다이어트를 하는 걸까요? 아닐걸요, 분명 아닐 거예요.

그건 그렇고.

“으...” 침대에서, 어안이 병병해진 롤로가 눈을 깜박거린다.

“르네와 함께 지금 쇼핑센터에 갈 참이야. 연습 삼아 남자를 꼬드겨 볼 거거든.” 노린이 롤로에게 통보한다.

“그리고 나서 우린 다시 수다 떨러 집으로 돌아 올 거야. 부엌 어지럽혀 놓

지마, 알겠니? 그리고 르네에게 엄마가 고블린한테 잡혀갔다는 얘기 할 생각마. 그건 아주... 롤로?”

노린은 문을 팡 닫고 나가버린다.

가다가 넘어져 버려라! 롤로는 겨우 몸을 일으켜 세운다. 허둥지둥 옷을 입고 배낭과 하키스틱을 챙겨 쿵쿵쿵쿵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아무도 없는 집을 나온다. (아빠는 출근하고 안 계신다.) 현관에서 롤로는 멈춰 선다. 롤로는 마치 검복인 것처럼 우쭐대며 젤리피쉬 유니폼 셔츠를 껴입는다. 그리고 용기 있는 원정을 실제로 시작하기 위해 현관계단 쪽으로 하품을 하며 나간다.

롤로는 하품을 하도 크게 하는 바람에 쉬노클러 아줌마가 쪽으로 곤두박질 칠뻔 한다. 아줌마는 작고 하얀 애완견 푸들 ‘눈꽃송이’를 산책시키려고 나와 있다.

“안녕, 롤레이,” 아줌마는 진한 향수 냄새를 풍기며 하이힐을 신은 채 흔들거리며 웃는다. “하키시합이 가니?”

“롤로예요!” 자신의 이름이 잘못 불리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롤로가 재빠르게 말한다. 쉬노클러 아줌마는 너무 자주 머리색을 바꾸기 때문에 롤로는 순간 혼란스러워진다. 너무 이상해. “사실은요—, 사실은요—”

하지만 눈꽃송이가 심하게 짚어대는 바람에 머리색에 대한 롤로의 의견은 아줌마에게 들리지 않게 된다. “그래, 잘가. 아빠께 안부 전해다오! 물론 엄마께도.” 쉬노클러 아줌마가 큰소리로 말한다. 아줌마는 눈꽃송이의 목줄을 팽팽하게 잡고 그 뒤를 뒤뚱뒤뚱 걸어간다.

순간 화가 치밀어 오른 롤로는 뒤돌아 쿵쿵 발을 구른다. 쉬노클러 아줌마가 저녁식사자리에 함께 있을 생각을 하니 용기 있는 결심에 대해 더욱 확신이 든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쉬노클러 아줌마에 관해서는 아빠 말이 옳다고 할지도 모르지만 그건 별개의 문제다.

시내에서 꽤 오랫동안 헤매고 나서야, 롤로는 그 마술 가게를 겨우 찾아낸다. 아마도 롤로는 그 가게가 분명하다고 장담한다. 그 가게는 꿈에서 봤던 것과 완전히 다르지만 골목길은 지루한 것 그대로다. 오싹하기까지 하다... 롤로가 기억하던 것 보다 더 오싹하다.

## 마술, 그리고 새로운 상상의 세계

라는 오래된 글씨체는 지저분하고 약간 낮이 익은 가게 앞 유리창에 쓰여 있다. 롤로는 아침용 너티너츠바 하나를 썰 새 없이 씹으면서 그 가게를 유심히 쳐다 보며 서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요.) 롤로는 하키스틱을 꼭 잡는다. 심호흡을 하고 성큼성큼 가게 정문으로 걸어가서 문손잡이를 돌린다. 롤로가 뚫어져라 가게 안을 보는 동안 머리 위에서 작은 종이 딸랑딸랑 울린다. 이번엔 진짜 가게다. 쪽 늘어선 먼지투성이의 선반들과 그 위에 음산한 모양의 아주 작은 많은 골동품들... 걸으로 바서는 확실히 암살자 악령들의 작전본부는 아니었다.

“네에.” 기분이 언짢은 듯 한 높은 톤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가게 한켠에 있는 책상 앞에서 뼈만 앙상히 남은 노인이 롤로를 여기저기 노려본다. 노인은 옛날식 금속 테 안경을 쓰고 있고, 안경사이로 보이는 짜증 섞인 눈초리는 몸에 배인 것처럼 보인다. “무슨 일로 왔어, 꼬마야?” 그는 소리 높여 말한다.

가게 안으로 들어온 뒤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하고나서 대답하려던 순간. 먼지 알레르기가 있던 롤로는 재채기와 기침을 해대기 시작한다. “제 이름은 롤로—샘—목검소년!...” 롤로는 말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페어리랜드가—어디 있는지— 가르쳐— 주세요. 우리엄마가 콜록, 콜록, 콜록!”

“뛰라고?” 노인이 말한다.

“우리엄마를—” 롤로가 기침한다. “고블린들이 엄마를 잡아갔어요!” 힘겹게 기침을 참아낸다. “그리고 페어리랜드로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내가 엄마를 구하기 위해 길을 나섰어요.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저에게 가르쳐주세요, 페어리랜드요.”

노인의 얼굴에는 짜증스런 기색이 돈다. 다른 손님이 들어온 것을 알리는 종이 딸랑딸랑 울린다. 그는 가게 안으로 들어와 잠시 멈춰 서더니 선반사이를 돌아다닌다. “꼬마야, 넌 이상한 책을 참 많이도 읽은 모양이다.” 가게 주인이 어이없다는 듯 말한다. “페어리랜드라는 건 없다, 애야. 그게 어디 있는지 말해주는 사람이 있었니? 그건 다 허상이야, 그냥 장난이야, 장난!”

그런 말은 목숨 건 첫 원정을 나선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지 않아요,” 롤로가 큰소리로 대꾸한다. “프레전트 호숫가에서 고블린들이—”

“애야! 이곳은 선물의 집이야, 알겠니? 재밌는 틀니세트를 사는 게 어떻겠니? 추울 때 입이 떨릴 때처럼 저절로 덜덜 떠는 거야. 아니면 멋있는 켈트식 향초는 어떠니? 엄마가 돌아왔을 때 주면 좋아하실 거야. 책도 있단다. 옛날 동화책이 거기 어디 있을 거다.”

“어디에 있어요?” 하고 말하며 롤로는 뒤돌아본다.

“하키 스틱 조심해라!” 하고 가게 주인이 소리친다.

“물건을 깨는 날엔, 그걸 물어내야 —” 말이 끝나기도 전에 롤로 옆에 있던 무엇인가 바닥으로 떨어진다. 뼈만 앙상한 그 가게 주인은 별떡 일어난다. 롤로가 깨진 것을 보기 위해 이번엔 반대로 휙 돌아보자 또 다른 물건이 떨어진다. “세상에 내 도자기 좃대!” 화가 난 가게 주인은 고래고래 소리 지른다. “그게 얼마짜리 줄 알기나 해!”

\*\*\*

옷장 안 세탁물 맨 아래, 아무도 모르게 모아두었던 돈으로 어마어마한 값을 울며 겨자 먹기로 지불하고 나서야 롤로는 그 말에 대한 대답을 얻는다. 그리고 나서 롤로는 가게 밖으로 쫓겨나고 가게 정문은 광 하고 닫혀버린다.

저기 거리 위에 자칭 영웅이 프로 하키 팀 유니폼을 입고서 침울한 얼굴로 눈을 깜빡거리며 서있다.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 목숨을 바친 중요한 임무가 한순간에 무시를 당했다. 검객소년 사무라이 수이치는 이와 같은 취급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절대로! 물론 검객소년 사무라이 수이치는 깨지기 쉬운 물건들이 잔뜩 있는 가게로 들어간 적도 없었다.

자, 그럼 이제 롤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페어리랜드를 찾을 수 있을까요? 고블린과 우연히 마주칠 것을 기대하고 프레전트 호수 주변을 서성거리야 할까요? 과연 그의 멋진 망상은 어떻게 될까요?

일종의 흐느끼는 소리가 난다.

“꼬마야,”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린다.

롤로는 돌아서서 목소리가 들리는 쪽을 바라본다. 마술가게 입구 쪽 컴컴한 곳에서 허름한 짙은 색 코트를 입은 아저씨가 보도를 따라 천천히 걸어오고 있다. “네가 저 가게 안에서 고블린에 대해 얘기하는 것을 들었단다.” 그 아저씨는 목소리를 낮춰 말한다. “패어린랜드로 가고 싶은 거지, 그렇지? 내가 널 도와줄 수 있을 거 같은데...”

“정말이에요?” 롤로가 말한다. 하지만 롤로의 온몸이 오싹해진다. 그 아저씨는 진짜 안대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긴 콧수염이 훌쩍한 턱을 아래로 길게 늘어져 있다.

“먼저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 할게.” 그 아저씨는 여전히 작은 목소리로 말한다. “돈 더 가지고 있니?”

“음... 그럴걸요...” 하고 롤로가 대답한다. 롤로는 그런 질문에 경계해야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렇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마.” 아저씨의 입가에 미소가 번진다. “그럼, 뭐 좀 먹으러 갈까? 가자, 시간이 없다.” 아저씨는 서두른다. 불안한 듯 마술가게를 어깨너머로 보더니 롤로를 길모퉁이로 서둘러 데려간다.

## 다섯

“원정이라고?” 안대를 한 낫선 이 사람은 입 안 가득 음식을 넣고 괜찮은 다른 한쪽 눈으로 롤로를 위 아래로 훑어보면서 묻는다. “음, 넌 무모 하구나 롤리. 그리고 굉장히 용감한 아이기도 하고. 너에게 그것을 주마.” 그는 짹짹 소리 내며 삼키고 나서 시럽을 듬뿍 바른 큼지막한 다른 와플 하나를 입으로 밀어 넣는다.

“롤로예요.” 롤로는 아저씨의 칭찬에 얼굴을 붉히며 상냥하게 자신의 이름을 고쳐 말한다. 원정에 대해 비웃음 대신 지지를 받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두 사람은 어둡고 거미줄 쳐진 작은 식당 안쪽, 칸막이로 된 작은 공간 안에 앉아 있다. ‘마빈 트위터’ 그는 자신을 ‘마브’라 불러달라고 했다. 외모와는 정말

어울리지 않는 이름을 가진 그 낯선 사람은 벌써 와플 몇 접시를 해치웠다. 그리고 지금 자기 앞에 두 접시가 더 있다. 롤로는 비쩍 말랐는데 식탐이 이리도 좋은 사람을 한 번도 본적이 없다. 비록 마브 아저씨가 이름과 잘 어울리지 않고 사무라이에 대해 아는 것이 많지 않았지만 롤로는 마브 트위터 아저씨에게 깊은 인상을 받았다. 아저씨는 초코바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듯했기 때문이다. 초코바에 관한 대화는 식당에 들어와 앉는 순간 시작되었다.

“너티너츠바를 한 번에 세 개를 먹는다고?” 마브 아저씨가 비웃는다. “난 한때 추이구이 초코바를 연달아 일곱 개 먹었던단다, 애야. 일곱 개 말이다. 거기에다 너티너츠 두 개를 더 먹었었지.”

두 사람이 나누었던 대화는 초코바에 관한 것만은 아니었으며 서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충실했다. 롤로는 프레전트 호수에서 있었던 납치 사건에 관해 마브 아저씨에게 모두 말했다. 그리고 비겁하고 겁 많은 아빠와 노린 누나에 관해서, 특히 누나가 얼마나 비도덕적이고 무례한지에 관해서 설명했다.

“누나는 내가 엄마를 따라가면, ‘내가 늘 그렇듯이!’ 일을 망쳐놓을 거라고 했어요.” 롤로는 주장한다. “아저씨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노린 누나랑 르네 더 프만이라는 누나 친구가 한때 저에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몰래 가져갔어요 — ”

“그래, 누나들은” 마브 아저씨가 중얼거리며 갑자기 끼어든다. 아저씨는 시럽이 잔뜩 묻어있는 냅킨으로 콧수염과 턱을 문지른다. “나도 누나에 대해서 좀 알지.” 라고 말하면서 시럽이 든 작은 병을 잡으려고 손을 뻗는다. 병은 비어있다. “웨이터, 여기 시럽 더 주세요!”

마브 아저씨는 식당에 있는 내내 불안한 듯 힐끗힐끗 창밖의 눈치를 본다.

“당신이 먹어 치운 시럽만 벌써 다섯 개요.” 웨이터가 투덜거리며 다가온다.

“그래서요? 이 아이가 계산할거요, 그래 이 아이가 계산할 거라고.” 마브 아저씨가 허름한 검은색 코트 깃을 세우며 거세게 쏘아 붙인다. 아저씨는 새롭가져다 준 시럽 대부분을 지지분해진 접시 위에다 쏟아 붓고 다시 탐욕스럽게 먹는다.

‘계산’이라는 말에 롤로는 다시 용건으로 돌아간다.

“그럼, 어떻게,” 롤로는 계속해서 나지막이 묻는다. “페어리 랜드까지 어떻게 가요?”

“우리는 그곳에 갈 거야. 그래, 그곳에 갈 거야.” 시럽이 여기저기 묻은 볼은 다시 부풀어 올랐고 마브 아저씨는 중얼거린다.

“우선은 먹자, 그리고 나서 가자. 알겠니?”

“그런데 아저씨는 고블린에 관해서 어떻게 알죠?” 롤로가 단호하면서도 한편으로 마브 아저씨의 먹는 양에 약간 어안이 병병해진 채로 집요하게 묻는다.

“그건 말이다, 랠리.” 아저씨가 대답한다. 목소리를 낮추자 그의 기다란 콧수염의 끝이 입을 움직일 때마다 팔딱거렸기 때문에 그의 말은 점점 더 이해하기 힘들어진다. “나는 말이야... 그러니깐... 음... 모험가라고 할 수 있지.” 그는 시럽을 힘껏 쥐어짜면서 입안의 것을 삼킨다. “알면 다치는데,” 아저씨는 숨이 찬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는 무한한 가치가 있는 물건들을 가지고 있단다. 그들의 위대한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이것이야 말로 원정을 나서 롤로 같은 아이가 그토록 듣고 싶었던 말이다.

“대단해요!”

“하지만 돈이 많이 들 거야. 그래, 돈이 많이 들지.” 마브 아저씨가 의미심장한 웃음을 지으며 경고한다. 와플 부스러기들을 입안으로 마저 쏟아 붓고 초조하게 창밖을 또다시 훑듯 돌아본다. 테이블 쪽으로 몸을 되돌리는 순간 롤로의 하키 스틱을 보며 뭔가 생각이 난 듯 입 안 가득 새로운 와플 하나를 또 먹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사무라이... 거 뭐더라? 너 저거... 잘 하겠구나, 그치?”

그걸 말이라고 하는가! 롤로는 자랑스럽게 마브 아저씨에게 검객소년 스타일의 검도 연습에 관해 모두 알려준다. “또 저에게는 굉장히 신나는 꿈이 있어요.” 하고 롤로는 진지하게 또박또박 얘기한다. 왜냐하면 그 누가 절호의 기회에 꿈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싫어하겠는가?

마브 아저씨는 와삭와삭 와플을 씹어 먹고 조용히 트림도 하면서 롤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 아저씨 얼굴에는 지루한 기색이 없다. “일종의 몽상이군.” 롤로가 이야기를 마치자 아저씨가 중얼거린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들

더니 한쪽 눈으로 롤로를 가만히 쳐다본다... 몹시 기분 나쁘게...

“왜...그러세요?” 롤로가 묻는다.

마브 아저씨는 롤로에게 가까이 다가오라는 손짓을 하며 웃기만 한다. 영문을 모른 채 롤로는 아저씨가 시키는 대로 한다. 반짝이는 아저씨의 한쪽 눈과 몇 방울의 시럽이 묻은 안대한 눈을 롤로도 가만히 쳐다본다.

“누가 그래,” 사악하고 야릇한 미소를 지으며 아저씨가 속삭인다. 꿈이 ... 아니라고, 누가 그래!”

“누!가! 그!래!?” 아저씨는 고함을 지른다. 음식이 가득 찬입으로 외쳐대고 허름한 검은색 코트를 입고서 마치 지옥에서 온 대머리 독수리처럼 팔을 펼럭거리린다.

롤로는 놀라서 소리치며 한 걸음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앉는다. 부르르 떨며 하키 스틱을 꼭 쥐는다.

“거기 왕 재수, 왜 아이한테 겁주고 그래!” 웨이터가 갑자기 나타나더니 마브 아저씨에게 따져 묻는다. 웨이터는 몸을 숙여 마브 아저씨의 코트 깃을 움켜잡는다.

“농담이야, 그래 농담이었어.” 마브 아저씨가 껍뻑 소리친다. “난 그저 저애를 시험해 본 거라구.”

“그래? 그럼 나도 당신을 시험해 보지.” 웨이터는 마브 아저씨를 의자에서 일으키더니 발을 걸어 넘어뜨린다.

“그렇지, 랠리?... 농담이었지?” 마브 아저씨가 울다시피 하며 롤로를 재촉한다.

“네, 농담이었어요.” 겁에 질린 롤로가 급히 대답한다. 웨이터에게 붙들려 떨면서도 마브 아저씨는 슬며시 미소를 짓는다.

“정말이냐?” 웨이터가 묻는다. 그리고 마브 아저씨를 놓아주며 의자에 쿵하고 내던진다. “그럼 두 사람, 계산하고 당장 나가. 너랑 저 한심한 사람은 여기 너무 오래 있었어. 그리고 꼬마야, 네 하키 스틱도 저리 치워라. 손님이 걸려 넘어지겠어.”

“그래 너는 가서 계산하는 게 낫겠다.” 마브 아저씨는 놀란 가슴을 추스르며 대답한다. 하지만 어딘가 이상해 보인다.

롤로는 계산대로 나간다. 그 전에 벌써 몇 차례 마브 아저씨가 먹은 음식을 계산했는데도 음식 값은 엄청 나왔다. 롤로는 화장실에 들어서 젤리피쉬 유니폼에 묻은 시럽 방울과 아저씨 입에서 튕 음식물 얼룩을 제거한다.

롤로는 화가 나서 자리로 돌아온다. 하지만 마브 아저씨는 뭔가 두려워하는 것 같아 보인다. 얼굴은 식은땀이 방울방울 맺혀있고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한 채로 자리에 털썩 주저앉는다.

“너무 많이 먹었어...” 숨을 헐떡이며 말한다.

“그럼요, 와플 다섯 접시를 전부 드셨어요.” 롤로는 쩡그리며 대답한다. “게다가 제가 계산한 돈은—”

“애야, 나 죽을 거 같아.” 마브 아저씨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한다. “힘들 것 같구나.”

“무슨 뜻 이예요?” 롤로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묻는다.

“너에게 이것을 주마. 페어리랜드로 가는데... 도움이 될 거야. 50,000달러... 짜리야. 싫어? 그럼... 12.78 달러에 주마.”

“좋아요.” 롤로는 머릿속으로 재빨리 계산을 마치고 거래에 동의를 한다. “이게 뭐죠? 그리고... 거스름 돈 주실 거죠?”

“당연하지.” 마브 아저씨는 괜찮은 한쪽 눈을 감으며 힘겹게 숨을 쉰다. 롤로에게 손을 뻗어 코트 안을 살펴보라고 말한다. 롤로는 마분지로 된 작은 상자 하나를 발견한다. 가벼웠다.

“병원에 데려다 드릴까요?” 롤로는 아저씨가 시키는 대로 그 상자를 자신의 배낭 안에 넣으면서 그를 쳐다보며 묻는다.

마브 아저씨는 매우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얼굴에는 옅은 미소가 띄었다. “그러기에는 너무 늦었다. 위가 터져버렸어.”

“우웬 징그러워.” 롤로가 혼잣말로 중얼거린다. “굉장 할거야. 근데— 너무 역겹지?” 아저씨는 입가에 차마 볼 수 없는 음식찌꺼기와 침이 고인체로 말한다.

“더 늦기 전에 나가는 게 좋겠다, 랠리. 창밖을 살펴봐 주렴, 누군가 오면... 내게 말 해줘.”

롤로는 침을 꿀꺽 삼키고 슬며시 창밖을 바라본다. 마술가게 주인의 뒷통수가 바로 보였고 그는 보도에 서서 이리저리 무엇인가를 찾는 것 같았다. 그 순간

몸을 휩 돌리더니 정확히 롤로를 향해 멈춘다.

“너 이 녀석!” 그는 부르르 떨리는 앙상한 손가락으로 롤로를 가리키며 소리를 지른다. “도둑놈들아!” 그는 식당 입구를 향해 쏜살 같이 달려온다.

“그 가게 주인이다!” 롤로가 소리친다.

“도망쳐. 애야 도망치라고.” 곧 쓰러질 듯 한 마브 아저씨가 중얼거리듯 말한다.

그 순간 하키 스틱이 의자 다리에 걸린다. 롤로가 하키 스틱을 비틀어 뺏을 무렵 그 주인은 테이블들 사이를 지나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다. “이 좀 도둑놈들 같으니! 내 물건 내놔!”

매우 격렬하고 시럽이 이리저리 튀는 싸움이 터진다. 롤로는 사무라이가 하듯이 하키 스틱으로 내려치기를 시도해 보지만 그 비쩍 마른 할아버지는 생각했던 것보다 더 무시무시하다. 그는 롤로의 사무라이 목검을 뺏더니 검 부분으로 롤로의 머리 위를 친다.

“아야 아파!” 롤로는 소리친다.

“저놈 잡아, 랠리!” 마브 아저씨가 힘없이 말한다.

“얼간이 같으니 그 애를 학대하지 마!” 웨이터가 갑자기 달려들더니 큰소리로 말한다. 웨이터는 그 나이든 마술가게 주인의 머리를 헤드록으로 세게 잡는다.

“도망가 랠리. 도망가.” 마브아저씨가 덜덜 떨며 목 메인 소리로 말한다.

롤로는 격렬하게 싸우는 두 사람 사이를 비집고 나왔을 때 바닥에 떨어진 마술가게 주인의 안경을 보고 그것을 밟아 버려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다소 비겁한 보복행위지만 무슨 상관이람? 롤로는 서둘러 식당 출구 쪽으로 간다. 가게를 나와 코너를 돌 때까지 큰 도로 쪽으로 쪽 달린다. 손에는 하키 스틱을 들고 어깨에는 자신을 페어리랜드로 데려다 줄 소중한 물건이 담긴 배낭을 메고...

블록을 지나고 또 지나고 누군가 자신을 쫓아오는지 확인하기 위해 간간히 뒤돌아보면서 롤로는 쉬지 않고 달린다. 사람들이 몸을 돌려 롤로가 헉헉대며 달려가는 것을 지켜본다. 어떤 사람들은 젤리피쉬 팀에 대해 큰 소리로 놀려대지만 그 대부분은 이미 롤로가 들었던 말들이다.

마침내 작은 마을공원이 보인다. 롤로가 지친 듯 터벅터벅 공원 안으로 걸

어 들어가자 뚱뚱한 할머니가 주는 먹이를 먹고 있던 비둘기들이 한꺼번에 흩어져 하늘로 날아오른다. 롤로는 겨우겨우 덩불이 뒤덮인 곳까지 간다. 그곳에서 가쁜 숨을 내쉬며 무릎을 꿇으면서 잔디위에 털썩 주저앉는다. 그 비둘기 할머니가 인상을 찌푸리며 롤로의 앞을 가로막고 내려다본다. 롤로는 조심스레 주변을 살핀다. 그리고 귀중한 마분지 상자를 배낭에서 꺼낸다. 달려오는 동안 하키 스틱이 절걱절걱 부딪히던 머리의 한 부분이 따끔거려 손으로 문지른다. 떨리는 손으로 아주 조심스럽게 상자 뚜껑을 연다.

천천히 상자 안을 들여다본다.

상자 안에는 가짜이빨세트가 있다. 플라스틱 틀니.

“안녕? 어디보자... 네가 롤리지?” 플라스틱 틀니가 말을 한다. “원정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는 게로 구나.”

## 여섯

그럼 육체로부터 이탈한 크고 하얀 틀니 한 덩이가 선흥색 잇몸을 드러내고 활짝 웃으면서 여러분에게 말을 건넨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전부라면요?

“깡-장-한데! 내 생각에는...” 하고 말하며 마른침을 삼킨다. 이것이 롤로의 반응이다.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웃음이 얼굴에 퍼진다. 매우 당혹하고 애매한 유형의 웃음이다. 또한 입을 다물지 못한다.

“약간의 공기를 마시면 어떨까?” 가짜이빨이 말한다. “내가 밖으로 나갈 수 있게 도와주겠니 롤리?”

“롤로예요.” 롤로는 그를 도와주기 위해 머뭇머뭇 상자 안으로 손을 뻗으면서 중얼거린다.

“으흐 간지러워!” 이빨이 소리친다.

롤로는 흔들흔들 그것을 상자 밖으로 꺼낸 후 나무 그루터기에 올려놓는다. 그리고 나서 무의식적으로 물리지 않을 거리까지 손을 뒤로 재빨리 빼다.

“아 좀 낮네! 그곳은 숨 막혀. 그리고 그 가게선반은 어유 먼지 투성이었지.”

롤로는 가만히 쳐다본다. 이 이빨은 예언자임에 틀림없고 그렇다면 이건 이루 말할 수 없이 신나는 일이다. 하지만 이것은 앞서 말한 검객소년에게 악어로 붓에 관한 중요한 정보처였던 폭포수 뒤에 있는 말하는 바위 예언자와는 너무 다르다. 이 이빨은 굉장히... 독특해 보인다.

“당신은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죠?”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은 말투로 롤로가 묻는다.

“그을-썰-요.” 몹시 겸손한 척하는 웃음을 살짝 지으며 그 우스꽝스러운 틀니가 별거 아니라는 듯 대답한다.

“나는 원래부터 말을 했어.”

“그럼 그 가게에 있는 다른 물건들도 말을 할 수 있어요?”

“그걸 말이라고 해? 당연히 못하지.” 가짜이빨이 딱딱 소리 내며 말한다. 그루터기에 앉아서 그는 굉장히 기분이 상했다. “그래 어쨌든. 뭘 때문에 그렇지 롤리?”

“롤로라구요!” 분명히 예언자라면 이름은 바르게 불러야 하는 거 아닌가?

“롤리.”

“롤로요.”

“래로!”

“롤로!”

“이름이 왜 그래? 발음하기 그렇게 어려우면!” 가짜이빨이 소리친다. “어쨌든 뭘 원한다고 했지 꼬마야?”

“페어리랜드로 가는 길을 알고 싶어요!” 롤로도 소리치며 대답한다. “저는 엄마를 구하기 위해 용기 내어 원정을 나섰어요. 그런데 그것은 어디에 있나요? 페어리랜드 말이에요.” (영웅은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감명 깊게 설명을 한다는 것을 롤로는 알고 있어요.)

“페어리랜드라...” 가짜이빨이 대답한다. “거참 어려운 문제군.”

“하지만, 마브 아저씨가 당신은 알고 있을 거라고 했어요.” 롤로는 매우 실망하는 기색으로 대꾸한다.

“그 사람이 알겠지. 그 사람이 그랬다면? 글썄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구나. 거참 어디보자.”

“그럼 고블린에 대해서는요?” 롤로가 소리친다.

“고블린? 키 크고 털 많은 남자 말이냐?”

“아뇨! 키 작고 냄새나는 생명체예요.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도대체 페어리랜드는 어디에 있는 거야?”

“애애 너 말투가 왜 그러니?” 하고 말하더니 가짜이빨은 입을 다물어버린다. 그리고는 험박조로, “내가 단지 작다고 우스운 모양인데!! 듣고 있어?”

“죄... 죄송해요.” 롤로는 무서워서 마른 침을 삼킨다. “저는 그저 그러니깐 용감하게 엄마를 구하고 싶었고 그래서 그곳으로 가는 길을 알고 싶었어요.”

“그래? 좋아, 예의는 지켜야지, 버릇없는 녀석.” 가짜이빨이 경고한다. “그럼 지금부터 네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 주마. 그 전에... 그 전에... 아니, 나에게 네 체력을 보여 줘라. 정확히 말해서 원정을 마칠 정도의 체력을.”

“사무라이 검도 기술을 해보라고요? 그것도 여기서요?” 롤로가 어리둥절해 하며 대답한다.

“사무— 뭐?? 그거 말고 팔굽혀펴기 스무 번 해봐. 그래 그게 좋겠다.” 가짜이빨이 이어 말한다.

롤로가 경멸하는 운동 중에서 팔굽혀펴기는 거의 1, 2위에 속한다.

“에이 말도 안돼요!” 롤로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항의한다.

하지만, 소용이 없다. 용감하게 원정을 나선 롤로가 우스꽝스러운 틀니를 위해서 양손과 무릎을 덩불과 쓰레기가 너부러진 공원 바닥에 대고 팔굽혀펴기를 해야 한다.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과 치밀어 오르는 모욕감을 감수해야 하는 것은 그야말로 충격이다. 검객소년 사무라이 수이치는 이 같은 수모를 조금도 겪지 않았고 분명한 건 예언자를 위해서 감수해야 할 모욕감은 절대 없었다.

“열넷...” 팔굽혀펴기 개수를 세며 가짜이빨 말한다. “열다섯. 속임수 쓰지 마...”

젤리피쉬 셔츠에는 흠이 묻었지만 롤로는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리고 운 없게도,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롤로가 헉하고 숨을 내쉬며 말한다.

“저런, 그럼 나도 너를 도와줄 수가 없는데.” 가짜이빨이 어쩔 수 없다는 듯 분명하게 말한다.

이쯤 되면 롤로는 화가 치밀어서 하키 스틱을 잡고 예언자를 산산조각 내 버리겠다고 위협할 것이다. “어서 말해요! 페어리랜드가 어디 있는지!” 롤로가 무섭게 으르렁 맨다.

“알았어, 알았다고.” 가짜이빨이 딱딱 소리 낸다. “충분해. 그런 무서운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충분해! 사실은 말이야. 나는 솔직히 말해서... 페어리랜드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 하지만 하브는 알고 있다고 생각해.”

“하브요?” 롤로가 매우 당황해 하면서 묻는다. “하브가 누구예요? 혹시 마브아저씨 말인가요? 하지만 마브 아저씨는 곧 죽을 것 같다고 했어요. 내장이 터졌다고요. 와플을 너무 많이 먹었거든요.” 그 말은 좀 터무니없이 들리지만 한편으로 소름끼치기도 하다. 최근에 롤로의 세상에 나타난 다른 모든 것들처럼.

“아니, 하브야. 하브.” 가짜이빨이 재차 말한다. “몰라 그가 누군지는. 난 그저 작은 작동 시스템일 뿐이야. 애야 원하는게 뭐지? 백과사전이지.”

롤로는 혼란스러움에 힘이 빠진다.

“휴우,” 가짜이빨이 안도의 한숨을 쉰다. “자 다 끝났네. 껌이나 캔디 가진 거 있니? 무지 배가 고프다. 소 한 마리를 줘도 다 먹을 수 있을 거 같아.”

하지만 롤로는 듣지 않고 있다. 갑자기 어떻게 해야 할 지 막막했다. 혼돈감? 좌절감? 절망감? 어떤 심정일까요? 사실상 롤로의 심정을 말해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덩불에서 한 벌의 가짜이빨로부터 흑사당하고 혼란스러워지고 나서 그저 계속 용기를 가지려고 그리고 비겁하지 않으려고 애쓸 뿐 자신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그래서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한다. 마치 악몽과도 같다!

그렇다, 틀림없는 악몽 같다.

“잠깐만요.” ‘늦더라도 하지 않는 것 보다 낫다’는 생각 들자, 롤로는 식식거리며 말한다.

혹시 롤로가 또 꿈을 꾸고 있는 걸까?

그런데, 무슨 말을 해야 하지?

“으윽! 으윽!” 롤로는 꿈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있는 힘껏 자신을 꼬집어 본다.

“이런, 내가 듣기엔 꼬집는 소리 같은데!” 가짜 이빨이 말한다. “내가 꼬집기 달인인데 내가 해줄까?” 라는 말이 끝나기 무섭게 가짜 이빨은 그루터기에서 뛰어오르더니 롤로의 코를 세게 물었다.

“아야! 아야!” 롤로가 아파서 소리친다.

“으—윽! 으—윽!” 잔인한 틀니가 이를 악 물며 소리 낸다.

이빨을 떼어내려고 그것을 돌려 잡아당기는 동안, 비명을 지르며 롤로가 사무라이 곤봉을 떨어뜨렸고 주변을 폴짝폴짝 뛰어다닌다. 하지만 이빨은 너무 꼭 물고 있다. 결국 한마디 비명을 지르며 롤로는 이빨을 잡아 뜯어내지만, 이빨은 마치 화난 바닷게처럼 롤로의 엄지손가락을 문다. 미친 듯이 롤로는 그것을 흔들어 떨어뜨리려고 안간 애를 쓰다가 그루터기에 여러 번 세게 내리친다. 퍽! 하는 소리가 나자, 가짜이빨은 두 동강이가 나서 땅에 떨어진다.

매우 화가 나서 롤로는 욕을 해대며 하얗고 선홍빛 과거의 예언자 위를 두 발로 밟아 뺀다.

“야비한 어린 짐승 같으니!”

뚱뚱한 비둘기 할머니였다.

“그 틀니는 어떤 가엾은 노인의 영혼 것임에 틀림없구먼. 이 야비한 녀석!” 할머니는 장바구니를 흔들며 갑자기 덩불 안으로 들어온다. 롤로는 할머니를 피하려고 했지만 할머니의 가방은 롤로의 쓰라린 코에 세게 부딪힌다. “아야!” 그는 또다시 비명을 지른다. 뒤로 휘정거리더니 발뒤꿈치가 그루터기 뿌리에 걸려 롤로는 땅에 넘어져 대자로 뺨는다. 할머니는 마치 노인수영센터에서 하듯 무릎을 안고 뛰어내리는 다이빙 자세로 롤로 위에 온몸으로 털썩 주저앉는다.

“경찰! 경찰!” 롤로가 할머니 밑에서 깔려 꼼짝 못해 꿈틀대고 몸부림치는 동안 할머니가 소리쳐 경찰을 부른다.

“비켜요! 비키라고요!” 롤로가 숨이 차서 말한다.

경찰의 호루라기가 날카롭게 울린다. 발자국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려온다. 비둘기들이 날아올라 가버린다.

“저 놈이오! 소매치기!” 비쩍 마른 마술가게 주인이 부러진 안경테를 대충

테이프로 고쳐놓은 채, 숨을 헐떡이며 급히 달려온다. 체구가 큰 두 명의 경찰이 숨을 헐떡거리며 롤로 옆에 나타난다.

“아니에요, —하지 마세요.” 거의 숨을 쉬지 못하며 롤로는 식식거리며 말한다. “이해 못하시겠지만— 저는 원— 중이에—”

그리고 눈을 번쩍 뜨고 할머니를 세게 민다.

사실 롤로가 민 것은 할머니가 아니었다. 그의 베개였다.

롤로는 놀라서 베개를 바라본다. 침대에 있다. 자기 방에 있는.

노린이 방문에 서서 비웃는다. “소리는 왜 지르는 거야?” 노린은 야유를 보낸다. “르네랑 쉬노클러 아줌마(롤라)가 아래층에 있어. 그들이 별난 동생이 있다고 생각하면 좋겠니? 왜 너는 늘 일을 엉망으로 만드니?”

“으음,” 롤로가 눈을 깜박인다. 하지만 역시 꿈이다.

“그리고, 혹시 또 엄마 구하러 갔던 거야? 가엾은 것!”

그러고는 노린은 팡 소리를 내며 문을 닫는다.

또 꿈이었다니.

## 일곱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그저 또 다른 꿈이었네요? 그런데도 이번엔 롤로는 어떻게든 집을 나서려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오, 안 돼!” 우리의 자칭 영웅, 롤로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오전 11시를 가리키고 있는 알람시계를 향해 우거지상을 하며 괴로워한다. “이건 최악이야.” 하며 롤로는 이어서 또렷이 말한다.

롤로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침대 밖으로 나와서 불만 있는 얼굴로 젤리피쉬 셔츠를 훑 낚아채더니 이를 악 물며 셔츠를 입는다. 그리고 롤로는 배낭과 사무라이 하키 스틱을 잡는다. 방문까지 성큼성큼 걸어가지만 계단을 내려가지 않는다. 안 돼! 롤로는 멈춰 선다. 왁자지껄한 웃음소리와 손뼉 치는 소리가 갑자기

아래층에서 들려왔기 때문이다. 롤로는 계단 난간으로 살금살금 다가가서 힐끔 내려다본다. 거실 바로 그곳에서 노린과 르네, 물론 쉬노클러 아줌마도 (롤라) 함께 롤로 엄마 옷 특집 패션쇼를 하는 중이었다. 게다가 엄마의 보석과 그것들은 거실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었고 그 외 모든 종류의 화장품도 그랬다.

그 모습을 보고 롤로는 매우 화가 나서 피가 끓었다.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저기를 지나서 현관으로 갔다가는 그들의 웃음거리 될 것이기 때문에 결코 그럴 수 없다.

롤로는 뒷문으로 몰래 빠져 나갈 것이다.

롤로는 돌아서서, 검객소년 사무라이 수이치가 고스트 데몬 어쌔신과 철의 전사들이 숨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들에게 몰래 접근했을 때처럼 몸을 굽힌 채, 복도를 따라 재빠르게 간다. 롤로는 뒤쪽 계단에 도착해서 내려가기 시작한다. 하지만 걱정스럽게도 롤로는 세탁실 옆 구석에 있는 롤라 쉬노클러 아줌마의 작고 하얀 애완견 푸들 눈꽃송이가 눈에 들어온다.

“눈꽃송이— 췌!” 롤로는 강아지가 짓지 않고 지나가도록 조용히 속삭인다.

눈꽃송이는 빨간색 옷을 입고(수컷이지만 빨간색을 입고 있다) 롤로를 올려다본다. 그는 둥근 모양 털이 달린 꼬리를 사랑살랑 흔들더니 소변을 보려고 다리 한쪽을 든다.

“눈꽃송이— 안 돼!” 화가 나서 롤로는 발을 몇 차례 쿵쿵 구른다. “못된 강아지!” 롤로가 야단치며 “그럼 못써!” 하고 하키 스틱으로 눈꽃송이를 겁준다. 이것은 분명 영웅적이지 못하고 올바르지 않은 동물에 대한 대우이지만, 이 노란색 푸들이 뒷문 바로 옆에 있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그럴 수밖에 없었다.

눈꽃송이는 꺽꺽 거리더니 롤로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계단위로 경충경충 올라간다. 그리고 나서 눈꽃송이는 눈치 없이 롤로에게 몇 차례 더 꺽꺽 거린다.

“못된 눈꽃송이!” 롤로가 무서운 목소리로 말한다. “못써!” 이어 눈꽃송이도 롤로에게 으르렁 댄다. 그리고는 꼬리를 흔들며 활짝 웃는다. 작고 뾰족한 얼굴이 변해서 좀 더 코끝이 뾰족해진다. 그리고 그것은 쭈글쭈글해진다. 그리고 고블린처럼 변해간다.

“나를 눈꽃송이라고 부르지 마.” 눈꽃송이가 분명히 말한다. “나는 하브다.”

그 말에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롤로는 문 쪽으로 휘청거린다. 놀라는 건 당연한 일. 롤로의 하키 스틱이 벽에 팡하고 부딪힌다. 최근에 여러 번 그랬던 것처럼 롤로는 너무 놀라 입이 떡 벌어진다. “하—하브라고?” 너무 복잡하게 뒤얽힌 현실에 혼란스러움을 느낀 롤로가 마침내 말을 한다. “그러니깐 당신 말은 그 예언자가 말한 페—페어리랜드로 가—가는 길을 알고 있다는 사—사람, 그 하브라는 거죠?”

“나는 하브다!” 아무 생각 없이, 강아지는 또 짖는다. “나는 하브다!” 그리고 강아지는 털에 가려진 작은 앞 다리들을 들어 올리고, 마치 장기자랑에서처럼 하듯 계단 위에서 이리저리 움직이며 춤을 춘다. “나는 하브다. 나는 하브다. 나는 하브다!” 노래를 부른다.

윗 층에서 발을 구르며 재촉하는 소리가 들린다. 롤로가 그쪽을 올려다보니—또 입이 떡 벌어진다. 빨간 옷을 입은 또 다른 하얀 작은 강아지가 제일 윗 계단에서 활짝 웃으며 롤로를 내려다본다. 그것은 눈꽃송이와 똑같은 모습이다. 그 강아지가 즐겁게 짖는다.

“나는 하브다.” 그 강아지가 정확히 말한다.

짹짹 뛰며 내려온다.

강아지가 계단을 따라 내려오자, 갑자기 눈꽃송이와 똑같이 생긴 한 무리의 강아지들이 한꺼번에 밀려 내려온다.

“나는 하브다, 나는 하브다, 나는 하브다!” 강아지들 모두가 노래를 부른다.

“그만—!” 롤로는 휘청거리며 뒷걸음질로 문에 기대어 서서 더듬더듬 말한다. “그만!” 눈사태 같은 눈꽃송이 무리가 맨 아래 층계에 도착해서, 공중으로 뛰어올라 롤로의 머리 바로 앞에 다가오자 소리친다. 롤로는 하키 스틱으로 빨간 옷과 뽀족하고 작은 하얀 주둥이들을 세게 내리치고 이어서 계속 두드리지만 너무 많은—너무나 많은 강아지들이 달려들어 물고, 핥고, 자국을 남긴다.

“그—만—!” 롤로가 껍하고 소리친다—.

그리고 눈을 번쩍 뜨고 머리위에 있던 강아지 떼들을 계속해서 때린다. 강아지들이 벽에 쿵쿵 부딪힌다. 하지만 벽에 부딪힌 것은 롤로의 배낭이었다.

“하—” 겁에 질린 롤로는 침을 꿀꺽 삼킨다.

롤로는 침대에 누워있다. 하지만 자신의 방 침대가 아니다. 좁은 이층 침대

의 아래층에 있다. 작고 어두침침한 방에. 수많은 창살이 있는.

## 여덟

“야, 입 다물어!” 롤로의 윗 침대에서 냉정하고 피곤에 찌든 목소리가 쨍쨍거린다. “네가 내 단잠을 깨웠잖아! 괴짜 같으니!”

“꿈을 꾸고 있었어.” 롤로가 중얼거린다.

“그래서 뭐! 젤리피쉬 머저리야.”

“네가 머저리...” 롤로가 투덜거린다. 그녀는 소중한 너티너츠가 가득 든 배낭을 가까이 끌어당긴다. 이 배낭은, 롤로가 이 방으로 넣어지기 전에 피상하고 보기 싫은 머리 모양을 한 무서운 두 아이가 롤로에게서 빼앗으려던 것이다. 롤로는 혹시나 해서 다시 한 번 자신을 꼬집어본다. 하지만 소용없는 일. 아직도 코가 아프다.

롤로는 구치소에 있다.

구치소는 만약 여러분들이 소매치기를 하거나 두 노인을 폭행해서 체포되면 경찰아저씨들이 여러분을 잡아가 가둬두는 곳을 말해요.

롤로는 ‘그 물건’에 대해서, 어쩌다 만난 낯선 사람이 준 것이라고 항의를 했지만 소용없었다.

“그 죽은 마브 트위터 말하는 거냐?” 경찰 아저씨는 무뚝뚝하게 끼어들었다. “너와 한패인 그자 말하는 거지? 와플을 너무 많이 먹어서, 내장이 그게— 그게—” 라고 말하면서 경찰아저씨들은 키득키득 웃더니 푹푹하며 애써 웃음을 참더니, 마치 그 일이 유행하는 농담인양 “내장이 터졌어!!”와 “와플 과다복용으로!”를 반복하면서 말하다가 결국 웃음보를 터뜨린다. 롤로는 그들의 잔인함에 충격을 받았지만 그들과 함께 웃으려고 애썼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물론 아니다. 그렇다고 마술가게 주인이 롤로 소유의 하키 스틱으로 자기를 세계 내리친 것과 비둘기 할머니가 자기를 짓눌러 죽을 뻔 하게 했던 것도 중요하지 않다. 물론 뒤의 두 가지 사실은 자칭 영웅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으며, 롤로는 괜히 그 말을 꺼냈다가 얼굴만 시뻘게졌다.

"알았다, 알았어. 잘 기억하고 있다가 청소년 재판에서 얘기하렴." 경찰아저씨가 계속 낄낄거리면서 중얼거린다.

그래서 사무라이 목검이 다시 필요했기 때문에 롤로는 마침내 경찰 아저씨들에게 엄마 납치사건과 "한 시가 급한 단독 임무"에 대해서 알리기로 결심했다. 그 결과 경찰 아저씨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경찰서가 떠나갈 듯 또 크게 웃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그들은 롤로에게 전화사용이 허락되었을 때 집에 빨리 연락해 보라고 말했다. 롤로는 다시 한 번 얼굴이 빨개졌고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집에는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 롤로는 메시지를 남겼다.

이것은 어제 일이었다. 아빠나 노린 누나에게 지금까지 전화는 오지 않았다. 아마 노린은 롤로가 구치소에 있다는 말을 듣고 좋아 하고 있을 것이다. 그저 롤로는 누나가 고소해하는 있는 모습을 상상하고 있다.

좁고 열악한 침대에서 롤로는 지금, 검객소년 사무라이 수이치가 악어로봇의 지하 감옥에서 겪었던 일들에 대해 곱씹으면서 애써 스스로를 위로한다. 하지만 마음은 우울하다. "비겁한 겁쟁이들!" 롤로는 아빠와 누나에 대해 불평한다. '소등' 지시 후 어둠 속에서 먹기 시작했던 너티너츠를 마저 삼킨다. "배반자들!" 롤로는 가짜이빨에게 물렸던 부분이 아직도 쓰라려 코에 붙어있는 반창고를 만지작거리면서 같은 말을 되풀이 한다.

"입 닥치라고 했지!" 위층 아이가 소리친다. 그 아이는 침대 측면을 두들긴다.

"야, 무슨 일이야!" 걸걸한 목소리가 으르렁 거린다. 교도관○은 화가나서 그 방 앞에서 있다. "아침 6시다!" 짜증내며 그가 하품을 한다. 그의 살찐 볼이 까칠하게 자란 수염으로 거무스름했다.

"재가 계속 소리치는 바람에, 잠을 잘 수가 없었어!" 위층 아이가 투덜거린다.

"악몽을 꾸고 있었어." 롤로가 해명한다.

"야, 무슨 일이야!" 첫 번째 교도관에게 다가가는 다른 교도관의 고함소리가 울려 퍼진다.

"하키 괴짜야!" 뚱뚱한 교도관이 대답한다. "소란을 일으켰어. 근데 악몽을 꿴다나 뭐라나."

“레프리콘에(아일랜드 만화에 나오는 남자모습의 작은 요정을 말함, 역주) 관한 허튼소리를 하더라고. 같은방 애들을 못살게 굴면서 말야.” 두 번째 교도관이 비웃는다.

“난 아무도 때리지 않았어요!!” 롤로가 항의한다. “그리고 레프리콘이 아니에요.”

감방에 같이 있던 아이가 불평한다.

“알어? 우리가 미칠 지경이야.”

두 번째 교도관은 옆 머리를 툭툭 치며 말한다.

“그래,” 첫 번째 교도관이 맞장구친다. “늘 정신병 환자가 문제지.” 그가 한숨을 내쉬는다. “좋아, 내가 재를 데리고 올라갈게.” 하고 말하면서 그 교도관은 커다란 열쇠더미를 꺼낸다. “야, 젤리피쉬, 나와!”

“괴짜,” 위층 아이가 야유를 보낸다.

“저 보고 지금 나오라는 거죠?” 롤로가 한심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하면서 묻는다. 뚱뚱한 교도관은 롤로의 팔을 잡아 그를 앞세운다. 그들은 천천히, 퀴퀴한 냄새가 나는 음침한 철제 계단을 쉼쉼거리며 올라간다.

“저는 정말로 그 하키 스틱이 다시 필요해요. 제 사무라이 목검이요.”

그 교도관은 히죽히죽 웃는다. “애야, 넌 여기서 나가는 게 아니야.” 그는 계단을 오르는 일로 숨을 헐떡거리린다. “그리고 우리가 너의 하키 스틱을 계속 보관하고 있어야 할 것 같다.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얼마나 더 공격하려는 거니?”

“하지만 아저씨가 모르시는 게 있어요.” 롤로가 항의한다. “저는 찾아야 할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롤로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진다. 그리고 두 사람은 흰 곰팡이가 핀 냉랭한 벽 사이에 있는 조용한 복도를 따라 터벅터벅 걷는다. 복도에는 아무 장식도 없이 흐릿하게 깜박거리는 전구 몇 개가 켜져 있을 뿐이다.

그 곳은 롤로가 본 가장 음울한 장소들 중에 하나이다.

그 교도관은 싱긋 웃으며, “걱정할 것 없다. 넌 네가 만나고 싶은 사람은 모두 찾을 수 있을 거다.” 그는 롤로의 팔을 더욱 세게 잡는다. “우선 넌 십년에서 이십년쯤을 춥고 끔찍한 곳에서 지내게 될 거다. 그 곳에서 넌 너와 같은 괴짜들과 고블린, 이의 요정, 그리고 네잎클로버에 관해서 네가 하고 싶은 모든 얘기를 할 수 있어. 넌 모든 것을 그 의사에게 말하기만 하면 돼.”

“무슨 말이에요? 의사라뇨?” 롤로가 묻는다. 오싹함이 그를 에워싼다. 롤로는 의사 선생님이라면 딱 질색이다.

“정신과 의사지.” 라고 대답하며 경비는 자신의 모자 안쪽 이마를 두드린다.

“잠시 만요!” 예상대로 롤로는 저항한다.

하지만, 이미 두 사람은 낡아빠진 쇠문 앞에 서 있다. “그리고 너라면 그 의사 양반이 맘에 들거야.” 그 경비가 속삭이며 말한다. 그러고는 아주 불쾌하게 윙크를 한다. 그는 쇠문을 두드린다. 그 문을 열고 방안으로 슬쩍 머리만 집어넣더니 교도관이 큰 소리로 말한다. “정신병자 한명 추가요! 의사양반.” 그리고 그는 젤리피시 셔츠를 잡아당겨 롤로를 방 안으로 세계 밀어 넣은 후 문을 꽁하고 닫는다.

롤로는 넘어 질 뻔하며 방안으로 들어간다. 높은 금속 사물함과 많은 가죽 끈으로 싸여진 이상하고 불길한 느낌의 기계가 있는 음울하고 금지된 장소. 얼룩이 묻은 하얀 코트를 입은 비쩍 마른 한 남자가 금속 책상 옆에 서 있다. 그의 뒷 모습은 롤로 쪽을 향해 있고 창밖을 쳐다보고 있다.

“자, 이름이 뭐지? 어디가 아프지, 악동...?” 의사 선생님이 한숨을 쉰다.

그의 목소리는 이상하게도 친숙하다.

“료—롤로요. 하—하지만 저는—”

“롤리?” 의사 선생님은 다시 한 번 묻는다. 그는 주변을 살핀다.

롤로의 입이 떡 벌어진다. 의사 선생님은 길게 늘어뜨린 콧수염이 있고 안대를, 이번엔 다른 쪽 눈에 하고 있다.

“마브 트위터!” 너무 놀라서 롤로가 소리친다.

의사 선생님은 롤로를 쏘아본다. “마브가 아니야.” 하고 무섭게 말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하다니! 마브는 내 쌍둥이 형제야! 난 하브다.” 그가 소리친다. 그리고 발을 쿵쿵 구르며 말한다. “나는 하비 트위터야!”

아홉

지금, 이런 믿기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분이 롤로에게 기대하는 뻔 한 질문은 아마도 이것일 것이다. 굉장히 놀란 목소리로

“그 하브 아니 하- 하비요? 페- 페어리랜드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는?”

그리고 그것은, 눈을 마주치며, 롤로가 기쁨의 미소를 더 활짝 그리고 더 신나게 지으며 꺼낸 말이기도 하다.

롤로의 말에 하얀 코트를 입은 의사는 창문에 기대어 움츠러들더니 주춤한다. “누가 말했지?” 그가 묻는다. 한쪽 눈으로 흘깃흘깃 주변을 쳐다보며 “마브가 말했니?” 하고 묻는다.

“마브 아저씨는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설마!” 롤로가 소리친다. 그리고 나서 롤로는 말을 망설이는데, 마브 트위티 아저씨의 끔찍한 최후에 대해 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확신이 들지 않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만약 하브 트위티 선생님이 그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다면 어째야 할지. “예언자가요, 말하자면요.” 결국 그렇게 대답하고 나서, 코웃음을 친다. “멍청한 가짜이빨이죠.”

그 말에 하브 트위티 의사 선생님은 롤로를 유심히 쳐다본다. “왜 ‘멍청하다’는 거지?”

“맞아,” 방 안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소리친다. 익숙한 목소리였다.

“왜 멍청하다는 거지?”

주변을 둘러본다. 그러자 놀랍게도 롤로는 책상 위 바로 그곳에 멀쩡하게 놓여있는 우스꽝스러운 그때 그 틀니를 본다.

“그... 그런데 내가 너를 박살냈잖아!” 믿을 수 없다는 듯 롤로는 항의한다. “공원에서. 내가 나를 공격하니깐!”

“나는 너를 오늘 처음 보는데.” 이빨은, 말하자면, 코웃음을 치며 대답한다.

“거짓말 마!” 롤로가 화가 나서 식식거린다. 롤로의 머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복잡해진다. 하지만 자신의 육신거리던 코는? 이건 틀림없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마브 트위티 아저씨가 너를 나에게 줬어.” 하키 스틱 없는 빈 손을 짹 쥐며 덤빈다. “그 마술가게에 있던!”

“너 지금 누구한테 거짓말쟁이라는 거야! 이 녀석아” 가짜 이빨도 으름장을 놓는다. 겁을 주듯 달그닥 거린다. “으! 으!”

“예의를 지켜, 예의를 지키라고. 둘 다!” 하브 선생님이 소리친다. “아마도 그 가게에 있는 네 친구들 중 하나일 거야, 모”

“그런 것 같아...” 마지못해서 그 가짜이빨이 인정한다. “아마, 그 경우에 그 녀석이 조라면,” 하고 코웃음을 치며 “멍청하단 말은 맞는 말일 거야!”

“조라니?” 롤로가 묻는다.

“꼭 마브처럼, 내가 하는 것을 똑같이 하지!” 하브 선생님은 하얀 코트로 가려진 허벅지를 치면서 롤로를 못 본 척하더니 소리친다. “맨 먼저 가짜 이빨을 친구 삼은 사람은 바로 나야! 나라고!” 그리고 그는 다시 한 번 발을 구른다. “그건 그렇고, 네가 어떻게 마브를 알지? 그가 너를 범죄의 삶으로 끌어들이는 거니? 그는 지금 어디에 있지?”

“저... 마브 아저씨는...” 롤로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킨다. 그런 후 자포자기 심정으로 그 끔찍한 와플 관련 소식을 불쑥 말해 버린다.

그 말을 듣고 하브 트위터 선생님은 다시 주춤하더니 몸을 부르르 떴다. “트위티가의 저주야!” 고통스런 목소리로 울부짖는다. “우리는 단 것이라면 사족을 못 써!” 하브 선생님은 몸을 돌려 책상 위의 작은 플라스틱 통에 있는 무엇인가를 급히 잡는다. 샐러리 한줄기였다. 와삭 소리 내며 한입 베어 문다. “말해봐라.” 하고 그가 말한다. 샐러리를 씹을 때 마다 안대가 들쭉거리고, 콧수염은 춤을 춘다. “정말로, 아주 고통스러운 죽음이었니? 마브가 힘들어했지? 굉장히.”

롤로는 식당 그 자리에서 소름끼치게 경련하던 그의 모습을 기억하며, 한번 더 침을 삼킨다. “네, 아마도요.”

하브 선생님은 입안의 것을 삼키고, “됐어.” 하고 말하고는 웃는다. “적어도 그것으로 어느 정도 위안이 됐다!”

그러고 나서 무엇인가 만족한 듯 키득거린다.

어안이 병병한 롤로는 하브 선생님을 쳐다본다. 갑자기 롤로는 자기도 모르게 키득거린다. 그러다가 웃음이 터진다. “맞아요,” 웃음이 멈추지 않는다. “좀 구역질났죠!”

곧 음울하고 무서웠던 사무실은 인정도 없는 세 사람, 롤로와 하브 트위터, 그리고 가짜이빨 모의 웃음으로 울려 퍼진다.

“그래서 말인데요, 제발, 페어리랜드로 가는 길을 말해주세요.” 롤로가 큰

소리로 말한다. “그리고 저를 나가게 해주세요!”

롤로의 말에 하브 선생님은 갑자기 웃음을 멈춘다.

“전 미치지 않았어요.” 롤로가 주장한다. “저는 숭고한 원정을 가는 길이에요, 알아요? 엄마를—”

“고귀한 원정? 재 말 좀 들어봐!” 이빨이 비웃는다. “미쳤어. 그런데 미치지 않았잖아?”

“아니요. 아.. 그게 아니라 제 말은, 미친 게 아니라 말짱하다 구요.” 롤로는 화를 돋는 두개의 질문에 대답하려다가 오히려 뒤엎혀버렸고, 결국 쏘아 붙이며 대답한다. 정말로 가짜 이빨은 롤로의 누나만큼 굉장히 기분 나쁜 존재다. 여러 차례 롤로는 절박한 심정으로 프레젠티 호숫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페어리랜드로 가는 임무에 대해 다른 가족들이 얼마나 비겁했고 또 겁을 내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했다.

“페어리랜드라...!” 하브 선생님은 증오에 찬 듯 그 말을 중얼거린다. 그는 한쪽 눈으로 허공을 응시한다. 곧 몸을 비틀어 돌아선다. 그는 금속 사물함을 향해 터벅터벅 걸어간다. 그리고 멈춰 선다. 몸을 돌려 여기저기를 살펴보니, 마치 전투에 나가는 듯 뼈만 앙상한 주먹을 세계 쥔다. 영화의 한 장면 같다. “이번엔 페어리랜드를 완전히 끝장 낼 테다” 목 메이는 소리로 작심한 듯 말한다. “페어리랜드, 옛날일이지. 그리고 그곳은 너무 위험했어.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럼, 저에게 말해주시면, 제가 갈게요!” 영화의 한 장면 같은 분위기에서 전율이 오는 흥분감이 온몸을 휩쓸자 롤로가 큰소리로 말한다.

“집요해, 집요해!” 이빨이 딱딱거린다.

하브 선생님은 무시하듯 손사래를 친다. “너 혼자서 페어리랜드를 절대 찾을 수 없어. 그리고 찾는다 해도, 고블린들이 어디서 지내는지 절대 알아낼 수가 없을 거야!”

“그러면 선생님이 같이 가셔서 보여주시면 되죠!” 롤로는 끝까지 고집을 피운다. “검객소년과 함께 갔던 눈먼 늙은 드레곤 스카우트처럼—”

“집요해!” 이빨이 되풀이해서 말한다.

“집요한 게 아니야!” 롤로가 이를 갈며 덤빈다.

“너와 함께 가자고?” 하브 선생님은 롤로의 말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되

묻는다. 경멸하듯 웃는다. 곧, 웃음을 멈춘다. 이번엔 몸을 비틀어 또다시 여기저기를 살피더니, 뼈만 앙상한 주먹을 세계 쥐면서 일종의 심각한 내적 갈등에 사로잡힌다. 진짜, 여러분들이 드라마를 좋아한다면 여러분은 하브의 팬이 되었을 것이다. 분명히!

“좋아!” 그는 급히 숨을 몰아쉰다. 그리고 몸을 돌려 롤로를 향해 서지만, 롤로의 머리 위 허공을 쳐다본다. “안 될 거 없어, 그치?” 그는 호탕하게 웃는다. “오, 난 이런 속임수에 지쳤어. 수많은 불쌍하고 어린 너 같은 정신병자들을 돌보느라 난여기서 많은 시간을 보냈지. 그래 넌 아니라고 치자. 하지만 난 하브 트위터야. 사실은 모험가이지! 진짜 모험가. 흉내만 내는 마브와는 달라!”

그리고 이처럼 죽은 쌍둥이 형제에 대해 경멸의 말을 하고서, 하브 선생님은 입고 있는 얼룩진 하얀 가운을 벗어 던졌고 그러자 얼룩진 사파리 재킷이 드러난다. 그것은 마치 중대한 사냥을 나온 사냥꾼이 음식 얼룩이 묻은 것을 입을 것 같았다.

“이번엔 반드시 고블린을 산채로 잡아 올 테다!” 그는 소리친다. “그들이 흥분상태일 때 지독한 냄새를 풍기더라도! 절대 끄덕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고블린 보물도 신경 안 써!” 그는 작심하듯 마른침을 삼킨다. “또한 트위터가의 저 주도!”

“‘고블린 보물’이라뇨?” 하브 선생님이 방을 가로질러 터벅터벅 걸을 때 롤로가 눈이 휘둥그레져서 묻는다.

“절대 신경 안 쓸 거야.” 그 모험가는 중얼거린다. 그는 또한 매우 지분거리는 사람이다.

그는 금속 사물함을 돌려 연다. “자자, 서두르자. 갈 거라면 서둘러. 정문으로는 안 돼. 안 돼, 안 돼. 들키고 말거야. 벽난로 굴뚝으로 나가자.” 기분 나쁘게 웃으며 그가 말한다.

“벽난로 굴뚝이 있어요?” 벽난로를 발견하지 못했던 롤로가 말한다. “왜냐하면,”

“저거야!” 하브 선생님이 갑자기 소리친다. 그러더니 곧 혼란스러워 보인다. 그 순간 그는 웃는다. 억지웃음이다. “속았지!” 하고 말하고는 “아무 것도 없어.”

“꼴좋다, 바보야!” 가짜 이빨이 비웃는다.

“창문으로 나가자, 창문으로 나가자!” 하브 선생님이 소리친다. 그리고 그는 너무 커서 거의 코앞까지 흘러 내려오는 구식의 탐험가 헬멧을 재빨리 잡아 머리위에 제대로 놓고, 한 묶음의 밧줄 사다리를 끌고 와서 바닥을 가로질러 운반하기 시작한다.

“기다려요.” 롤로는 매우 기뻐하며 그를 돕기 위해 뛰어나오면서 소리친다. “그자들이 내 하키 스틱을 가져갔어요. 그건 제 사무라이 곤봉이에요. 그게 필요해요!”

“저쪽... 구석으로” 두 사람은 허우적대며 밧줄 사다리를 창턱으로 올려놓는 동안 하브 선생님은 숨이 차서 헐떡거린다. “내가 그걸 가져오라고 했어, 너에게 되팔려고. 싸게 해주마. 2000달러, 어때? 좋다, 10.99달러. 어떠냐?”

“그 하키 스틱은 제건데요?” 롤로는 그것을 대충 훑어보며 항의한다.

“그럼, 내가 돈을 빌려주지.” 하브 선생님이 불만스럽게 말한다. 그는 계속 창밖으로 사다리를 내리고 있다. “넌 고맙게 생각하지 않는 거 같구...”

그때 갑자기 하브 선생님이 문 쪽을 쳐다본다. “누구세요?” 하고 소리친다. “거기 누구죠?” 아무 대답이 없다. “서둘러, 그들이 눈치 챌 것 같아!”라고 말하며 하브 선생님은 가짜이빨을 마치 앵무새처럼 그의 어깨에 놓은 채 창턱 위로 사라진다.

롤로는 구석에 있다가 뒷걸음질로 급히 달려가서, 그의 모습을 내려다본다. “핑장한데!” 바람에 하브 선생님의 머리가 휘날리자, 롤로는 숨이 막힌다. 작은 돌투성이의 감옥 안 공터까지는 한참을 내려가야 한다. 비비 꼬이고, 별레처럼 꿈틀거리는 가느다란 밧줄 사다리를 따라, 하브 선생님과 그의 어깨에 탄 승객은 서서히 작아진다. 그 순간 롤로는 창문 바로 옆에 있는 비상계단을 발견하고는 왜 그들이 저렇게 내려가야 했는지 궁금해진다.

“들키겠어!” 하브 선생님의 외침이 어렴풋이 들려온다. “서둘러!”

결국, 겁을 잔뜩 먹은 롤로는 어쩔 수 없이 겨우 창턱에 올라가 창밖으로 내려가기 시작한다. 바람이 웅웅 소리를 내고 사다리는 비비 꼬이고 흔들거린다. 롤로는 검객소년 사무라이 수이치가 까마귀 대왕 좀비의 탑에서 위험천만한 탈출을 시도했을 때도 이만큼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부르르 떨리는 운동화 신은 발 한쪽을 이곳저곳을 디더 다음 발판을 찾아보며 아래쪽으로 조금씩 한

칸, 한 칸 내려간다. 더 이상 아래쪽을 쳐다보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롤로는 결심했다. 고소공포증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 아주 약간 있다. 하지만 감옥 탑 25미터 상공에서 가느다란 밧줄, 두 줄에 매달려있는 상황이라면, 누군들 두렵지 않겠는가? 게다가 사다리는 계속 걱정될 만큼 조금씩 빙빙 도는데, 아마 밧줄을 너무 세게 쥐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 바람 또한 계속 거세게 불고 있다.

“젠장...” 롤로가 중얼거린다.

자기도 모르게 아래쪽을 한번 슬쩍 본다. 그러자 숨이 턱 막힌다. 공터는 아직도 저만치 아래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구구’하는 소리가 갑자기 롤로의 귓가에 들려오더니, 그것은 퍼덕퍼덕 요란스레 날개 짓하며 다가온다.

비둘기 떼라니!

“저리가!” 롤로가 썩하고 소리친다. 그리고 하키 스틱을 미친 듯이 휘두른다. 밧줄 사다리가 기울어진다. 그것들 모두가 마치 까마귀 좀비인 양, 비둘기들이 다가오자 롤로는 다시 한 번 휘두른다. 사다리가 심하게 기울어진다.

그러더니 갑자기 롤로와 롤로의 배낭이 탑 끝에서 끝으로 흔들거린다. 인간 추 모양으로.

“워—어—어!” 사다리는 탑 오른 쪽 끝으로 미끄러지듯 움직이면서 비비 꼬인다. 비둘기 떼도 쫓아 움직인다.

“워—어—어!” 이번에는 왼쪽 끝으로, 반대로 꼬이면서 미끄러지듯 움직였고 비둘기 떼도 반대로 쫓아 움직인다.

굉장히 무모한 카니발ライド같은, 대담한 서커스 묘기 같다. 이것은 롤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었다. 밧줄 사다리 매듭이 풀릴까봐서 죽을힘을 다해 매달려 있는 동안, 롤로가 비둘기들을 피하려던 것 때문에 상황이 더 심해진다.

자, 여러분은 비둘기 떼가 무엇을 하려는지 눈치 챘나요?

“안 돼—” 화가 난 동물들이 롤로에게 발사하자 썩하고 소리쳤고, 그 분비물은 빛나가서, 탑 벽에 후두둑 떨어진다.

“도와주세요!” 그가 소리친다, 아니 감옥 안에서 알아채지 않기를 바라며 소리 없이 외친다.

하지만 이 공중에는 도와줄 사람이 없다. 저 아래 공터에서도, 다른 어떤

곳에서도.

롤로는 죽을힘을 다해서 탑 벽으로 돌진하면서도 조심하려고 애쓴다. 어깨를 돌 벽에 세게 부딪히고 곧장 튕겨 나온다. “아야!” 깜짝 놀란 순간 밧줄을 잡고 있던 손을 놓친다. 롤로가 다시 재빨리 밧줄을 절반만 잡는 순간 하키 스틱을 떨어뜨린다. 하키 스틱은 곧장 저 아래로 떨어져버린다.

아래쪽으로 롤로는 빠르게, 더 빠르게 허둥지둥 내려간다. 너무 빨랐는지, 손이 타들어가는 것처럼 밑으로, 밑으로 쏠살같이 미끄러져, “어—어—” 정확하게 플라스틱 쓰레기통들 위에 세게 부딪힌다. 밧줄 사다리는 롤로의 배 위로 우수수 떨어져 쌓인다. 이렇게 첩퍼덕거리면서 비둘기로부터 벗어난 것이다.

“좀 조용히 해!” 가짜이빨이 호통 친다.

머리가 쭈뼛해지는 추락 후, 롤로의 상태에 대해 해준 말이라고는 그것이 전부이다.

다른 어떤 누구의 도움도 없었지만, 어쨌든 그는 살아있다. 더욱이 뺏속까지 충격을 받았지만 놀랍게도 다친 곳은 없다.

“그리고 하키 스틱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해!” 이빨이 이어 말한다. “내가 맞을 뻔 했잖아!”

“으음” 롤로가 굉장한 일을 한 것처럼 아파서 끄끙거린다.

하브 트위터 선생님은 우울한 표정으로 화려한 장식의 주머니 중 한곳에서 꺼낸 당근하나를 우적우적 씹으며, 줄곧 탑 아래 쭈그리고 앉아있다. 그는 공터 저만치에, 커다란 문 앞에 놓인 쓰레기통을 지나서 떨어진 자신의 헬멧 밑을 힘없이 쳐다 보고 있다.

“위층에 열쇠를 놔두고 왔다...” 하브 선생님이 진진하게 말한다.

이들의 나름 성공적인 탈출 전반부에 대해서는 이쯤 해두자.

잠시 후, 롤로는 비상계단을 타고 올라가면 어떨지, 지친기색으로 말을 꺼낼 만큼 정신을 차린다. “들키고 말걸.” 하브 선생님이 말한다. 그리고 밧줄 사다리는 보시다시피 땅에 있다. 그렇다면, 공터입구는? 말할 것도 없이... “당연히 잠겨있지!” 하브 선생님이 가짜이빨 옆에서 비웃으며 대답한다. “여긴 감옥이라고, 꼬마야!”

“되는 일이 없군.” 하브 선생님이 중얼거린다. “그냥 아무나 들어 올 때 까

지 기다려야겠어, 그래서 막무가내로 나가는 거야. 그나저나 어찌다 사다리가 저렇게 망가졌지?” 화를 내며 묻는다. “저건 감옥물품이라고!”

놀랍게도, 어찌면 뭐 그리 놀랄 일도 아니지만, 두 시간이 훌쩍 지났다. 그 누구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 덕에 조금도 치밀하지 않던 탈출은 아직까지도... 보통 이런 (유형의) 일은 빈틈없는 계획 하에 일어나는 법인데... 아아, 어찌할꼬.

“음, 누군가에게 내려오라고 해서, 열어달라고 해야 할 것 같아.” 찌푸린 얼굴로, 하브 트위터 선생님이 한숨을 내쉰다.

이건 아니라는 생각을 하면서, 롤로는 잘 보이는 곳으로 자리를 옮겨, 소리치고 손을 흔들며, 점프하면서 비명을 지르기 시작한다. 몇몇 사람들이 높은 벽에 나있는 철장 친 창문 밖을 빼꼼이 내려다본다. 그들은 의아한 듯 어깨를 으쓱하며 계속 지켜본다. 됐어!

“이럴 수가!” 하브 선생님이 중얼거린다.

그는 손가락 두 개를 기다란 콧수염 밑 안쪽에 가져가서 휘바람을 세계 분다. 그 소리는 놀랍게도 굉장히 크게 들린다.

그러나 돌아오는 대답은, 침묵이었다.

“되는 일이 없어.” 하브 선생님이 욕을 퍼붓는다.

이 말은 아마도 여러분의 안내자에게서 듣고 싶은 말은 아닐거예요.

자 이제 롤로가 팔을 걷어붙인다

이렇게 되면, 롤로는 직접 나서는 수밖에. 롤로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하키 스틱을 들고 공터 전편으로 허둥지둥 가서 마치 그 문이 비둘기들과 고블린들 그리고 가짜이빨이 한데 모아진 것인 양, 화감에 커다란 문을 후려치기 시작한다.

“그만, 그만해. 미친거야?” 하브 선생님이 소리친다. “우리가 발각되기를 바라는 거야?”

“미쳤어, 미쳤다고. 그러게, 내가 뭐랬어.” 가짜이빨이 계속 외쳐댄다.

당연히 문은 꿈쩍도 하지 않는다. 롤로는 세찬 기세로 달려오는 전직의사 선생님과 의치 쪽으로 헐떡거리며 소심하게 돌아선다. 그러자 롤로 뒤에서 천천히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문은 아주 느리게... 안으로 움직이다가... 활짝 열린다.

지저분한 작은 고양이가 깜짝 놀라서 입을 떡 벌리고 서있는 아저씨와 남자 아이를 뺨히 올려다보며 서 있다. “야옹.” 고양이가 인사한다.

“귀여운 녀석.” 하브 선생님이 마른 침을 삼키며, 말한다. 애매하게 미소를 지으려다가,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뺀다. 고양이가 으르렁 거린다.

“조심해!” 불쑥 가짜이빨이 외친다.

하브 선생님은 뒤로 물러선다. 고양이는 날카로운 소리를 낸다. 롤로도 뒤로 물러선다.

“귀— 귀엽네.” 셋 모두 찢찢맨다.

고양이가 한 번 더 날카로운 소리를 내더니, 한 발 앞으로 다가선다. 위협적인 울음 때문에, 롤로는 사무라이 곤봉으로 고양이를 쿡쿡 건드린다. 고양이는 더 날카롭게 울었고 두 발을 들어 공중에서 휘두르다가, 재빨리 사라져 버린다.

예비 탈옥수들은 멍하니 바라본다.

“이겼다!” 하브 선생님은 아주 신이 나서 소리친다.

아무도 없는 입구 밖으로 그들 모두 왈칵 떨어져, 자유를 향해 나간다.

“이봐, 너 그 고양이 무서웠지?” 이빨은 고마운 마음 조금도 없이, 롤로를 향해 비웃으며 말한다.

“너 만큼이야 했겠니!” 롤로도 비웃는다.

이런 분위기속에서 드디어 롤로는 페어리랜드로 가는 길에 들어섰다.

“그럼, 그건 어디에 있죠?” 아래위로 계속 움직이는 하브 선생님의 탐험가용 헬멧 뒤에서, 윗부분이 철조망으로 된 교도소 벽면을 씩씩거리며 뒤따라가며 묻는다.

“뭐가 어디 있다는 거야?” 하브 선생님이 되묻는다.

뭐가 어디 있다니?!

열

응?

“무-무슨 뜻이죠, ‘뭐가 어디 있다니요?’” 롤로는 당황했지만, 교도소 탈출 도중이라 놀란 내색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저, 음산한 화강암 교도소 담장을 따라 뻗은 아무도 없는 좁은 길을 종종 걸음으로 걷고 있다.

앞서 걸던 모험가가 슬쩍 뒤돌아본다. 그는 씩 웃는다. 이번엔 윙크를 한다. “메롱~!”

“꿀롱다!” 틀니가 끼어든다. 그리고 “속았지!” 하며 틀니는 깔깔대며 웃는다. 하지만 틀니의 조롱하는 듯한 태도로, 가볍게 장난스러울 수 있는 상황이 불쾌해진다.

이렇게 한바탕 크게 웃다가 틀니는 하브 아저씨 어깨에서 균형을 잃는다. 틀니는 껍 소리치며 굴러 떨어져 땅에 고꾸라진다.

이번엔 롤로가 과장되게 웃을 차례다. 롤로는 가던 길을 멈추고 배를 움켜잡더니 일부러 요란스럽게 웃는다.

“닥쳐! 닥치라고!” 흠을 내뿜으면서 틀니는 부득부득 이를 간다.

이 모습은 숭고한 원정에서 예상치 못한 장면인데 일어났네요.

“그만뒤!” 하브 아저씨가 낮은 소리로 불평한다. 그는 멈춰 서서 추락한 손님을 향해 아래로 손을 뻗는다.

하브 아저씨는 날카롭고 매서운 한쪽 눈으로 롤로의 뒤쪽을 노려본다.

“지독한 감기에 걸렸군...” 그가 중얼거린다. “어떤 사람이... 아님 무엇인가가... 우릴 쫓아오고 있어.”

롤로는 조심스레 뒤돌아본다. “누가요?”

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는다. 그저 교도소의 거대한 화강암 담장... 그리고 그들이 서둘러 빠져나온 사람하나 없이 먼지로 자욱한 거리... 그리고 으스스한 적막만 있을 뿐...

“저쪽, 저쪽으로!” 하브 아저씨가 외친다. 곧 덜컥덜컥 아저씨의 굽소리가 들린다.

“잠깐만요!” 롤로가 소리친다. 롤로는 아저씨 뒤를 쫓아간다. “아직 대답하지 않았어요. 어디에 있어요? 페어리랜드 말이에요.”

“소리 낮춰!” 하브 아저씨는 헬멧으로 가려진 한쪽 눈으로 노려보며 낮은 목소리로 대답한다. “낮 말은 새가 듣고 밤 말은 쥐가 듣는 법이야!”

“알고 싶지 않은가 보지.” 틀니는 자기 자리에서 뒤돌아보며 비웃는다.

이렇게 세 탈옥수들은 높은 교도소 담장의 길고 어두운 그림자로 부터 빠르게 멀어져 간다.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페어리랜드는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 열하나

“프레전트 호수? 관둬, 제발....”

“그래, 우리가 바로 그곳에 있었어, 정말이야!” 그곳에 대한 얘기라면 르네는 늘 히죽거리며 웃는 것에, 노린은 완전히 재미가 없어졌다는 듯 씩중난 척하며 하품 한다.

노린과 르네가 쇼핑센터에서 추파 던지기 작업을 하다 쉴 때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얘기가 시작되곤 했다. 그곳에서 그들이 빌린 새 보석 액세서리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고, 아니면 그 이상으로 화를 돋우거나 부러움을 사기도 했다. “프레전트 호수, 너무 유치해. 그곳에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노린이 느릿느릿 쟁치하며 말한다. “그건—실패자나 하는 소리야.”

그러고 나서 노린은 진하게 화장한 눈으로 이리저리 둘러본다.

\*\*\*

“프레전트 호수” 롤로는 얼떨떨한 채로 눈을 껌벅이며 혼자 중얼거린다.

하지만 그곳이 롤로가 현재 가고 있는 곳이다. 원정을 위해서 하브 트위터 아저씨의 차를 타고 그곳으로 달려가고 있다! 아저씨의 차는 교도소 주차요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저 멀리 공터에 주차되어 있었다. 유감스럽게도 그 공터는 주인

없는 곳이 아니었다. 생각해보세요. 씨익 하고 웃는 사람에게 돈을 내라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게다가 하브 트위터 아저씨의 차는 너무 구식이어서 골동품 자동차 박물관에서 가져온 것 같았다. 유감스럽게도 그 차는 세차를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것 같아 보이고, 바퀴는 찌그러져 있고, 타이어는 핑크 난 것과 다를 바 없으며, 차 문은 흠집이 나고 찌그러져 있고, 범퍼는 주저앉고, 엔진의 소음장치는 구멍이 난 게 틀림없어 보이며, 검은 매연이 배기관에서 뿜어져 나오고 피어오른다. “교도소 구급차-개인용” 이라고 다소 알아 볼 수 없도록, 차 앞덮개와 양옆에 쓰여 있다. 그것은 아주 조금 무지개 빛으로 움직이는 독수리 전차를 닮았다. 그 전차는 바람신이 검객소년 사무라이 수이치가 악어로봇의 요새로 길을 나설 때 그에게 빌려줬었다.

“그렇지만 아저씨 말씀대로, 페어리랜드가 프레전트 호수가에 있다면요,” 롤로는 혼자 중얼거린다. 자신들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 지에 대한 하브 아저씨의 극적인 발표 때문에 여전히 혼란스러운 채로, “왜 그것에 대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을까요?” 어떤 한 사람의 비웃는 목소리가 롤로의 머릿속에서 메아리 친다. 하브 아저씨가 굉장히 난폭하게 운전하는 바람에 롤로는 앉은 채로 흔들거린다.

모험가의 괜찮은 눈은 도로에서 눈을 떴고 짜증스럽다는 듯 찡그린다. 아저씨가 지금 자랑스레 걸치고 있는 화려하고 얼룩이 묻은 하얀 스카프가 산들바람에 휘날리다가 그의 헬멧 주변을 위태롭게 빙빙 감고 있다. “들어본 적 없어, 롤리?” 하브 아저씨가 툭 쏘며 말한다. “타락한 범죄병동에 굉장히 빠져 있나보구나?”

아저씨의 말투는 화난 것 같다. 롤로의 아빠가 롤로에게 화가 났을 때와 같은 말투이다. 게다가, 하브 트위터 아저씨는 셀러리와 당근을 아삭아삭 씹고 있어서 그것이 튀기도 한다. 그 쌍둥이 형제와 같이 있었을 때처럼, 롤로는 젤리피쉬 셔츠에 튼 것들을 털어낸다.

“롤로예요.” 롤로는 무뚝뚝하게 이름을 고쳐 말한다. “그냥 노린 누나가—”

하브 아저씨가 자전거 운전자를 향해 뱅뱅 거린 오래된 고무패킹 된 차 경적의 요란한 소리 때문에 롤로의 말은 들리지 않게 된다. 자전거 운전자는 당황

하여 이리저리 둘러보고 길 밖으로 위태롭게 달리다가, 결국 앞으로 고꾸라지면서 나무와 충돌한다.

“뭘 찾는지 알고 있다고, 그 대단한 ‘프레전트 호숫가’ 아니야? 그렇지?” 하브 트위티 아저씨는 따지듯이 말한다. “네가 지금 뭘 보고 있는지 알고 있어? 그 지도 사용하면 될 것을!” 아저씨가 씩씩거린다. 그는 페어리랜드에 대한 특별한 지도를 넣어 둔 화려하게 장식된 겹옷 주머니를 가리키며 툭툭 친다. “이것을 판독해야 할 거야. 쉽지 않아, 알기나 해? 이것을 판독하는 건, 내가 계속 말했잖아. 쉽지 않을 거라고! 그치, 모?” 하고 아저씨는 자동차 계기판에 자리 잡은 틀니를 향해 말한다.

“쉽지 않지.” 틀니가 반복한다.

이런 쉽지 않는 알쏭달쏭한 일이 하브 트위티 아저씨를 험악하게 만들었다. 혹시라도 누군가 혹은 무엇인가 쫓아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먼 길로 돌아가자는 것은 그의 교활한 생각이었다. 적어도 네 번째 길을 잃을 때까지만 해도, 좋은 생각이라고 여겼다. 지금, 그들이 출발한지 수 시간이 지났다. 늦은 오후 그들은 마침내 ‘프레전트 호수 - 피크닉의 낙원 - 5마일’라고 쓰여진 표지판을 지나간다.

“넌 철자도 모르지, 젤리빈— 젤리비니위니 (흔히 사람을 놀릴 때 덧붙여 사용하는 말, 역주).” 틀니가 자리에서 폴짝폴짝 뛰며 롤로를 향해 비웃는다.

틀니는 길을 나서는 내내 이렇다. 정말 노린 누나처럼 견딜 수 없을 만큼 예의가 없다. 틀니는 롤로의 원정에 대해 몇 번씩 불쾌한 말을 했다. 일부러 롤로가 틀니의 말을 무시하고 사무라이와 다른 얘기로 화제를 돌렸을 때, 그 모험가는 그의 죽은 쌍둥이 형제만큼이나 그것에 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을 뿐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완전히 경멸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하브 아저씨는 그 놀랍고 기이한 꿈에 관한 이야기에 대해 그저 투덜거렸다. 그리고 누나에 관한 이야기를 하자... “내게 그런 얘기 하지 마.” 하고 중얼거릴 뿐이었다. 결국, 차를 타는 동안, 목적지를 향하고 있지만 친목도모의 기쁨은 전혀 찾아 볼 수 없었다. 검객소년 사무라이의 모험에서는 늘 볼 수 있었던 보기 좋은 사이는 아니다. 전혀 아니다.

“물론, 난 ‘crafty’의 철자를 알아!” 롤로는 불쾌한 틀니에게 통보한다. 혹시

라도 틀니가 코 깨물기 점프를 생각 하고 있을 것을 대비해서, 그의 손은 다리 사이에 있는 하키 스틱을 꽉 쥐고 있다. “그리고 젤리피쉬 팀을 모욕하는 말은 그만 뒤!” 하고 거짓말이라도 할 태세로 롤로는 똑 부러지게 말한다. “그들은 가장 멋있는 팀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깐... 그러니깐 비니위니는 너나 먹어라!”

“오호, 재말 좀 들어봐!” 틀니는 콧방귀를 낚는다. “그 팀이 곤드레만드레였다 는건 누구나가 다 아는 사실이야! 젤리비니위니! 젤리비니위니!”

스포츠에 관한 그 재밌는 토론은 하브 트위티 아저씨의 생각지 못한 또 한 번의 경적소리 때문에 중단된다. 차는 휙 방향을 바꿔 자전거 운전자 두 명을 간신히 피한다. 그들은 이미 추돌 사고가 난 뒤 길가에 서서, 각자 부러진 팔을 붙잡고 다치지 않은 팔을 다가오고 있는 ‘교도소 구급차-개인용’차를 향해 달려달라고 간절하게 흔들고 있다.

갑자기 방향을 바꾸는 바람에 틀니는 비명을 지르며 계기판 위를 앞뒤로 정신없이 움직인다. 이 모습에 롤로는 문에 부딪히면서도 크고 과장되게 웃는다. 잠시 창문을 내려 볼까 생각한다. 그러면 간단하게 틀니는 차 밖으로 날아갈지도 모른다.

하지만 롤로는 꼭 참는다.

하브 아저씨는 뼈만 앙상한 주먹을 휘두르며 장래에 욕을 퍼붓는다. 골동품 차는 쏜살 같이 달리며 첫 번째 커브 길을 미끄러지듯 돌고, 다음 커브 길을 돌고, 그리고 아마 페어리랜드 쪽으로 달린다. 차는 멈춘다. 덜커덩거리다가 폭파음을 내더니 자리에서 주저앉는다. 모험가는 어깨너머를 예의주시 하는데, 그의 어깨와 얼굴은 스카프로 완전히 휘감겨 있다.

“왜 그래요?” 롤로가 묻는다.

“으으.. 어지러워...” 틀니가 신음한다.

“지독한 감기에 걸렸군.” 하브 트위티 아저씨는 단호하게 중얼거린다. “어떤 사람이, 아님 무엇인가가 우릴 쫓아오고 있어... 그런데 세상이 왜 이렇게 하얗지?”

“스카프 때문이죠.” 롤로는 어이가 없어서, 하브 아저씨에게 사실을 알려준다. 그러자 그는 거울을 본다. 저물어가는 햇살 속에 길고 조용하며 키 큰 소나무에서 굽어있는 도로만이 보일 뿐, 너무나 적막하다.

"음. . ." 이번엔 시야가 말끔해지니 하브 아저씨는 다시 중얼거린다. 그는 거북해하며 외면하다. "서둘러!" 그리고 골동품 차는 요란한 소리를 내더니 흔들거린다.

"으 - 으으. . ." 틀니는 괴로워한다.

"누군가의 차멸미," 롤로는 흥얼거린다.

틀니는 대꾸하려 하지만, 트림을 할 뿐이다.

마침내는 이렇게 해가 지고 있다. 롤로의 원정을 위한 자동차는 짙게 거리가 광 소리와 함께 폭발하더니 연기를 내뿜으며 프레전트 호숫가 피크닉장소에 멈춘다.

짐 내리는 것을 기다리지도 않고, 롤로는 뛰어나가서 끔찍한 일이 있었던 피크닉 식탁으로 빠르게 달려간다. 딱 지금 시간 쯤 이었다. 벤치 옆 잔디밭에 지금도 그대로 있는 그 날의 접시들을 보면서 롤로는 침을 꿀꺽 삼킨다. "엄마?" 롤로가 있는 힘껏 외친다. 사무라이 목검을 준비상태로 해 놓고, 주변을 둘러보자 심장이 마구 뚱다. 대체 페어리랜드는 어디 있는 거지?

저 멀리, 호숫가에 귀신이 나올 것 같은 어둠과 희미한 빛이 희미한 석양을 받으며 프레전트 호수에 잔잔하게 퍼진다. 조금 이른 반딧불이가 반짝거린다.

하지만 숭고한 원정을 하고 있는 롤로의 눈에는 어떤 것도 들어오지 않는다.

"저 - 저기요!" 롤로가 더듬거리며 말한다. 롤로는 눈을 껌벅인다. "저기요!" 하고 외친다. 다시 한번 힘껏 외친다.

그는 나무들이 조금 우거진 곳의 한 쪽 끝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한다. 그곳에는 "**페어리랜드! 이쪽으로!**" 라고 쓰인 풋말이 땅에 박혀있다. 풋말은 반짝이는 작은 전구들로 둘러 싸여 있고 커다랗고 각진 화살표는 아래를 향해 있다.

"세상에, 어—어떻게 저것을 못 볼 수 있죠?" 그곳으로 다가가며 롤로는 소리친다.

"아니야, 잠깐— 기다리라고!" 하고 드디어 열린 차의 트렁크 쪽에서 하브 아저씨가 맞받아 소리친다.

믿을 수 없다는 웃음을 지으며 롤로는 화살표 아래에 있는 것에 완전히 흘

린 듯 가만히 내려다본다.

몹시 투박하고 기이하게 생긴 계단이 땅 속 깊이 더 깊이 나있다.

“굉장한데,” 롤로가 침을 꿀꺽 삼키며 말한다. 틀니가 아직 가까이 오지 않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 재빨리 흘끗 보고나서 롤로는 슬며시 자기 자신을 꼬집어보기도 한다. 하지만 꿈이 아니다. 꼬집고 난 후에도 계단은 그대로이다.

“어디가 좀... 이상해.” 롤로는 한 번 더 침을 꿀꺽 삼킨다. 그리고 이번 일로 영원히 누나의 상스러운 입을 꼭 다물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중얼거린다. “그래도... 핑 - 장 - 해!!”

하브 아저씨는 분명 이 기쁨을 함께 할 것 같지 않았기 때문에 롤로는 돌아선다. 아저씨는 하얀 스카프를 휘날리며 차에서 롤로 쪽으로 달려온다. “경솔한 녀석 같으니, 안 돼! 안된다고!” 과격하게 손을 흔들며 짹짹 소리 지른다.

그러더니 그 자리에 멈춰 선다. 천천히 헬멧 쓴 머리를 돌려서 나무들이 우거진 다른 쪽 끝을 자세히 들여다본다. “그 지독한 감기인가?” 틀니가 자기 자리에서 뒤돌아보며 높은 소리로 말한다.

“지독한 감기에 걸렸어.” 하브 아저씨는 자신만의 특이한 쉼 목소리로 확신하듯 말한다. “누군가 아니면 무엇인가가...”

“손들어, 열간이들!” 비웃는 듯한 목소리가 갑자기 들려온다.

이상하게도 익숙한 목소리이다.

그 순간 누군가 우거진 나무 숲 밖으로 걸어 나온다. 손에는 굉장히 큰 총처럼 보이는 것을 들고서.

## 열들

그래요, 정말 굉장히 큰 총처럼 생긴 것이었어요.

“당신들은—” 숨어있던 세 명의 사람들은 페어리랜드 표지판 옆에서 할 말을 잃는다.

“로니조니 교도관!” 하브 아저씨가 말한다. “어떻게 당신들이—”

“손들라고 했잖아!” 불이 까무잡잡한 사람, 그 뚱뚱한 교도관이 무섭게 말한다. “이봐! 손들어!” 그 교도관은 썩썩대며 터벅터벅 걸어온다. 땀이 송글송글 맺혀있어 이 어둠속에서도 그의 양 불이 반짝거린다. 그의 교도관복은 마치 허둥지둥 숲 사이를 몰래 빠져나온 사람의 옷처럼 보푸라기와 나뭇잎 조각 투성이다. “놀랬나, 의사선생?” 그가 비아냥거린다. 그의 눈은 무섭게 번뜩거린다. “당신 방문에 열쇠구멍들이 왜 있다고 생각하나?”

“그럴 줄 알았어!” 손은 여전히 위로 한 채로 하브 아저씨가 소리친다.

“교활해!” 롤로가 항의한다. 물론 롤로가 도청을 당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도 누군가 그런 일을 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화가 나서 따지지 않을까요?

“닥쳐, 너—젤리피쉬 멍청아.” 교도관은 롤로의 말을 막는다. “너 그 하키 스틱 내려놔. 여기서 널 해칠 사람은 아무도 없어!”

“저 틀니는 저를 해쳐요.!” 롤로는 마지못해 그 교도관이 시키는 대로 하면서 소리친다. “다시 말하지만, 저건 사무라이 목검이에요. 전 원정 때문에 필요해—”

“젤리비니위니!” 틀니가 놀려댄다.

“조용히 해.” 롤로가 무섭게 말한다.

“너희 둘, 닥쳐.” 이번엔 교도관이 무섭게 말한다.

“여보시오,” 하브 아저씨가 분명하게 말한다. “이 병들고 사악한 아이는 내가 보살피—”

“닥쳐, 닥치라고—모두 다!” 양 불이 땀으로 범벅이 된 채로, 분명히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는 교도관은 껍떡 소리만 지른다. 그는 세 사람 앞에 총을 대고 위협한다. 그리고 미친 듯이 웃는다. “페어리랜드 입구로 나를 안내해준 너희들에게 감사할 따름이다. 이곳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 망막했었지. 하지만 지금부터 나는” 너무 기쁜 나머지 그는 키득거린다. “내 지도를 사용하면 돼!”

롤로는 너무 놀라서 교도관을 멍하니 바라본다. 사실 교도관은 셋을 다시 교도소로 끌고 데려가는 것 보다 페어리랜드에 관심이 있었던 거네요? 그리고 그는 지금 손에 쥐어 흔들고 있는 지도를 가지고 있네요? 그것은 롤로가 잠시나마 보도록 허락되었던 하브 아저씨의 페어리랜드 지도와 아주 흡사했어요. “그럼

— 그럼, 지도는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롤로는 일명 자신의 안내자라는 사람과 그만이 알고 있는 전문지식에 대해 굉장히 화가 난다.

“당연히 또 있지.” 교도관이 비웃는다.

“비니위니” 틀니가 중얼거린다.

“조용히 해.” 롤로는 화가 났지만 차분하게 말한다.

“작년 네가 특대형 너티너츠 바 한 봉지를 살 때 무료로 하나 더 얻었을 거다.” 교도관이 말한다. “그리고 나는 너티너츠바를 굉장히 좋아해. 안 좋아하는 사람 어딴겠니?”

“남, 남” 틀니가 먹는 시늉을 한다. “하나 쥐 봐!”

“엄마는 특대형 사이즈를 사주지 않았어요.” 롤로는 아쉬움 마음에 그때를 떠올린다. 모조리 뺏겨 먹어치워지는 일은 원치 않으면서도 게다가 한 팀이지만 나눠먹는 것조차 원치 않으면서도, 롤로는 배낭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에 대해 사랑하는 것으로 애써 마음을 달랜다.

“나도 한때 그런 것 들을 엄청 좋아했었지.” 하브 아저씨가 한숨을 푹 쉰다. 그러더니 아저씨는 주춤하다가 몸서리를 치고 손사래를 친다. “너티너츠바, 크리모크러드바, 스러지퍼지파이에서 토피 사탕과 타피사탕, 바나나범브후레이크! 하지만 이제 나는 셀러리와 당근을 즐겨먹지!” 하고 하브 아저씨는 의지와는 다른 말을 억지로 한다. “하지만— 하지만 넌 절대 지도를 읽을 수 없을 거다!”

“그럴 리가!” 교도관이 비웃는다. “날 좀 보시지, 의사양반!” 그리고 나서 그는 잘난 척하며 빙그레 웃는다. 그는 빙그레 웃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임이 분명하다.

“자, 말해봐.” 목소리를 낮추며 느닷없이 그가 말한다. 총을 이리저리 겨누며 가까이 다가온다. “고블린 보물이 뭐지?” 그의 눈이 마치 커다란 아이들의 눈처럼 크고 간절하다. “금이야? 은이야? 금은보화?”

“아니,” 하브 아저씨는 턱을 내밀며 대꾸한다. “그리고 네가 총 몇 발을 쏘든지 간에 상관 안 해.”

“절대 상관 안한다고?” 교도관은 콧방귀를 끼더니 뒷걸음질 한다. “그래서 뭐 어쩔다는 거야? 내가 왜 그것에 대해 알고 싶은지를 알고 싶은 거야? 그런 거야?”

“아니요.” 세 목소리가 일제히 답한다.

“그리고 아마도 당신은, 엄마를 구하는 일을 영망으로 만들거예요.”

“난 그 보물을 모조리 가져갈 거야. 어떤 것이든.” 로니조니 교도관은 계속 말한다. “그리고 그것으로 난 부자가 될 거야. 그러면 난 나만의 극장을 사서, 매일밤 무대 위에서 요들송을 부를 거야. 결국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의 굉장한 능력을 알게 될 것이고 특히 우리 롤라 누님도 알게 되겠지. 나, 로니조니 교도관을 말아야!” 그는 소리를 높인다. “요들송 교도관!”

롤로는 몹시 놀라서 또다시 어안이 병병해 진다. “당신이? 당신이 롤라 쉬노클러 아줌마의 동생이라구요!” 이 말도 안 되는 인연에 롤로는 식식거린다. 그리고 보니 여태 일어난 일들이 딱 들어 맞는다.

교도관의 얼굴이 재빨리 롤로를 향한다. 그는 굉장히 놀란 눈치다. “어떻게 네가 우리 누님을 알지?” 그는 숨을 죽인다. “내 요들송에 대해서 뭐라고 하더냐? 누님은 늘 아는 척을 하지. 자기가 뭘 안다고. 나보다 겨우 한 살 많으면서. 손 내릴 생각 마.”

“그런데 아줌마는 금발이잖아요!”

“염색한 거야.” 교도관이 대답한다. “내가 굉장히 멋진 요들송 알고 있는데 한번 들어봐!”

반딧불이가 여기저기서 희미하게 반짝이는 그곳에서 교도관복을 입고 모자를 쓴 채로, 그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더니 준비를 한다. 지도를 들고 있는 손을 들어 휘젓다가 갑자기 요들송을 부른다.

“요도레이, 요도레이,” 굉장히 독특한 요들송 창법으로 목에는 힘줄이 튀어나오도록 힘겹게 부른다. “요도리이 - 이 - 이 - 이 - 이, 요 도 로! 어때, 좋지?” 하고 그는 소리친다.

“그게 줌...” 그가 ‘까다로운’ 관객들에게 받은 반응이다. 물론 그 관객들은 여전히 손을 들고 서 있다.

“그걸 요들송이라고 하나보죠?” 틀니가 야속하게 말한다.

“꿈속에서 당신 누나의 강아지가 노래 불렀는데, 이보다는 낫던데요.” 롤로는 교도관도 분명 자기처럼 그의 누나를 미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더 야속하게 말한다.

“어쨌든 페어리랜드로 안내해 준 것은 고맙다!” 교도관은 관객들의 혹평을 무시한 채로 관찮은 척 빙그레 웃기까지 하며 외친다. 하지만 예술가들이 그렇듯이 분명 그는 굉장히 예민한 사람임에 틀림없다. “여기서 우리는 작별 인사를 해야지!” 그는 페어리랜드 표지판으로 터벅터벅 걸어간다. “굉장해, 굉장해.” 그는 땅 속에 있는 그 이상한 계단에 감탄한다.

“나라면 그곳으로 내려가지 않을 텐데.” 하브 아저씨가 교도관에게 알려준다.

“오 그래?” 로니조니 교도관은 이까지 드러내며 활짝 웃는다.

“이건 불공평해. 내가 원정을 할 사람이라고!” 롤로는 불만을 터뜨린다. 롤로는 절박한 심정으로 아무렇게나 놓여있는 사무라이 목검을 슬쩍 내려다본다.

“근데 말이야, 너희 셋 모두 예의가 없어!” 교도관은 분명하게 말한다. 그의 몸이 흔들거리고, 환한 미소는 아주 사악한 표정으로 바뀐다. “너희들 모두, 싸버릴 테다. 어떻게 생각해?” 정신 나간 사람 마냥 키득거리며 그는 커다란 총을 들어들린다.

“안 돼—” 셋은 몸을 움츠리며 껍하고 소리친다.

그리고 방아쇠를 당긴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다.

“젠장,” 교도관이 투덜댄다. “비누를 다 파냈는데—” 손에는 거품이 묻어있는 채로 그는 총을 내팽개친다. “아무렇지도 않아!” 그가 소리친다. 허리띠에서 가스통을 훑 꺼내더니 롤로와 하브 아저씨를 계속 위협물로와 하자, 너희들은 쫓아 오지마와 쫓아오면 이 최루가스를 뿌릴 가스통 너희들은 질식하고 말거야.” 그는 키득거리면서 가스를 살짝 뿌린다. 롤로와 모험가는 자신의 얼굴을 팔로 가리면서 소리를 지르고 어쩔 줄 몰라 버둥댄다.

“레이 - 이 - 이 - 이 - 이, 요 도 로!” 뚱뚱하고 고소해하는 교도관은 요들송을 부른다. 그리고 페어리랜드 계단으로 털썩 뛰어내린다. 심하게 쪼개지고 부서지는 소리 때문에 그는 한번 휘청한다. “이봐—” 침을 한번 꿀꺽 삼킨다.

그때 바닥에 난 문에서 떨어지듯, 그는 비명과 함께 시야에서 빠르게 사라진다.

## 열셋

흑평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롤로는 최루가스를 손으로 휘저으며 사무라이 목검을 잡기위해 재빨리 앞으로 걸어간다. 하지만 그것은 최루가스가 아니었다.

“방향제잖아!” 롤로가 소리친다. “우웻!”

목검을 준비상태로 놓고 롤로는 얼굴을 찡그리며 기침을 하고나서 계단이 있었던 그 곳을 내려다본다. 지금 그곳에는 킁킁하고 커다란 1야드 크기의 구멍만 남아 있다. 구멍의 가장자리에는 얇은 합판이 부서져 뽀쪽뽀쪽하게 남아 있다... 계단을 입체적으로 그려 넣은 합판이!

“맙소사!”

로니조니 교도관의 비명소리는 저 멀리 아래로 사라지고, 마치 어마어마하게 긴 배수관을 따라 나오는 소리 같다. 방향제 때문에 그곳에는 롤로의 집 욕실에서 나는 냄새가 난다.

“고블린들의 이동통로야.” 틀니가 기침을 하고나서 자리를 잡는 동안, 하브 아저씨는 롤로 옆에서 험악하게 셀러리를 씹으면서 말한다. “침입자들을 막으려고 지어진 거야. 우리가 바보인줄 아나보지. 여기서부터, 이 지역은 고블린들로 득실거려. 가짜 통로라고 생각하면 돼.” 그가 외친다. “거대하고 정밀한 곡선 모양의 통로, 총 길이가 수만 야드에 이르고, U자형에, 서로서로 연결되어 있지.”

“순식간에 추락하지.” 틀니가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말한다.

“순식간에 추락하지.” 하브 아저씨가 되풀이 한다. “그런 뒤 다른 입구로 발사되어 나와서 저 멀리 하늘로 날아 갈 거야. 일직선으로 올라갔다가, 알아들어? 다시 그대로 떨어져서 이번에 다른 통로로 들어가지. 그리고 순식간에 추락하는 거야. 모든 것이 또다시 반복돼. 도중에 관에 끼이거나 하지 않는 한 영원히 반복되지! 모든 관들이 모든 통로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야. 사슬처럼. 교묘하고 끔찍하게!”

그리고 그는 몸서리를 친다.

“이 구멍이 바로, 여러 개 이동통로 중 하나인 실제 입구라는 거죠?” 롤로는 가만히 바라보며 묻는다.

“알고 싶은 거야?” 틀니가 익살스럽게 묻는다. 갑자기 틀니가 말이 없다.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브 아저씨 재킷의 깃을 꼭 물고 있기 때문이다.

“가까이 가지 말라고 경고 했던 이유를 알겠지?” 경고는 너무 교묘지만, 모험가는 자랑스러운 듯 웃는다. “너랑 그 미친 요들송광 로니조니 교도관에게 말 이야.”

통로를 내려다보면서 롤로는 가장 잘 쓰는 말 중, ‘굉장한데’ 말고 ‘맙소사’라는 말을 안 할 수가 없다. 롤로는 머리를 들어 이미 어두워진 주변의 경치를 가만히 바라본다. 통로 아래에서, 분명히 그 요들송 교도관이 지금 이 순간에도 추락하고 있다. 어딘가에서 발사되어 나오기 전까지, 안으로, 안으로 계속 떨어질 뿐! 루어링 레이보우 테마 파크의 워터 슬라이드의 최대 버전처럼 끝이 없을 것이다.

아니면 검객소년 사무라이 수이치에서, 요새로 들어가는 입구를 지키기 위해 악어로봇이 파놓은 터널 함정처럼 끝이 없을 것이다.

“굉장 - 장 - 한 - 데,” 지금도 롤로는 자기도 모르게 중얼거린다. 그 순간 굉장히 멋지지 않은 생각이 머리 속에 떠오른다. “그럼, 고블린의 통로가 위장된 것이라면... 어떻게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이다.

“알고 싶어?” 틀니가 키득거린다.

“조심히 걸을 수밖에.” 하브 아저씨가 대답한다. “그리고, 언제나 내말 명심해. 난 페어리랜드가 어떤 곳인지, 지도를 어떻게 읽는지 알고 있어.” 그는 수상하게 사과리 자켓 주머니를 툭툭 친다.

“자 그럼,” 하브 아저씨는 마치 지도자처럼 위엄 있게 말한다. “우리가 찾는 진짜 표지판도 있을 거다... 어딘가에.”

그리고 끔찍한 이동통로 옆에서 아저씨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진짜 표지판’을 찾으려고 나무들이 음산하게 우거진 곳과 피크닉 장소를 찬찬히 살펴본다.

침을 꿀꺽 삼키고 사무라이 목검을 꼭 쥐 채로, 롤로도 주변을 찬찬히 둘러

본다. 롤로가 깜짝 놀란다. “아저씨...” 롤로가 말한다.

5야드 떨어진 곳에서, 수많은 반딧불이가 떨리는 화살표 모양을 만들고 있다. 몹시 놀란 롤로의 눈앞에는 “**진짜 표지판**”이라는 글자가 흔들거리다가 반짝 반짝거린다. “아저씨, 저거 보세요!” 롤로는 그것에 완전히 홀려서 외친다.

하브 아저씨의 헬멧이 그쪽을 향해 휙 돌아선다. “어디야?” 아저씨는 다른 쪽을 보고 있다.

“저기요! 진짜 표지판, 저기 있잖아요!” 롤로는 매우 들떠서 소리친다. 롤로는 사과리 자켓을 잡아당긴다.

솔직히, 특정 부류의 굉장한 지식을 소유한 가이드에 비하면 하브 아저씨는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이럴 수가!” 결국 그것을 알아차리더니, 괜찮은 한쪽 눈이 커지면서 모험가는 마음이 급해져서 말한다. “야호! 저거야! 바로 저거라고! 어서가자, 서둘러!” 그리고 그는 이리저리 날뛰다가 롤로에게 곧장 달려와 쿵 부딪쳐 롤로를 옆으로 넘어뜨린다.

비밀통로 쪽으로!

그러자 롤로의 발은 로니조니 교도관이 추락했던 구멍의 뽀족뽀족가장자리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휘청거린다. “사람 살려!” 당황한 롤로는 팔을 풍차날개처럼 빙글빙글 돌리다가 도리깨처럼 휘두르면서 짹 하고 소리친다.

어떻게 롤로는 커다랗고 음산한 나무 가지 쪽으로 팔을 짹 펴서 힘껏 뛰어 올라 상황을 안전하게 모면했을까요? 이 야밤에 어디가 어딘지 그 누가 안다고!

## 열넷

아니죠.

롤로는 휙 돌아서서 이동통로에서 겨우 몇 인치 떨어진 땅바닥에 가까스로 넘어졌어요. 그곳에 롤로는 안도의 함 숨을 내쉬며 대자로 뺨었지요.

"조심했어야지, 내가 경고 했잖아?" 하브 아저씨는 자동차로 돌아가면서 미안한 기색 없이 잔소리만 할 뿐이다. "그리고, 제발 좀 서둘러. 가방도 들고. 조심성 없는 녀석아! 안 그러면 저 표시도 사라져 버릴 거야!

"저는 조심했어요!" 굉장히 화가 난 롤로는 두 일행을 향해 으르렁댄다. 롤로는 차에 도착해서도 젤리피쉬 유니폼에 묻은 풀들을 털어내고 있다. 좀 전에 겪은 끔찍한 일로 롤로의 심장은 아직도 심하게 뛰다. "정말 모르고—"

"서둘러!" 하브 아저씨는 재촉하는 반딧불이쪽으로 소리치며 롤로의 말을 자른다. 반딧불이는 "서둘러 가시오."라고 글을 새로 고쳐 만들었다.

아무런 말도 없이, 하브 아저씨는 멋진 끈이 달린 장비 가방을 롤로의 가슴 정 중앙에 얹어 놓는다.

"도대체 저들이 어떻게 글씨를 쓰죠?" 롤로는 숨을 헐떡이며 묻는다. 롤로의 누가 봐도 정당했던 짜증은 이내 감탄으로 바뀐다. 지금 롤로는 하브 아저씨 옆에서 장비가방과 배낭, 그리고 하키 스틱을 들고 최대한 빨리 속도로 걸어보지만 발걸음이 무겁다. 반딧불이는 그들을 앞서 가고 있다.

"그래서 그곳이 페어리랜드지." 안대를 착용한 탐험가는 지쳐서 씩씩거리면서도 빙그레 웃는다. 그는 끈이 멋있는 다른 장비가방과 마지막에 고블린을 잡아챌 그물이 달려있는 긴 장대를 들고 있다.

"그걸, 고블린들은 '마법의' 비니브레인이라고 부르지." 아저씨의 어깨 위에서 틀니가 소리 높여 말한다.

반딧불이는 나무 숲 위로 앞서간다. 피크닉 장소에서 나와서 바로 아래 있는 넓은 내리막을 따라 간다. 커다란 희미한 달이 그들의 머리위에 떠있고 별들은 밤하늘에서 긴장한 듯 반짝 반짝거린다. 호수가 하류로 흐를 때, 이 모든 것들로, 어둠속의 프레젠티 호수를 더 매혹적으로 반짝거리고 일렁인다. "조용히 해!" 깜짝 놀란 롤로가 말한다. 하지만 호수 곳곳이 다 반짝거리고 잔잔히 일렁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호수 중앙에서 조금 벗어난 어느 한 지점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계속해서 나는 것 같더니... 보글보글 호수가 끓는다. 그 순간 평 하고 터진다—

그리고 교도관을 닮은 뚱뚱한 형체가 달빛 속에서 완전히 터져버린다. 그의 팔다리가 공중에서 허우적대고 비명소리는 강 건너편으로 희미하게 사라진다. 그

리고 나서 그는 다시 호수에 추락하고 다음 코스로 사라진다.

“수중 이동통로군!” 하브 아저씨는 외친다. 그는 그 광경에 놀라서 꼼짝 않고 쳐다본다. “정교한 판막공법— 빈틈없이 탄탄하지.”

“요 도 레이 - 이 - 이 - 이 - 이!” 틀니가 요들송을 부른다.

“요 도 레이 - 이 - 이 - 이 - 이!” 한바탕 웃으며 모두가 함께 부른다.

“요 도 레이 - 이 - 이 - 이 - 이!” 반딧불이도 글을 고쳐 쓴다.

이 글을 보고 원정대는 돌아서서 가던 길을 다시 간다. 호숫가에서 나와서, 긴 비탈길 어깨쯤에 오자 다시 오르막이다. 반딧불이는 꼭대기로 훨훨 날아가더니 그곳에서 다소 무례한 어투의 글을 쓴다. “**저것 출 보시지.**” 글씨는 약간 오른쪽으로 기울어 있고 화살표도 있다.

숨을 헐떡이며 간신히 롤로는 하브 아저씨보다 먼저 꼭대기로 올라온다. 롤로는 반딧불이 옆에 멈춰 선다. 그리고 장비가방을 푹하고 떨어뜨린다. 그는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바라본다.

“**페—페—페어리랜드다!**” 롤로는 소리친다.

여기는 지상 1층. 연못처럼 보이는 곳으로 향하는 경사가 또다시 보인다. 몇 개의 징검다리과 밝은 빨간색 노 젓는 배가 그 옆에 있다. 저편에, 섬처럼 뻗뻗하게 나무가 있는 음산한 숲이 눈에 들어온다. 연못 옆 커다란 게시판에는 멋스럽게 조명을 받으며 무엇인가 쓰여 있다.

**페어리랜드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 조심히 걸으시오!**

이것이 바로 함정일까요? 바로 이 순간, 이 음산한 숲에 퍼져있는 수많은 이동통로 중 한곳에서 그 쭈글쭈글하고 날카로운 눈을 가진 납치범들이 지켜보고 있을까요?

어느 영웅의 용감함이 숨겨진 미스터리를 풀기위해 기다리고 있어요, 네 맞아요!

그곳에는 젤리피쉬 유니폼을 입고 사무라이 목검을 손에 쥐고 롤로는 활짝 웃으면서 원정의 목적지를 내려다본다. “어디로 가야할지 노린에게 분명히 보여줄거야!” 하고 롤로가 말한다. 그리고 롤로는 긴장한 탓인지 숨을 한번 깊게 들

이마신다. 이견 그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하지만 그는 떨고 있다.

롤로에게 잠시라도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게 해주자고요.

## 열다섯

질문하나 할게요. 물론 여러분들이 단 것을 핑장이 좋아한다면 츠이구이가 짱이죠. 그리고 크리모크러드바도 괜찮아요. 그런데 어떤 초코바도 너티너츠를 따라잡을 수 없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입에 대자마자 바삭거리는 속, 벌꿀로 뒤덮힌 피칸과 땅콩, 그리고 아몬드 를 달콤하고 찢든한 캐러멜을 흠뻑 버무린 최고의 조합 때문일까요?

아니면 이 사이나 충치 먹은 곳에 끼기 쉬운 코코넛 부스러기와 다른 견과 류들을 밀크 초콜렛 위에 촘촘히 덮은 것 때문일까요?

왜 이런 걸 묻냐구요? 곧 알게 될 거예요.

## 열여섯

“페어리랜드네!” 너무나 기쁜 나머지 위에서부터 바라보며 롤로는 같은 말을 되풀이 한다.

“그래, 그 대단한, 페어리랜드지.” 틀니는 롤로를 흉내 내며 억양이 없는 목소리로 말한다.. 틀니는 저 아래 비탈길을 올라올 때부터 롤로를 흉내 내고 있다. 하브 아저씨가 비탈길 기슭에서 갑자기 멈춰 섰기 때문이다. 그는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는다. 창백했고 얼굴 전체가 땀으로 흠뻑 젖어 있다.

“페어리랜드.” 쉼 목소리로 간신히 말한다. 그의 떨면서 뼈만 앙상한 주먹

을 권다. “고블린 보물... 트위티가의 저주...” 하브 아저씨는 여러 가지 야채를 입으로 밀어 넣는다.

롤로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그를 향해 내려다본다. “어서요!” 롤로는 그에게 서두르라고 손짓하면서 초조하게 외친다.

그때 롤로의 시선은 반딧불에게 가 있다. 반딧불이는 새로운 글로 고쳐 쓴다. **“이봐, 알다시피. 공짜는 없어.”**

“돈을 내야 한다는 거예요?” 하고 반딧불이에게 묻는다.

**“좋아, 그런 쓸모도 없는 건 집어치우고,”** 다시 글을 쓴다. **“혹시, 달콤한 거 낚은 것 없어?”**

“음, 글썄요...” 롤로가 대답한다. 그때 롤로는 싱긋 웃는다. “있죠!” 다소 예의는 없었지만 롤로는 반딧불이의 안내에 진심으로 고마웠다. 게다가 롤로는 자신의 귀중품인 초코바를 자랑할 기회가 있을 때면 늘 기쁘다. 비록 지금의 상황이 짜증날 만큼 혼란스럽지만. 하지만 롤로는 검객소년 사무라이 수이치가 애장품 벌레를 아스트랄 거북에게로 데리고 갔을 때를 떠올린다. 벌레들은 수이치가 깊은 강물을 건널 수 있도록 도와줬고 그 덕에 수이치는, 잠든 때를 틈타 악당 철의 전사의 경비견을 갈기갈기 찢어놓을 수 있었다. 이런 이유로, 롤로는 뒤를 확인하더니 서둘러 배낭을 내려, 끈적하고 달콤한 것이 담긴 배낭 안으로 손을 뻗는다. “너티너츠는 어때요?” 하고 롤로는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며 속삭인다.

이런 운명을 좌우하는 말과 함께, 페어리랜드 바로 앞에서 롤로는 초코바 두 개를 몰래 움켜잡는다. 그리고 굉장히 너그럽게, “단, 빨리 먹어야 해요, 왜냐하면—”

“조심성 없는 고약한 녀석!” 하브 아저씨의 목소리가 천둥소리처럼 울려 퍼진다. “뭐하는 거야, 지금?”

롤로는 재빨리 돌아서서 모험가가 비탈길 꼭대기에 나타난 것을 확인하다. 겁에 질린 롤로는 하브 아저씨를 쳐다본다. “저, 저는 그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변명을 하려고 하면서 한숨을 내쉬다.

“저런,” 틀니가 소리친다. “누군가 그랬어, ‘너티너츠’라고. 어서 내놔!”

“모, 안 돼!” 하브 아저씨가 소리친다. 틀니는 어깨 자리에서 공중으로 뛰어 올라 반딧불이에게 주려던 초코바를 잡아 문다. 롤로의 엄지손가락도 함께.

“아악—!” 롤로가 소리친다.

“으으으으,” 엄지손가락과 달콤한 음식을 동시에 물면서 너티너츠에 미친 틀니는 으르렁거린다.

“**된장—**” 반딧불이는 맞춤법이 틀린다.

“그만 뒤!” 하브 아저씨가 입안의 먹던 야채들을 내뿜으며 소리친다. 롤로는 다른 손가락을 물리지 않으면서 틀니를 떼어내려고 폴짝폴짝 뛴다.

“저리 가, 저리가라고!” 롤로가 께하고 소리친다.

“사악한 정신병자야, 이거 놓지 못해!” 하브 아저씨가 소리친다. 마치 독거미가 들어있는 야구글러브를 내던지듯이, 롤로는 틀니를 내동댕이치려고 한다. 쿵! 소리와 함께. 틀니는 날아가 땅바닥에 구른다. 틀니는 그 자리에서 초코바 두 개를 먹어치우더니, 이어서, 포장지 이곳저곳을 완전히 핥는다.

“안 돼—! 모!” 이 모습을 보자마자 겁에 질린 하브 아저씨는 손을 올려 휘젓는다.

“내 손가락,” 롤로도 아파서 소리친다. “아야!”

안타깝게도 이때 반딧불이가 한데 움직인다. 그들은 화가 난 틀니 위로 날아와 우글거린다. 그리고 전기가 흐르는 땅콩 덩어리를 입힌 것처럼, 틀니를 덮는다. 지글지글 소리가 나고 번쩍거리며, 틀니는 몸을 떨면서 제자리에서 폴짝폴짝 뛴다. 그 와중에 틀니는 계속 먹으려 하면서도 날뛰는 초코바에 달려드는 작은 무더기를 피하려 한다.

이상하게도 그 모습은 마치 전등을 달아놓은 할로윈의 호박 초롱이 날뛰는 것처럼, 사실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충격적이었다.

롤로는 입이 딱 벌리고 바라본다. 하브 아저씨는 소리 지르며 쓸데없이 이리저리 날뛴다. “그만 뒤! 그만 두라고!” 잠시 뒤 상황은 끝이 난다. 틀니는 까맣고 여기저기 이빨자국이 남아있는 캐러멜 덩어리를 줄줄 흘리면서 경련한다. 캐러멜에는 죽은 반딧불이가 박혀 있고 이들 중 몇 마리는 죽어서도 깜박거리고 있다.

“모... 세상에! 모!” 하브 아저씨는 산산 조각난 틀니를 앞에 두고 무릎을 꿇은 채 미친 듯이 울먹인다. 그는 헬멧 쓴 머리를 돌리고 달고 끈적한 것의 유혹을 향해 손을 휘젓는다.

“으...으...” 틀니는 힘없이 침을 줄줄 흘린다. “몸이... 안 좋아... 너무... 많이... 먹었어...” 하고 안쓰럽게 헛소리를 한다.

“우웩— 역겨워.” 롤로는 얼굴을 찌푸리며 비웃는다. 그리고 너무 신난 것처럼 과장되게 웃는다. “재는 죽을 거야—너무 많이 먹어서! 하 하 하!” 롤로가 웃는다. “역겨워, 하 하 하!”

이렇게 롤로가 갑자기 웃음을 터트리는 바람에 하브 아저씨는 재빨리 얼굴을 든다. “너 제정신이니?”

“보세요, 마브 아저씨와 다를 게 없어요.” 웃기는 장면을 봤지만 아무도 웃지 않을 때처럼 롤로는 당황한다. 어색하게 롤로는 다시 웃는다.

“아주 미친 녀석 같으니,” 하브 아저씨가 으르렁거린다. “이건 너 때문이야! 모! 모!”

“저 때문이라고요?” 롤로가 식식거리며 말한다. “재가 저를 물었어요!” 롤로는 엄지손가락을 보여준다. “그리고 재는 모든 것을 먹어 치우려고 했어요. 재는 늘 저를 괴롭혔어요!” 롤로는 틀니가 잘못했던 점들을 애매하게 지적한다.

“나... 죽을 것... 같아...” 틀니는 알아듣기 힘들게 중얼거린다. 틀니는 침을 줄줄 흘리면서 경련하고, 힘없이 딸꾹질을 한다.

“안 돼, 모! 안 돼!” 모험가는 미친 듯이 울부짖는다. 그는 몸부림을 치며 괴로워한다. 하브 아저씨는 한 쪽 눈으로 롤로를 올려다본다. “네가 인공호흡을 해줘야겠어!”

“제가요?” 롤로는 끄적해서 뒷걸음질 치며 큰 소리로 말한다. “말도 안 돼! 우웩”

“난 못해, 난 할 수가 없어! 달콤한 초콜렛이 여기저기 범벅이어서 아무래도 안 돼!” 하브 아저씨는 자기가 받은 저주를 이겨내려는 듯 몸부림치며 소리친다. “그럼 뉘을 것을 좀 구해와!” 아저씨는 숨을 헐떡인다. “그래야 애를 구급차로 데리고 가고, 빨리 응급실로 갈수 있어. 모, 모! 조금만 참아.”

하브 아저씨 때문에 롤로는 충격을 받은 눈치다. “하지만— 잠깐만요. 페어리랜드는 어떡하죠? 그리고 저의 원정은요?” 롤로는 저 아래, 연못 바로 건너편에 세워진 커다란 표지판 쪽을 쳐다본다.

“빌어먹을 페어리랜드! 빌어먹을 우스꽝스러운 원정! 뉘을 것 좀 줘.—장비

가방 안을 봐.“

롤로는 황당해서 그를 쳐다본다. “싫어요.”

“진절머리 나고, 나쁜 녀석!” 하브 아저씨가 목소리를 낮추어 말한다. 그의 한쪽 눈은 정말 위협적인 눈빛을 하고 있다. “모가 네 손 위에서 죽었으면 좋겠니? 가방 안을 뒤져봐. 어서!”

“그러던지 말든지 상관 안 해요!” 롤로도 노려보면서 으르렁거린다. 하지만 롤로는 황당해서, 속으로 사건의 순서를 떠올리면서 시키는 대로 가방 안을 뒤지려 한다. “가방을 열수가 없어요!” 하고 롤로가 분명히 말한다. “이 끈들이 안 풀려요.” 그건 사실이다. “아저씨의 스카프를 쓰는 게 어때요?”

“완전히 미쳤군!” 모험가가 대꾸한다. “이 스카프는 교도소의 특별자산이야. 구급차로 뛰어가. 내가 훔쳐온 수건들이 있을 거야. 어서, 서둘러!”

“싫어요!” 롤로가 거부한다. 그리고 그는 발을 쿵쿵 구르기까지 한다.

“그리고 가는 중에 발밑을 조심해.” 모험가는 롤로의 대답에는 신경도 안 쓰고 자기말만 한다. “세상에, 모!” 그는 다시 슬퍼져서, 입을 주먹으로 막고 울고 있다.

이렇게 롤로는 지나왔던 비탈길을 따라 달빛 아래 다시 서둘러 내려가고 있어요. 롤로의 발걸음은 이동통로의 위험을 슬쩍슬쩍 피하면서, 페어리랜드에서 멀어지고, 송고한 구출 원정과도 멀어지고 있죠. 모든 것이 틀니의 식탐 때문 인 거죠. “공정하지 못해!” 롤로는 소리 높여 불평한다. 커다란 달빛이 젤리피쉬 유니폼을 따라 반짝거린다. 그리고 하류로 흐르는 프레전트 호수 전체를 따라 반짝 거린다. 누나의 경멸적인 비웃음이 귓가에 맴돈다. 롤로가 거의 다 왔을 때! 갑자기 가던 길을 멈춘다. 늘 그렇듯이 하브 아저씨는 자기에게 차열쇠를 주는 것을 잊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투덜거리다가, 롤로는 크게 한숨을 쉬고 비탈길을 다시 기어오른다. 롤로가 꼭대기에 도착하자 너무 놀라서 또다시 멈춘다.

하브 아저씨는 롤로의 열린 배낭을 자기 옆에 두고 있다.

그리고 닫고 있다.

## 열일곱

“그건 내 검객소년 사무라이 수이치 만화책이에요!” 롤로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비명을 지른다. 말할 것도 없이, 화나고 또 화나고, 기분이 상했다.

롤로는 곧장 달려간다.

“어? 왔네, 수건은 어디에 있어?” 하브 아저씨는 만화책에서 읽기 않은 페이지를 찢으면서 롤로를 올려다보며 말한다. 그때 롤로는 온몸으로 하브 아저씨를 친다. “없는 것보다야 낫지, 이거, 근데 난 정말—”

“이리 줘요!” 롤로는 고함치고 하브 아저씨 손에서 만화책의 남은 부분을 획 낚아챈다.

환자를 돌보던 모험가가 투덜대며 소리친다. 그리고 책을 놓지 않고 꼭 잡고 있다! 진짜 줄다리가 벌어진다. 가장 좋아하고 소중한 액션 만화의 남은 부분이 이미 찢겨진 상태로 결국 롤로가 이긴다.

“뭐하는 거예요!” 땅바닥에 여기저기 흩어져 꾸깃꾸깃 구겨진 채로 너티너츠 오물과 반딧불이 사체와 역겨운 침으로 가득한 땅바닥위에 흩어져 있는 책장들을 보며 입을 떡 벌리고 영영 운다.

“한 생명을 살리려고 그랬다고!” 하브 아저씨가 소리친다. “그 엉터리 만화책 이리 줘, 아님 구급차에 갔다 오던가!” 하며 하브 아저씨는 만화책 쪽으로 손을 뻗지만 롤로는 멀쩡한 부분의 만화책을 아저씨의 손이 닿지 않는 쪽으로 획 뺀다.

“몸이... 안 좋아...” 하면서 틀니는 침을 줄줄 흘린다.

“이건 너무 공정하지 못해요!” 롤로는 하브 아저씨의 배 위에 앉아 또다시 울먹거리며 불평한다. 이 공정의 기준은 이제 진짜 논제로 변한다. 갑자기 롤로는 땅 바닥위에 놓여있는 하키 스틱 쪽으로 빠르게 달려간다. 그리고 다시 빨리 돌아온다.

“저 가고 있어요!” 롤로는 좀 전 만화책 남은 부분을 겨드랑이 사이에 단단히 끼어놓고 하브 아저씨에게 무섭게 말한다. “지도 주세요! 페어리랜드가는 지도요!”

하브 아저씨는 깔보며 비웃는다. “지도?” 그는 큰소리로 웃는다. “제정신이 아니구나. 넌 절대 그걸 해석할 수 없어—. 저 - 얼 - 대!” 찢어지는 듯 한 목소리

로 외친다.

감정 상태 때문에 다소 명중은 아니었지만 롤로의 내려치기로 먹보 틀니를 결국 날려 보낸다.

“지도 쥐요!” 최대한 사나운 목소리로 롤로는 고함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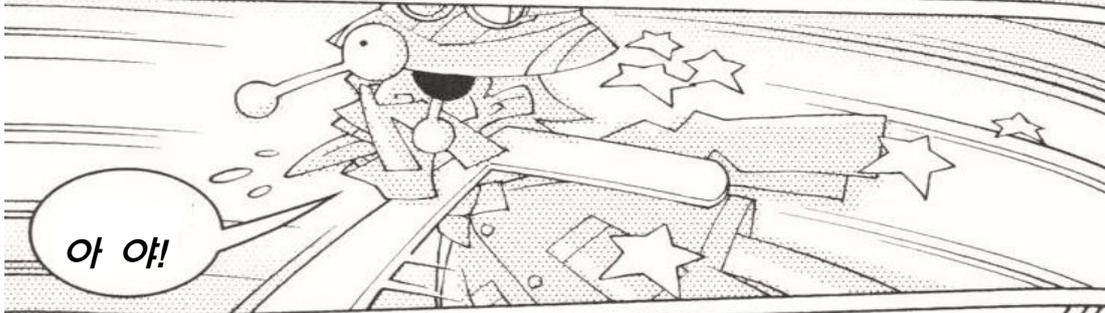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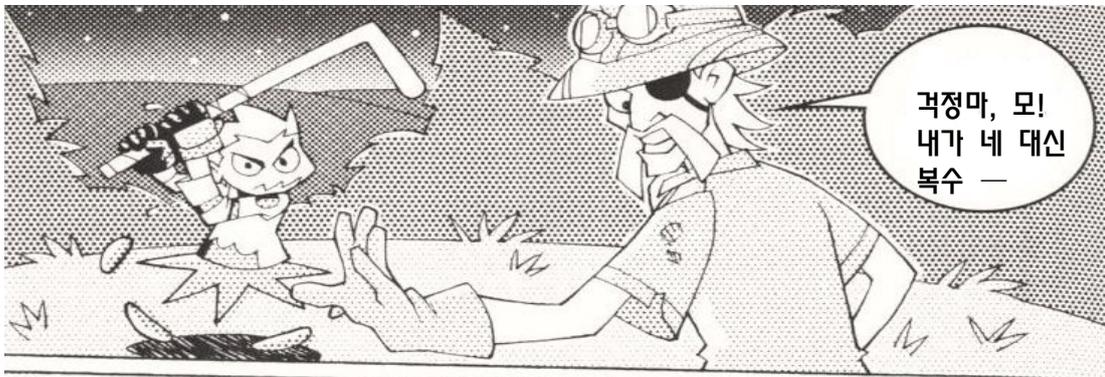
“제일 진절 머리나고— 가장 나쁜 녀석—!” 하브 아저씨는 뛰어오른다. 그는 틀니 쪽으로 허둥지둥간다. “모! 모!” 하고 불쑥 부른다. 스카프가 휘날리자, 하브 아저씨는 획 뒤 돌아 본다. “너처럼 타락한 아이들의 말을 절대 듣지 말았어야 했어! 세상에, 이렇게 바보 같을 수가! 계획대로 널 괴롭혔어야 했어! 그랬어야 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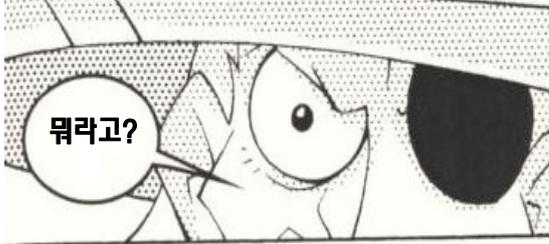
그리고 롤로가 하브 아저씨를 쫓는 동안 하브 아저씨는 땅바닥에 있는 긴 고블린을 잡을 채 쪽으로 돌진한다. 하브 아저씨는 채를 낚아채서 다시 획 돌아서서 거꾸로 잡아 손잡이가 위로 가도록 그것을 휘두른다. 손잡이는 단단한 가죽으로 씌어져있다.

“넌 지도를 건들지 못해. 아마 가까이 오지도 못할 걸! 내가 널 해칠 참이거든!” 하고 하브 아저씨가 고함친다. 그리고 나서 그는 공격을 위해 가죽 손잡이 그물의 장대를 들어 올리며 롤로 주변을 천천히 걷는다.

페어리랜드가 내려다보이는 그곳 별빛 아래서, 안내자와 나이 어린 숭고한 원정 탐험가는 이제 치명적인 적이 되어 대결할 준비를 한다.

롤로는 침을 꿀꺽 삼킨다. 실제로 일어났다는 사실이 너무 짜릿하다. 지금 이 모습은 검객소년 사무라이 수이치와 믿음직했던 늙은 장님 드레곤 스카우트를 구현하려고 만든 배신자 변태 마법사간의 대결과 아주 흡사하다. 굉장히 무섭기도 하지만 용기가 나서 롤로는 웃음이 나온다. 다급하게 롤로는 가장 아끼는 만화책의 남은 부분을 젤리피쉬 셔츠 안으로 쑤셔 넣는다. 액션 만화 광 특히, 격분한 액션 만화 광에게는 지금 이 순간이 어떤 상상 보다도 즐겁다! 왜냐, 바로 만화의 한 장면이 실현되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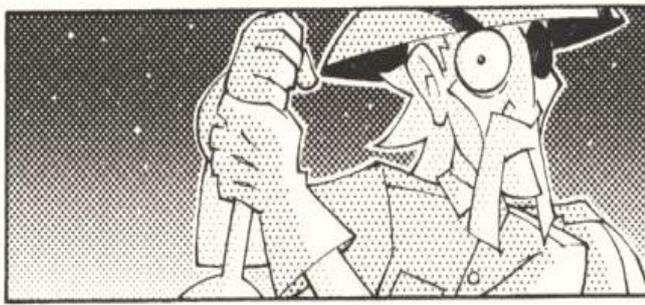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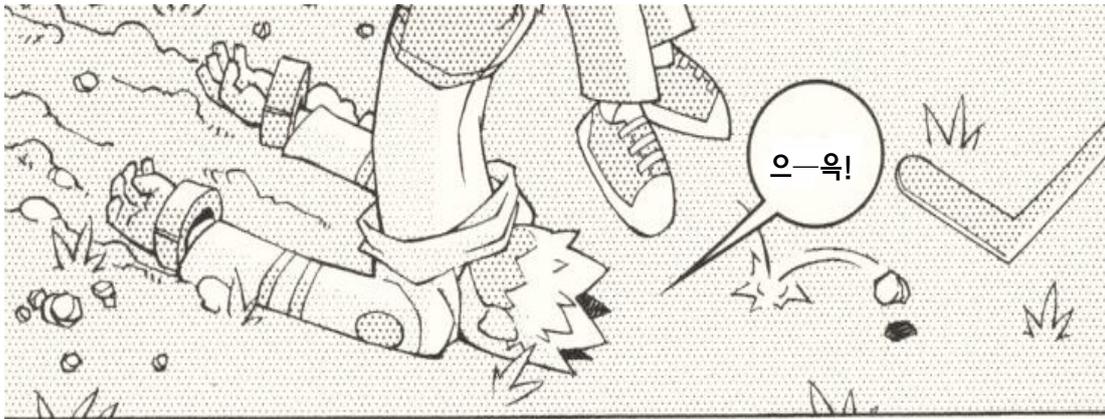






분명, 사무라이다운 행동은 아니네요, 그렇죠?







아.. 배고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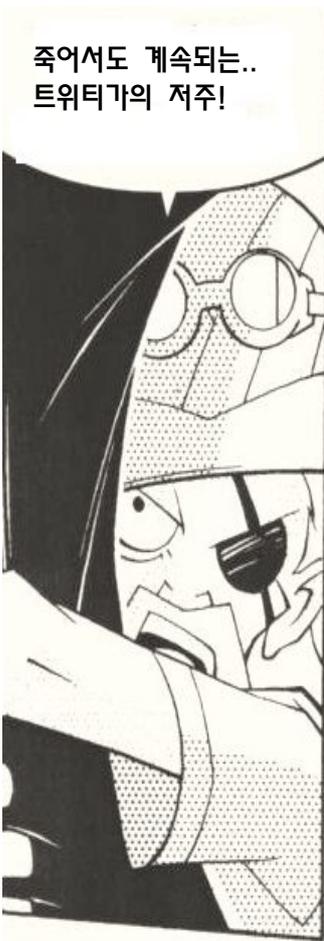
마브?\*

\* 엄밀히 말하면,  
마브 귀신이다.



오랫동안 널  
찾아 헤맸다.  
너무 배가 고파!  
단것을 먹고 싶어서  
죽을 지경이야..





죽어서도 계속되는..  
트위티가의 저주!



이건 내거예요.  
손도 뭘 생각  
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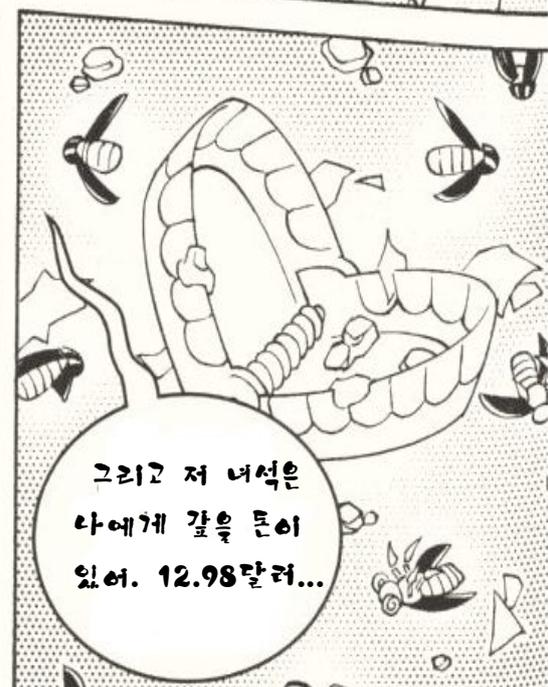


지긋지긋한 나쁜 녀석.  
저 녀석이 너를 죽였어,  
마브. 그리고 이 기엣은  
모까지도...

모—!!



아니예요,  
난 아니라고요.  
난 그저—



그리고 저 녀석은  
나에게 갈흑 돈이  
있어. 12.98달러...





트위터형제의  
복수다!!

고 — 웅 — 격!

요 도 레이  
....

요 도

레이 — 이

요 도 레이...





"어디로 사라졌지?" 쌍둥이 트위터 형제가 중얼거린다.  
 두 사람은 재빨리 여기저기 둘러본다.  
 "그 애가 도망가고 있어— 페어리랜드로!" 하고 하브 아저씨가 소리친다.  
 "돌아오지 못해!" 하고 마브 귀신이 외친다. 그리고 귀신은 "아 - 아 - 아!!"  
 하고 울부짖는다.

귀신과 모험가는 젤리피쉬 셔츠를 입고 급히 도망가는 한 형체를 따라 긴 내리막길로 쫓아 내려간다.

롤로는 배낭과 하키 스틱, 그리고 더러워진 만화책의 일부분을 든 채로 죽을힘을 다해 뛰면서 슬쩍 뒤돌아본다. "지도 따윈 필요 없어!" 반항적으로 중얼거린다. "어떤 것도 나의 원정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지!"

비록 그 말이 사무라이 방식의 대결에서 도망치는 것을 뜻 할 지라도 할수 없다.

"저 녀석의 귀를 때려! 저 녀석의 코를 때려!"

다른 귀신 소리가 들려온다.

롤로는 바짝 속도를 올린다. 탑 앞에 페어리랜드 표지판이 있고 연못 바로 건너편이다.

양중맞은 돌다리가 건너편으로 연결되어 있고 바로 옆에는 노 젓는 배가 있다. 롤로가 돌다리에 막 도착할 때 기분 좋은 표지판을 발견한다. "여기서 건너세요!" 롤로는 교묘한 안내자가 아니지만 그래도 롤로는 한 두가지 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롤로는 방향을 바꿔서 보트가 있는 곳으로 간다. 물론 롤로는 노를 저을 줄 모르지만 연못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일종의 건너는 수단으로 보트를 사용할 것이다. 화가 난 트위터 형제들이 쫓아오는 지 뒤 돌아서 다시 한번 확인한다. 롤로는 웃는다. 그리고 보트로 뛰어오른다.

그것은 보트가 아니었다.

"안 돼—!" 롤로가 썩하고 소리친다. 바닥이 갑자기 기울더니 부서지는 소리가 난다. "안 돼!" 또 한번 말한다. 그리고 나서 롤로는 이동 통로를 따라서 사라진다.

## 열여덟

한편...

"초콜렛 먹보는 없었으면 좋겠다." 르네 더프만은 노린네 집 앞문을 들어서면서, 인정도 없이 특정 사람을 언급하며 훌쩍 거린다. 그들은 영화관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저녁 여흥을 막 마치고 왔다.

"없어, 다행이야. 개는 나갔어. 몰라 어디 갔는지는." 하고 귀찮은 듯 노린이 말한다. 그리고 노린은 최대한 거짓으로 재미없다는 듯 하품을 한다. "아마도 얼굴을 유치한 수지 뭔가 하는 만화책에 쳐 박고 있겠지."

"어머나, 세상에!" 무시하는 투로 르네는 코웃음을 친다.

“애...” 노린이 묻는다. “내 생각 굉장하지 않니?” 노린은 짓궂고 알 수 없는 웃음을 짓는다.

“예를 들어?”

“예를 들어, 롤로가 찾아내는 거지...” 짓궂은 노린이 혼자 싱글벙글 웃는다. 그리고 키득거린다. “롤로가 늘 관심을 갖는 곳에서 말이야...”

## 열아홉

밑으로, 급격한 경사, 칠혹 같은 어둠이 있는 이동통로를 따라 비명을 지르며 롤로가 몇 분간 계속 추락한다. 하키 스틱은 불에, 그리고 배낭은 목에 떨어진다. 게다가 루어링 레인보우 놀이동산에서의 어떤 놀이기구처럼, 몸 전체가 자신의 배를 누르는 것 같다. 그리고 나서 롤로는 어둠을 지나 거꾸로 발사는 것올라온다. “우와 우와 우와!” 롤로는 숨이 막히는 것 같다. 그리고 그 그될 개로 갈라지는 나무에 짱 하고 충돌하더니 그것을 통과해서 신선한 공기 밖으로 발사되어 나온다. 그리고 어딘가에 쿵하고 부딪힌다.

그리고 나서 다시 추락하다가, 순간 급격히 멈춘다.

“으으,” 몸이 흔들리고 작은 별들이 눈앞에서 빙빙 돌자 눈을 껌벅거리며, 롤로는 신음한다.

그래서 이렇게 롤로는 자신이 나무 가지에 걸려 대자로 누워 있는 것을 알게 되나요?

## 스물

네, 정말 아슬아슬했네요.

엄밀히 말해서, 그리고 운 좋게도, 배낭 때문에 매달리게 된 거예요. 이동통로에서 발사되어 올라갈 때, 나무의 큰 가지에서 튀어나온 작은 가지 그루터기에 세계 부딪히면서 걸린 거죠.

4피트 아래에, 캄캄하고 두 개로 갈라진 이동통로의 커다란 구멍은 마치 롤로가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것 같다.

“사람 살려—” 구멍을 보자 롤로는 다급하게 소리친다. 그리고 롤로가 그곳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자, 가지 그루터기의 갈라지는 소리가 난다. 롤로는 소리를 지르며, 바닥 쪽으로 내려가려고 발버둥을 친다. 끄찍한 이동통로에 다리 한쪽이 빠진 채로 롤로는 하키 스틱 위에 쿵하고 걸린다.

“사람 살려!” 하고 소리친다. 죽을힘을 다해 롤로는 기어오른다. 그리고 롤로는 가지가 시작되는 곳에 기대어 몸을 웅크린다. 목이 바짝바짝 타고, 찢어진 코와 귀, 팔꿈치가 쓰라리고, 목과 어깨가 따끔거린다.

“여 - 여기가 어디지?”

아무래도 연못 건너편, 페어리랜드의 어딘가에 있는 것 같다.

드디어—페어리랜드다! “끝 - 내 - 준다!” 자축하며 그토록 하고 싶었던 말을 뱉어낸다. 그리고 빈정대던 누나에게 딱 적절하고 직접적인 말도 생각해 낸다! 하지만 예상했던 말은 입가에서 점점 사라진다. 롤로는 숨이 막힌다.

자기가 서있는 나무 아래서 볼 수 있는 것은 물론, 주변의 모든 것들은 컴컴한 숲속... 멀리서 이미 봤던 그 컴컴한 숲속에 있다. 하지만 달빛과 별빛 때문에... 그리고 여기저기 덩불사이와 나무줄기 사이에서 빛나는 작은 짓궂은 내용의 표지판들 때문에 완전히 컴컴한 것은 아니다. 표지판에는 “**페어리랜드에 침 타봐? 여기에 기대봐!**” 라던가, “**페어리랜드에서 좋은시간 보내! 거기 앉어봐!**” 라던가, “**잘 했어, 드러눕기에 폭신하고 좋지, 페어리랜드 스타일이야!**” 라고 쓰여 있다.

“젠장!” 롤로가 중얼거린다.

롤로는 떨리는 하키 스틱을 딱 잡고 일어서서 용기 내어 한두 발짝 앞으로 조금씩 조금씩 걸어 나간다. 그러자 보이기 시작한다. 지금 롤로는 거대한 잎이 우거진 곳으로 꾸불꾸불 나 있는 좁은 길은 보고 있다. “**여기다, 페어리랜드로 가는 자여!**” 그리고 “**진짜 지름길!**” 표지판들이 유혹한다. 전체적으로 보면 모든 길이 컴컴한 숲으로 연결되어 있는 작은 쇼핑몰과 원형교차로처럼 보인다.

기분 나쁜 고요함이 계속되던 중, 롤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특히 쌍둥이 트위터 형제들의 고품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

롤로는 완전히 혼자다.

롤로는 완전히 혼자가 되어, 한 밤에 이동통로가 도사리는 어두운 숲속에서 길을 잃었다. 지도도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며, 또한 어떤 위험들이 정확히 어디에서 일어날지도 모른다.

“엄 - 마 - 아!” 롤로가 외친다. 솔직히 말해서, 혼자 된 것은 어떤 것보다 더 원했던 바다.

고요함이 흐른다.

“엄 - 마 - 아!”

그때 어시선가 새가 꺽꺽거리며 울자, 롤로는 점프한다. 그리고 커다란 빨간 독버섯 근처 덤불속에서 바스락 거리는 소리가 나자, 다시 점프 한다. 커다란 빨간 독버섯이라고요! 롤로는 꼼짝 않고 서서 그곳을 바라본다. 좀 더 바스락 거린다. “누 - 누구세요!” 하키 스틱이 떨어지고, 롤로는 숨을 죽인다. 그는 한 발짝 물러나서 카악 하고 외치며 나무 뒤로 황급히 달려가 지켜본다. 작은 얼굴이 독버섯 아래에서 롤로를 쳐다본다. 다람쥐 얼굴이다. 그것은 눈을 깜박거린다.

“빌어먹을 다람쥐!” 하고 롤로는 욕을 한다.

다람쥐는 다시 눈을 깜박이다가 요란스럽게 사라진다. 나무 가지 위에서 무엇인가 뚜우뚜우 운다.

롤로는 젤리피쉬 유니폼을 입고 배낭을 맨 채로 몸을 웅크린다. 솔직히 말하면 너무 영웅담지 못하죠. 어떤 아이들은 어둠을 굉장히 좋아하지만 롤로는 그런 아이가 아니에요. 한번은 내기 때문에 롤로는 아무도 없는 집에 불을 켜고 혼자서 4분을 견뎌냈었다. 내기는 15분을 견뎌내는 것이어서 롤로는 지고 말았다. 지금 롤로의 심장이 쿵쿵쿵쿵 뚝뚝 뛰다.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조용히 흐느낀다. 조용히, 조용히 롤로는 너티너츠바 포장지를 뜯어서, 기분이 좋아지도록 그것을 조금씩 뜯어먹는다. 사람들이 가끔 너무 좋아하는 음식 때문에 보여주는 제정신이 아닌 이런 행동이 얼마나 기이한가요.

그리고 롤로는 평소처럼 마음의 안정을 위해, 눈을 가늘게 뜨고 검객소년 사무라이 스위치의 남아있는 부분을 보려고 한다. 하지만 책의 남아있는 부분들

은 가슴 아프게도, 그것으로 끈적거린다. “내가 그 진절머리 나는 틀니를 죽였다면 좋겠다.” 롤로는 씩씩하게 중얼거린다. “도대체 난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 거지, 너무 무서워.” 롤로는 흘쩍거린다. (이것 말고는 적절한 표현이 없는 거 같네요.) 하브 아저씨가 맞았네요. 롤로는 고블린들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을 절대 찾을 수 없을 거예요. 가증스러운 노린 누나도 맞았네요. 모든 것이 어마어마한 실패로 돌아가네요. 롤로는 혼자예요. 너무나 캄캄한 숲속에서 길도 잃었어요!

분명히, 롤로는 길을 잃었어요. 모든 영웅들에게 힘든 순간이 있는 법이죠. 롤로에게는 그 순간이 분명 지금이에요.

“오, 내가 혼자가 아니라면 좋을 텐데.” 앞뒤로 몸을 흔들며 흐느낀다. “오, 검객소년 수이치 같은 누군가가 여기에 함께 있다면 좋을 텐데. 오, 수이치가 여기 있다면 좋을 텐데. 오, 정말, 정말 좋을 텐데.” 여러분도 알겠죠. 몸을 앞뒤로 흔들며 찢어져버린 만화책 남은 부분을 가슴에 품고, 두 눈을 꼭 감고서 롤로는 페어리랜드의 캄캄하고 아무도 없는 이 숲속에 만화 속 영웅이 나타나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란다.

무엇인가 롤로 옆에서 바스락거린다. 롤로는 두 눈을 재빨리 뜬다. 껍 소리 치며 만화책을 떨어뜨리면서 뒤로 물러난다.



난.. 씨머타임  
노래소년 수피야.  
'노래소년 수피' 라고  
불러줘.







“내가 뭘 잘못 한 거지?” 노래 소년 수피는 기분 나빠 보인다. “나 굉장히 재밌어. 그리고 노래도 할 수 있어. 들어봐, 너에게 힘을 줄 거야. 랄-라-라, 랄-라-라!” 하와이 티셔츠를 입고 있는 수피는 우쿨레라를 연주하면서 흥얼거린다. 너무 끔찍하다.

“끔찍하다.” 물로가 비웃는다.

“그런 심한 말을 하다니!” 노래 소년은 혼잣말을 한다. 그리고 그의 포동포동한 얼굴을 곧 울음을 터뜨릴 것처럼 찡그린다. 그때 무엇인가 머리위에서 크게 뚜우뚜우 울자 노래소년은 움추린다. “저게 뭐야?” 하고 침을 꿀꺽 삼킨다. 그는 괴로움에 고개를 들어 둘러본다. “이런, 여기 너무 끔찍해, 귀신이 나올 것 같잖아. 네가 왜 무서워했는지 알겠어!”

“난 무섭지 않았어!” 물로는 몹시 화를 낸다. “그리고 내 이름은 물로야! 그

리고 넌 사무라이의 존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당연히, 모르지. 나는 연예인이거든!” 하고 작은 딸기 모자를 쓴 노래소년 수피가 투덜거린다. “날 비난 하지마, 난 너의 상상으로 만들어 졌을 뿐이야. 대신 너를 비난해!”

“그럼 숭고한 원정에서 어떻게 나를 도와 줄 건데? 어떻게 고블린들로 부터 우리엄마를 구출할 건데?”

“고블린이 뭐야?” 그 흐물흐물한 노래소년이 묻는다. 롤로가 소리를 지르며 답하려 하기 전에, 노래소년은 더 묻는다. “지도는 언제? 아마 하나 있어. 그거라면 도움이 될까?”

그리고 소년은 롤로가 여태 깔고 앉아 있었던 종이 한 장을 꺼내려고 롤로를 힘껏 민다. 그것은 지도다.

## 스물하나

“그거 어디서 났어?” 롤로가 소리친다.

“몰라, 네가 깔고 앉아 있었잖아.” 노래 소년 수피가 말한다. “어어!” 롤로가 수피에게서 지도를 뉘아채려 하자, 수피가 소리친다. 지도는 반으로 찢어진 다. “너 굉장히 무례하구나!” 롤로는 두 장을 모두 잡았고 이에 수피가 소리친다.

롤로는 자기 손에 있는 것을 찬찬히 본다. 도대체 어디서 난거지? 지도는 너티너츠 상표가 그려져 있는 것만 빼면, 얼핏 보았던 하브 아저씨와 로니조니 교도관의 페어리랜드의 지도와 똑같다. 게다가 이것은 반으로 찢어졌고 자기가 깔고 앉아서 인지 종이는 구깃구깃 엉망이다. 하지만 하브 아저씨의 지도와 이, 구불구불하게 나 있는 점선으로 된 길들이 복잡하게 뒤엉켜 있고... 그리고 그들 중 하나는 특히 암호로 표시되어 있고, **"고블린 집합소"**로 안내하고 있다.

“복잡한 부호군.” 하고 상상의 친구가 지도를 쳐다보며 투덜거린다. “라어

뛰총깡총깡 서기여'가 무슨 뜻이지? 야, 너 어디 가는 거야?"

롤로는 나무 가지 끝으로 기어간다. 그는 손에 있는 찢어진 지도 조각을 뻗히 쳐다본다. 롤로는 벌떡 일어난다.

"이거야. 그래, 바로 이거야!" 롤로는 지도 위 하나의 길을 가리키며 힘차게 소리친다. 이 길, 아주 작은 푼말에는 눈에 띄지 않게 하려고 매우 간단하게 '여기서 깡총깡총뛰어라' 라고 쓰여 있다. "여기서 깡총깡총뛰어라!" 롤로가 웃는다. 지도는 글을 거꾸로 썼을 뿐이다. 아 정말, 이것을 해독하려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브 아저씨와 그의 전문적인 지도 읽기 비법은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었네요.

하지만, 롤로는 다른 길에도 '여기서 깡총깡총뛰어라' 표시가 있다는 것을 방금 알게 된다. 그리고 하나 더 있다. "모두 세 개네?" 혼란스러워진 롤로가 중얼거린다.

"머리아파." 흐물흐물한 노래소년이 항의한다."여기에 있는 것이 더 안전하겠어. 훨씬 안전 할—, 저건 뭐야!" 무엇인가 근처에서 부우부우 울자 노래소년은 획 돌아보며 소리친다.

"가만히 좀 있어." 롤로는 자기의 일행이 흠칫 놀라는 모습에 같이 놀란다.

"너무, 무서워!"

"그런 말 좀 하지 마." 여러분이 감정을 조절하려고 애쓸 때 누군가 자신의 감정을 여기저기서 쏟아 붓는다면 정말 미칠 노릇이죠.

"음,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할 거라면, 뭘 먹어 보는 건 어때?"

"하지만, 넌 진짜가 아니잖아." 롤로가 대꾸한다. "넌 먹을 수 없어."

"아니야, 나도 먹어. 모든 사람이 먹는 듯이!" 노래 소년 수피가 대답한다. 정말로 수피는 먹는 것을 좋아한다.

수피는 캄캄한 황무지에서 한 밤에 길을 잃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일행일 뿐이다. "너무 배고파."

"너 너티너츠 바 하나면 충분할 거 같아." 마지못해서, 롤로는 노력하며 말한다. 나누어 먹고 싶은 생각은 조금도 없고 앞서 일어났던 일 때문에 불안하기도 하다. "딱 하나만이야. 왜냐—"

"딱 하나? 하지만 난 너티너츠를 굉장히 좋아해. 네 개 줘!"

“안 돼!”

“취 - 어 - 어!”

“그거 알아?” 롤로가 묻는다. “네가 여기 있는 것은 굉장한 실수라고 생각해. 넌 원래 네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야 할 거야!”

“너 굉장히 무례하구나!” 가상의 노래소년은 흐느껴 운다. “싫어!” 하고 거부하며 훌쩍거리다. “난 돌아가지 않아!” 그리고 하와이 티셔츠를 입은 채 그는 팔짱을 낀다.

별꼴이네요.

“무슨 뜻이야?” 롤로가 다급하게 말한다. “내가 너를 만들었어. 그러니 내가 너를 끝낼 거야.”

“그래서, 난 싫어. 그리고 위로 차 나에게 먹을 것을 충분히 주지 않을 거라면, 적어도 노래는 부를 수 있게 해줘!” 하고 말하더니 그는 우쿨렐라를 집어 놀려서 그것을 연주 한다.

“그만 뒤, 그만 두라고! 저리가!” 롤로는 주먹을 불끈 쥐고 노래소년을 향해 다가가면서 그를 향해 소리친다.

모든 것들이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좋아!” 어찌할 바를 몰라서 롤로는 무서운 눈빛으로 소리친다. “이봐 — 간다구!” 롤로는 터벅터벅 걸으며 배낭과 하키 스틱, 그리고 남아있는 만화책을 가지러간다.

노래소년이 징징 울어대며 롤로 앞에 털썩 주저앉아, 롤로의 무릎을 감싸 안고 입학식 날 학교에 가기 싫어하는 아이처럼 매달리는 통에 (롤로는 하는 수 없이 허락한다.)

“싫어, 여긴 너무 무서워, 날 버리지 마!” 하고 노래 소년이 울부짖는다.

“저리가, 저리가.” 교활한 누나가 꾸며낸 끔찍했던 일일 생각나서 롤로는 소리친다. 롤로는 자신을 꼭 잡고 있는 노래소년을 세계 밀다가 끌어당긴다. 그는 이상하게도 흐물흐물하고 안개 속에 있는 느낌이다. “아야, 아야!” 꼭 잡고 있는 그 흐물 거리는 소년이 울부 짖는다. 롤로는 노래소년을 번쩍 들어 올려서 그를 우쿨렐라 위로 던진다. 그러자 그는 이동통로 입구까지 미끄러진다. “도 - 도 와줘—” 수피는 당황하며 소리친다. 숭고한 마음을 지닌 롤로가 사실상 원치 않

은 상상의 친구를 갈라진 구멍 속으로 밀어 넣으려 했을 때, 롤로자신은 훨씬 더 당황한다. 하지만 몸집이 큰 노래소년은 구멍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냥— 가! 가라고!” 롤로는 격하게 말한다. 결국 롤로는 획 돌아서서 성큼 성큼 걸어가서 자신의 물건을 잡는다. 다시 쿵쿵 걷어가지만 수피가 털썩 주저앉아 또다시 매달리는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한다.

“날 버리지 마! 너 - 무 무서워!” 똥똥보 노래소년은 애처롭게도 땅바닥에 들어 누워서 시끄럽게 울어댄다.

“닥쳐, 닥치라고!”

이 정신 이상적 행동덕분에, 롤로는 돌아서서 짓궂은 말들로 반짝이는 표지판을 향해, 앞이 무성한 어둠속을 무작정 쿵쿵 거리며 걷는다.

## 스물둘

심장이 고동치고 두 눈은 이동 통로를 유심히 살피면서 할 수 있는 한 빠르게, 그러나 살금살금 걷는다. 롤로는 진심으로 누나를 욕한다. 롤로는 ‘여기서 깡충깡충뛰어라’ 라고 쓰여 있는 첫 번째 길에 도착한다. 그 곳에서 멈춰 서서 롤로는 숨을 죽인다. 롤로는 눈을 가늘게 뜨고 지도 조각을 쳐다본다. 실제로 이 모든 것이 완전히 짓궂은 장난 같다. 첫 번째 길은 구불구불하게 페어리랜드 안까지 뻗어있다. 그 길은... 한 때 롤로가, ‘어디로 가는 길일까? 누구를 만날 수 있을까?’하고 생각하면서 읽던 어린이용 그림책에서나 나올 것 같은 커다란 활엽수림 사이 뻗어있다. “젠장” 롤로가 투덜거린다. 롤로는 다시 욕을 한다. 그리고 공기 중에서 고블린의 냄새가 나자, 훌쩍거린다. 롤로는 소심하지만 용기 내어 첫걸음을 내딛는다. 롤로는 몹시 불쾌한 가상의 친구가 저 멀리 뒤에서 투덜거리는 소리를 듣는다.

아니, 그리 멀지 않은 곳일까?

롤로는 재빨리 돌아본다. 그러자 소름끼치게도, 거대한 아기가 엄마를 빠르

게 쫓아가 듯, 노래소년 수피가 두 팔을 앞으로 뻗은 채로 비틀비틀 걸으며 자신을 쫓아 오는 게 아닌가!

“안 돼!” 롤로가 소리친다. “저리가— 네가 내 원정을 다 망치겠어!”

“잠깐! 너랑 같이 갈래! 으아아아앙!”

“안 돼!” 롤로가 날카롭게 외친다. “그만해—” 롤로는 거세게 하키 스틱을 흔든다. 그리고 필사적으로 여기저기 주변을 확인한다. 그러더니 롤로는 그 집요한 프랑켄슈타인 괴물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 길을 따라 달아난다. 매우 흥분했지만, 롤로는 작은 속임수 표지판과 예상치 못한 화려한 작은 땅들을 조심하면서 허둥지둥 달린다. 페어리랜드에 왔는데 이젠 또 무슨 낭패람! “난 노린이 너무 싫어. 너무 너무 싫어.” 하고 롤로가 다급하게 중얼거린다. (마치 처음 하는 얘기처럼 말이에요.)

“으아아앙!” 가상의 친구가 뒤편 어디선가 큰 소리로 울어댄다.

커브 길이 나온다. 그리고 갑자기 두 갈래 길이 나온다. “젠장—” 롤로는 급히 멈춘다. 어느 길로 가야할지 모른다. 그 순간 롤로는 굉장히 멋있는 소리, 즉 비명소리를 듣는다.

“여기도 구멍이 있네. 구멍에 끼었어!” 노래소년 수피의 목소리가 들린다. “도 - 와 - 줘, 내가 빠졌어!”

롤로는 너무 기뻐서 그 길을 따라 다시 돌아간다. “이동통로야! 하하하 재밌는 시간 보내!”

“제발 도와줘! 으아아앙!”

“노린 누나한테 도와달라고 해봐! 하하”

귀에는 애처로운 울음소리가 울려 퍼지지만 롤로는 유쾌하게 그것을 외면한다. 그때, 롤로는 갑작스러운 냄새에 숨을 멈춘다. 그리고 길옆에 있는 덩불을 낮을 잃고 바라보다 뒤로 물러선다.

쭈글쭈글하고 날카로운 눈빛의 작은 얼굴도 낮을 잃고 롤로 쳐다본다.

“고블린!—” 롤로가 중얼거린다. (드디어 찾았네요!) 롤로는 하키 스틱을 더듬더듬 만지다가 갑자기 들어 올린다.

덩불과 꽃잎으로 엮은 상의를 입고 있는 고블린은 살짝 망설이다가 미친 듯이 좌우를 살핀다. 그 고블린은 소변을 보고 있는 중임에 틀림없다. 비명을 지

르더니, 고블린은 아직 불일이 끝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만든 바지를 올리면서 폴짝폴짝 뛰고 어색하게 절뚝거리며 갑자기 덩불속으로 급히 사라진다.

“멈춰!” 롤로가 외친다. “안 그러면, 너를 슬랩 샷으로 날려 버릴 테다!”

고블린은 멈춰 몸을 웅크리고 자신의 몸을 쓰다듬는다.

“역겨워—” 오물과 냄새에 롤로가 느닷없이 말한다.

“좋지는 않지!” 작은 고블린이 부들부들 떨고 있다. 곧 울음을 터뜨릴 것처럼 못난 얼굴을 만들더니, 꺾 소리친다. “크 - 큰 아 - 악당!”

“난 악당이 아냐!” 하고 롤로는 코웃음을 친다. “우리엄마는 어디 있지?” 몹시 흥분해서 롤로의 심장이 똬다. “나는 목검소년 사무라이 롤로다. 그리고 난 엄마를 구하기 위해 여기에 왔다. 넌 나의 인질이 되었다! 나를 엄마가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라!” 그리고 나서 롤로는 고개를 돌려 노래소년 수피쪽을 보고 소리친다. 수피는 차 경보음처럼 내내 계속해서 듣기 싫게 통곡을 하고 있다.

“맞지?” 크 - 큰 악당!“ 작은 고블린은 훌쩍이며 말한다. “큰 놈!”

“난 악당이 아냐!” 롤로는 소리친다. 이건 정말로 터무니없는 악몽같다. “난 실제 용감하고 숭고한 마음을 가졌지, 알겠어? 너는 우리 엄마를 납치했던 그 녀석이고! 잠깐만—” 롤로는 걱정이 치밀어 올라서 갑자기 숨을 죽인다. “나머지 고블린들도 여기 있나?” 롤로는 하키 스틱을 준비상태에 놓고 몸을 이리저리 돌린다.

“아니, 그들은 모두 고블린 집합소로 돌아갔다.”

“그곳에 엄마가 있나? 엄마가 안전하겠지? 넌 엄마를 고문하지 않았겠지?”

“너의 엄마는 괜찮아.” 고블린이 항의한다. “너무 기가 세! 엄마는 계속 울통불통하고 끔찍한 바나나 크림파이를 만들어. 토 할거 같아.”

“우리 엄마는 기가 세지 않아!” 롤로는 비록 그들의 비판이 사실일지라도 외부사람에게서 가족의 명예를 지켜주기 위해서, 대꾸한다. “그리고 그 파이 맛 있어! 그러니 너—넌 나를 엄마가 있는 곳으로 안내해. 그리고 속임수 쓸 생각마! 닥쳐!” 롤로는 엉엉 울며 불평하는 고블린을 향해 소리친다.

“싫어, 난 못해, 난 못해—난 절대 돌아가지 않아!” 고블린이 외친다. 그리고 뛰다시피 하며 다시 허둥지둥 간다. 롤로는 소리치며 그를 쫓는다. 빙빙 돌다가 들은 다른 덩불속으로 들어간다. 고블린은 길고 주름진 귀와 작고 주름진 손

은 공중에서 필력거리며, 마치 도망가는 유치원생처럼 움츠리기도 하고 덜커덕거리기도 하면서 도망을 간다. 사나움 정도로 볼 때, 그 고블린은 프레전트 호수 고블린 무리에서 하위등급에 속한다. 원정을 나선 영웅에 대적할 상대자로서, 예를들어 고스트 데몬 어쌔신과 비교하면 그 고블린은 완전히 실패작이다.

“오, 제발, 난 방금 페어리랜드에서 도망쳤어. 더 이상 그녀를 데리고 갈수 없어. 너에게 말해두지만, 그녀는 굉장히 기가 세!”, “엄마는 기가 세지 않아!”, “그리고 모든 설탕과 전분가루, 그리고 이동통로와 표지판, 그리고 길! 난 굉장히 예민해서 그런 것들 때문에 미쳐 버릴 거 같아.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고 고블린이 하소연을 한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이다. 어두운 그림자가 그의 눈가에 동그랗게 원을 그리고 있으며, 그것은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이다. “난 고블린 집합소로 가는 길을 몰라. 난 길도 잃었어. 이 지도는 너무 헛갈려!” 하며 고블린은 웃웃을 더듬거리며 지도 한 장을 찾고 애처롭게 그것을 두 손을 모아 들어올린다.

롤로는 그것을 보고 눈을 껌벅거리다. 그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다. “그거 어디서 났지?” 하고 롤로는 놀라서 묻는다.

“그들이 지도를 거저 줬어. 특대형 그것... 그 불길한 너티너츠바 한 봉지랑 같이. 지도는 사방에 널려 있어.”

놀랍게도 롤로는 여기저기 덩불 속에 있는 페어리랜드 지도의 복사본을 보고 있다. “응? 그런데 불길한 너티너츠라니, 무슨 뜻이야? 너티너츠는 최고야! 그리고 네가 골블린 집합소를 모른다는 게 말이 되니? 나를 그곳으로 데려가라! 내 인질야! 그리고 솔직히,” 하고 목소리를 낮추며 롤로가 말한다. “고블린 보물이 대체 뭐야?”

“몰라— 절대!” 작은 고블린은 괴로워하며 외친다. “난 절대 맹세를 저버리지 않을 거고 말하지 않을 거야. 난 할말 다 했어. 그들이 나를 썩은 도토리랑 함께 끓는 물에 쳐 넣을 거라고! 그리고 그러고 싶어도 난 너를 고블린 집합소로 데려 갈 수가 없어. 난 길을 잃었으니깐!”

“좋아, 최소한 너는 이 ‘여기서 깡충깡충뛰어라’라는 길이 그곳으로 연결되었는지는 알겠지.”

“아마도 그럴 거야, 아마도...”

“오, 그래— 이게 적어도 이 근처야?”

“아마도— 잘 몰라. 난 길을 잃었어, 악당아!” 움추러든 상대가 어찌할 바를 몰라서 꽤액 소리친다. “나를 그곳으로 데리고 가— 닥쳐!!” 물로는 어깨 넘어로 소리친다.

“돌아갈 바에야, 차라리 죽는 것이 나겠어!” 달아나며 고블린이 외친다. 물로가 그를 붙잡으려 할 때 그는 난잡하게 빛나는 미나리아재비 덤불위로 몹시 위험한 배치기 다이빙으로 떨어진다. 한마디 외침과 갈라지는 소리와 함께, 그 고블린은 땅속 들레가 우둘투둘한 구멍 안으로 사라진다.

입구의 뾰족한 부분에 걸린 덤불 자켓의 소매 부분만 제외하고 물로는 다시 완전히 혼자가 된다.

조용하지는 않다.

“나왔어. 너무 무서웠어. 너 어디 있니? 날 버리지마!” 멀리서 고함치는 소리가 들려온다.

“안 돼! 안 돼—” 물로가 중얼거린다. 물로는 소리치며 그 길에서 빠져나온다. 물로는 망설인다.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해야 하지? 그는 좌우를 두리번 거린다. 이럴 수가! 물로는 정면으로 길이 갈라지는 곳을 향하고 있다. 어떤 길로 가지? 물로는 지도조각을 떠올리려고 안간힘을 쓴다. 하지만 헛수고였다. “엄마!” 하고 엄마를 부르며 물로는 왼쪽 길을 따라 달려간다. 그냥 어딘가에 가려고

그 결과 길 옆에 인동 넝쿨로 덮여있는 통나무가 이리저리 움직이다가, 폭발한다.

## 스물셋

또한, 페어리랜드 안으로 달빛이 비쩍 마르고 꿈틀꿈틀 움직이는 두 형체를 비추고 있다. 하나는 흐릿하고 귀신같아 보이고, 또 하나는 탐험가 헬멧을 쓰고 있으

며 두 형제 사이에는 긴 장대 그물이 있다.

“트위티 형제다!” 롤로는 너무 놀라 제자리에 멈춘다.

쌍둥이 형제는 다시 이동통로 쪽으로 추락한다. 그때 그물 장대를 이용해서 입구에 걸리도록 하여 그 옆으로 뒹군다.

욕을 하며 롤로는 빠르게 돌아서서 그가 왔던 길로 재빨리 되돌아간다. 롤로는 길이 갈라지던 곳에 도착한다. 그리고 이번엔 다른 길을 선택한다. 이번 길도 커브길이고, 약간 음흉해 보이는 표지판이 길 옆에서 뻥뻥거린다. 롤로는 급히 달려간다. 그리고 짹하고 소리치며 멈춘다. “안 돼—” 그 길은 좀 전에 봤던 이동통로와 트위티 형제에게로 다시 가도록 구불구불 나 있었다. 그들은 신이 나서 한쪽으로 주변을 살펴보고 있다.

“저기 그녀석이야!” 하고 하브 트위티 아저씨가 소리친다. 사악한 정신병자 같으니!”

“저 녀석 귀를 때려! 코를 때려!” 마브 트위티 귀신이 외친다.

“젤리비니위니비니!” 희미하고 귀신같아 보이는 물방울이 하브 아저씨 어깨 위에서 비웃는다.

그리고 그들은 롤로를 쫓아온다. 롤로는 재빠르게 돌아서 왔던 길을 따라 재빠르게 달려간다. “완전히 엉망이 됐어—”하고 롤로는 한숨 쉰다. 그 말 그대로일 수 있는 상황이다. 롤로는 지금 갈림길이 있던 쪽으로 무작정 달리다가, 미끄러져 넘어진다.

커브 길에서 어느 하와이 셔츠가 마침내 비틀거리며 나타났기 때문이다.

“으아아앙!” 셔츠 주인은 거대한 팔을 앞으로 뻗은 채로 고향을 지른다. “으아아앙!”

“안 돼, 잠깐— 잠깐, 내 원정은—” 수많은 적들이 다가오자, 롤로는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면서 외친다. 진퇴양난! 자포자기 상태로 롤로는 빙빙 돌았다. “엄마!” 하고 소리친다. “엄마!”

길 건너 어두운 덩굴 속에 고르지 않은 돌담이 있다. 그 안에는 구멍도 있다. 그리고 다행히 빛나는 표지판은 없다. 이곳에 무엇이 있는지 누가 알겠어요? 미친 듯이 소리치며, 롤로는 몸을 숨기기 위해 그 구멍으로 뛰어든다.

하지만 그것은 구멍이 아니다. 롤로는 그려진 돌담에 쿵하고 부딪힌다. 아

야! 튕겨 나가 길 위에 대자로 뺨고 하키 스틱은 날아간다.

“아이고.” 작은 표지판에 불이 들어온다.

“레이 - 이 - 이, 요 도 로!” 소리를 낮춘 목소리가 요들송을 부른다. 근처 어디가에서... 아래서?

“아니야—” 한숨을 쉬며 롤로는 간신히 기어간다. 마치 잔디 더미가 터져 열리 듯 교도관이, 누군지 알죠?, 페어리랜드의 달빛 속으로 폭발해 올라간다. 그 뒤로 자살을 시도했던 고블린이 소매 없는 재킷을 입은 채로 따라 올라간다. 그 뒤로는 아주 화가 난 마술가게 주인이 따라 올라간다.

형편없는 요들송 소음과 “모든 것이 너무 스트레스야,”와 “거기서, 도둑놈아!” 라는 외침과 비명이 아무렇게나 섞여서 사방이 시끄럽다.

“기다려—내 원정—” 어찌할 바를 몰라서 허우적대고 몸부림치면서 롤로는 소리친다.

이때 한 형체가 나무숲에서 나와 롤로를 내려다 본다.

## 스물넷

“엄마—” 롤로가 외친다. 롤로는 눈을 깜박인다.

“롤로!” 엄마가 소리친다.

엄마는 숲 속에 서있지 않다. 엄마는 대낮에 롤로의 방문 앞에 서 있다.

“롤로, 바닥에서 지금 뭐하니?” 엄마가 묻는다. “무슨 일이야? 이방에서 비명소리랑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고 노린이 그러던데. 누나가 너무 놀랐잖아!”

“아마 늘 빨아 먹어 치우는 모든 초코바 때문에 뇌가 이상해져서 그럴 거예요.” 엄마 옆에서 노린이 비웃는다.

롤로는 누워있는 카페트에서 그들을 얼빠진 듯이 쳐다본다. 잠옷을 입은 채로. “응?” 롤로가 말한다.

“롤로, 어서 서둘러라!” 엄마가 시킨다. “프레전트 호수까지는 멀어. 너 때문에 우린 이미 늦었다. 우리는 저녁 먹으면서 반딧불이를 보고 싶은데 말이야.”

롤로는 엄마를 보며 눈을 깜박인다.

“우리 벌써 프레전트 호수에 갔었잖아요?” 굉장히 이상한 목소리로 롤로가 말한다.

“너 목소리 왜 그러니?” 노린이 놀린다.

“너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니, 롤로? 우린 오늘 가기로 했잖아.” 엄마가 화를 내며 말한다. “너 아직도 꿈꾸고 그러는 거니? 도대체 왜 그러니, 엄마처럼 이렇게 한번 꼬집어봐!”

“말했잖아요, 재 제정신이 아니라고.” 노린이 분명히 말한다.

“저 녀석 제정신이 아닌 게 분명해.” 잠시 후에 아래층 부엌에서 아빠가 동조한다. 부엌에서 롤로가 좀 전과 같은 이상한 목소리로 이번에 프레전트 호수로 가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이건 우리 가족 나들이야!” 아빠가 롤로에게 단호하게 말한다. “엄마는 가족들이 좋아하는 바나나 크림파이를 만들었어.”

“안 갈 거예요.” 롤로는 짧게 같은 말을 한다.

“버르장머리 없이!” 못 마땅스러운 듯 엄마는 헛기침을 한다. “좋아, 네 마음대로 해라. 뭘 잘못했는지 생각해.”

“그래, 한 달 동안!” 아빠가 말한다.

“네.”

“그리고 초코바는 없어!” 엄마가 덧붙여 말한다.

롤로는 한숨을 쉰다. “네.”

“그리고 유치한 수지인가 뭐가 하는 만화책도 뺏어요!” 하고 노린도 부추긴다.

“누난 조용히 해!” 롤로가 갑자기 껍하고 소리치며 노린을 노려본다. 그런 뒤 롤로는 어깨를 으쓱해 보인다. “알겠어요.”

“롤로, 너 뭐 잘못 먹었니?” 하고 엄마가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말한다. 다른 식구들은 벤에 짐을 싣고 한 시간 뒤에 프레전트 호수로 출발한다.

롤로가 멀찍이 떨어져서 지켜볼 때 “그런데, 재 왜 그렇게 웃고 있는 거

죠?” 라며 노린이 떠나면서까지 비웃는 것을 롤로는 듣는다.

그래요, 롤로는 웃고 있어요. 하지만 굉장히 조심스럽게 웃고 있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카페트와 계단을 시험해보려고 롤로는 집안을 발끝으로 살금살금 걸어요. 다행히,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아요. 그런 뒤 롤로는 시키는 대로 최대한 깨끗히 방청소를 한다. 청소는 롤로에게 새로운 기준을 세우게 해준다. 롤로는 젤리피쉬 유니폼 셔츠와 하키 스틱을 옷장 깊이 곳으로 쑤셔 넣는다. 그리고 나서 TV보거나 노래듣기가 금지되었기 때문에 아래층 거실에서 그냥 앉아 있다.

초코바는 압수당했다. 그리고 검객소년 사무라이 수이치 만화책도 마찬가지로. 그거 알아요?

롤로는 만화책이 전혀 그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미 원정을 다녀왔기 때문이죠.

가끔씩 롤로는 자신을 꼬집어본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으면 살짝 웃는다. 조심스럽게...

늦은 저녁, 롤로는 용기를 내어 현관에 나가본다... 조심스럽게

그때 롤로는 침을 꿀꺽 삼킨다.

우편함 옆으로 분명 누군가 걸어오고 있다. 쉬노클러 아줌마와 애완견 눈꽃송이다.

아줌마는 가던 길을 멈추고 “안녕, 랠리.” 하고 인사한다. “오늘 낮에 네 부모님이랑 네 누나를 봤단다. 프레젠티 호수로 간다던데. 무슨 일 있니? 기분이 좋아 보이지 않는구나?”

“좋아요.” 롤로가 대답한다. 잠시 후,

“목소리가 좀 이상하구나.” 쉬노클러 아줌마가 말한다. “그리고 왜—왜 그렇게 눈꽃송이를 쳐다보지? 그러지 말아라, 애가 겁을 먹잖니.”

때 마침 빨간 리본을 한 눈꽃송이가 미친 듯이 롤로를 향해 짓기 시작한다.

“봐라!” 쉬노클러 아줌마가 짜증을 내며 말한다. “그리고 왜 그렇게 웃고 있지? 솔직히, 너 굉장히 이상한 애구나, 랠리.” 눈꽃송이와 함께 그녀는 개끈을 잡고 뒤에서 휘청휘청 걸어간다.

“롤로예요.” 롤로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혼자 중얼거린다.

하지만 맞아요, 롤로는 웃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활짝 웃었어요. 더 이상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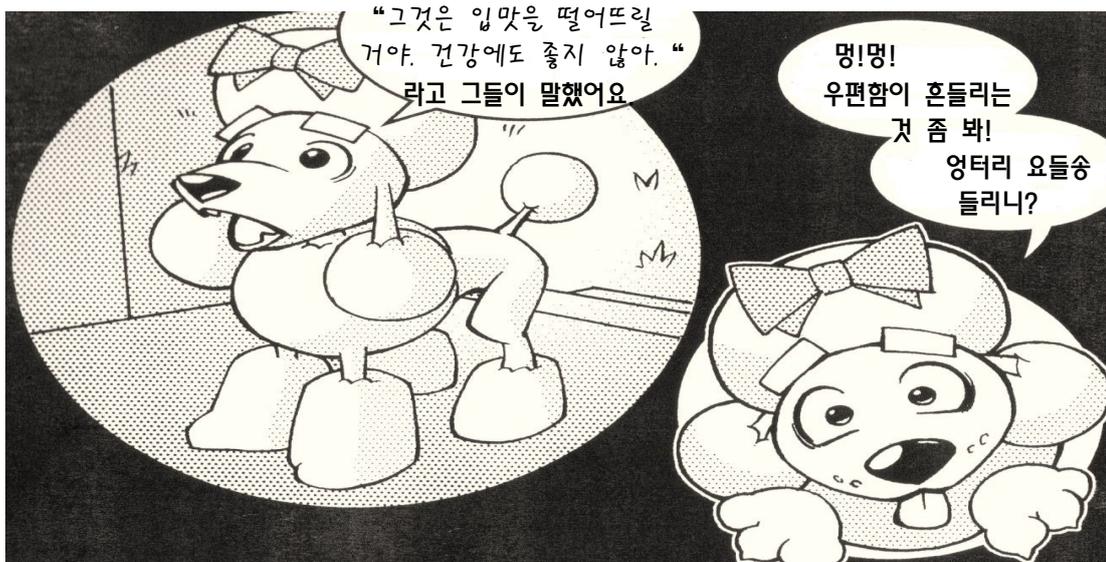
안돼요, 조심 해야해요. 분명히 애완견 눈꽃송이가 굉장히 기분 나빠서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눈꽃송이는 그저 애완견일 뿐이데!

안도하며 롤로는 한 손을 주머니에 밀어 넣어서 꿈지락 거리다가 긴급상황을 대비해서 항상 숨겨둔 특별 너티너츠바를 꺼낸다. 그리고 롤로는 맛있고 바삭 바삭한 한입거리로 자신에게 상을 내린다. 정말 그렇게 달콤한 음식을 먹었는데 즐거움이나 행복감 말고 아무 일도 없을 까요? 그때 롤로는 높은 톤의 짖는 소리를 듣는다. 눈꽃송이가 개끈을 땅에 끌면서 모퉁이를 돌아 뛰어 온다. 눈꽃송이는 롤로네 우편함으로 뛰어오르고 나서 길을 따라 오다가 현관계단으로 올라온다. 눈꽃송이는 동글동글한 작은 꼬리를 흔들며 롤로를 향해 짖는다.

롤로는 입을 헤 벌린 채로 씹다말고 가만히 서서 내려다본다. 즐거움이 가라앉는 기분이 밀려온다. 그러한 기분은 눈꽃송이가 방긋 웃으면서 말하자 더욱 심해진다. “애야, 고블린 보물이 뭔지 알고 싶지 않아? 그건 상상도 못할 만큼의 양의 특대 사이즈 너티너츠바야. 너의 터무니없는 꿈처럼 말이야! 굉장하지, 응?” 빨간 리본을 한 애완견이 말한다.

“제길...” 롤로가 말한다. 굉장히 힘없고 이상한 목소리로, 단지 입안이 짝 찢기 때문은 아니다. 전혀 기분 좋은 목소리가 아니다. “물론 단 것에 대해서 그들이 뭐라고 했는지 너도 알거야.” 하고 눈꽃송이가 계속 말한다.



이 순간 롤로는 절대 초코바를 먹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브로콜리와 주키니 호박과 다른 모든 야채들을 좋아하겠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결심을 했을 때 이미 너무 늦어버릴 때가 있다는 걸 잊지 말아요.

“요 도 레이 - 이 - 이 - 이 - 이, 요 도 로!”